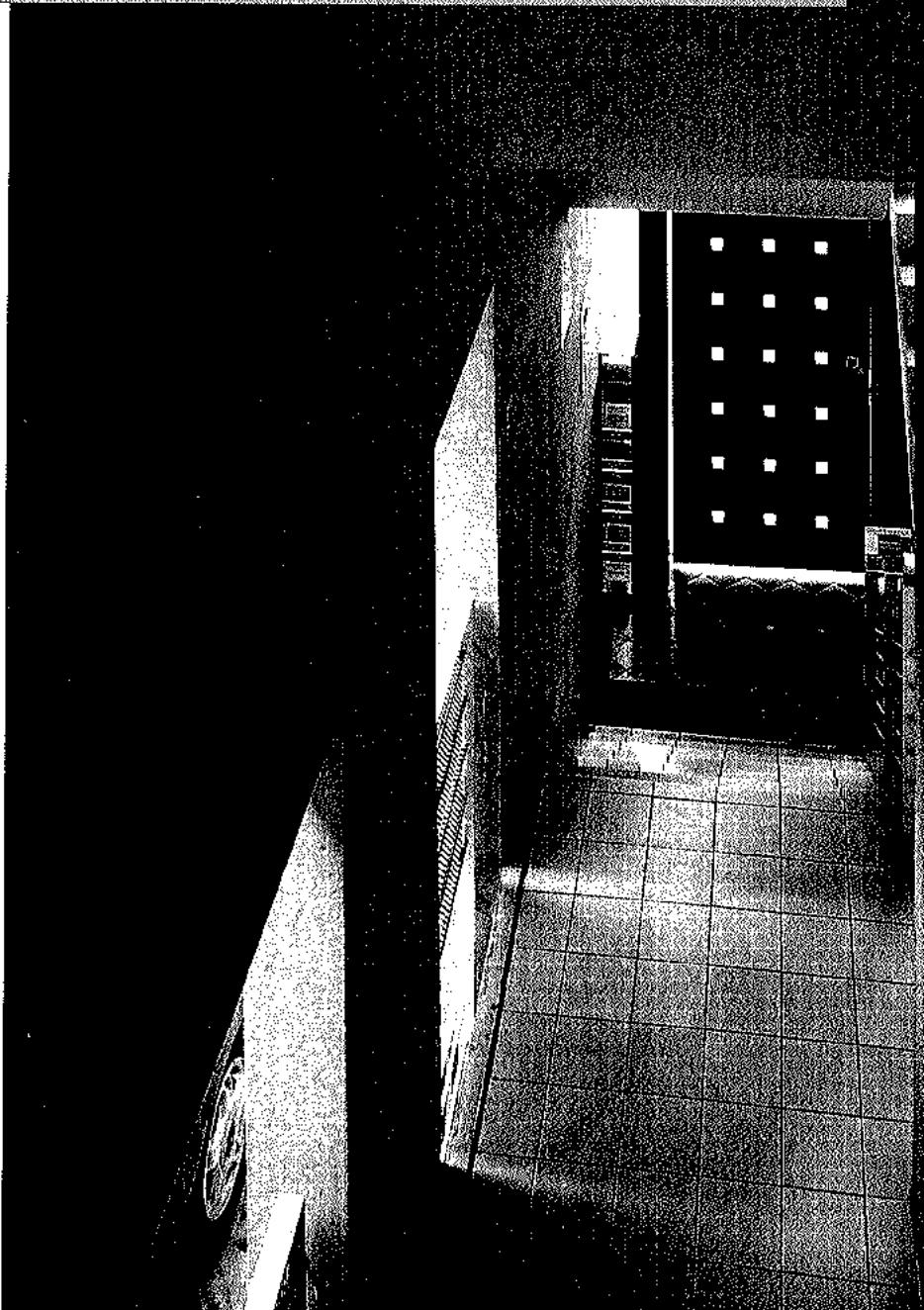


THEATRE

1999 2

경험 **한국인들은 국가 대표는 물론
복지 **2014년 10월 20일(금) 19:00
문화리뷰 **어느바탕******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건축전용 PAINT

ARCHI PAINT

ARCI PAINT는 도면(평면도와 입면도)에 채색 및 다양한 효과를 입혀
건축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조감해 볼 수 있도록 만든
2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ARCI PAINT의 구성 및 특징

객체 편집기

- 다양한 Drawing Tool을 이용한 객체 생성 기능
- 생성된 객체의 수정 및 이동 기능.
- 2000여 가지의 다양한 건축DB(소재와 객체)와
브라우징 기능
- 내장된 DB의 다양한 소재(Texture)를 이용한
Mapping 기능.
- 입체 효과를 위한 칼라그라데이션 및 그림자 기능.
- 밀그림으로 BMP, DXF, DWG, JPG, TIFF 파일을
사용할 수 있음.
- Drag & Drop을 통한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 Multi Copy 기능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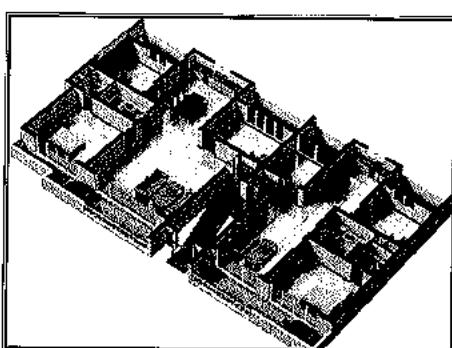
- True Color용 2D 페인팅 프로그램.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벽돌이나 타일을
제작할 수 있는 Auto Tiler 제공.
- Scanner 입력 기능 제공.

데코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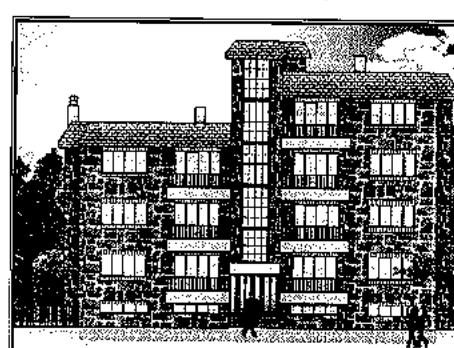
- 비트맵 파일들을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배치
- 화살표선과 설명을 붙일 수 있도록 Text 입력
기능 제공
- 다양한 출력용지에 따른 (A4-A0) 인쇄 크기 조정.
- DB:비트맵의 형태로 입면과 평면을 위한 객체와
소재를 제공

입면, 평면도 칼라링, 30분에 O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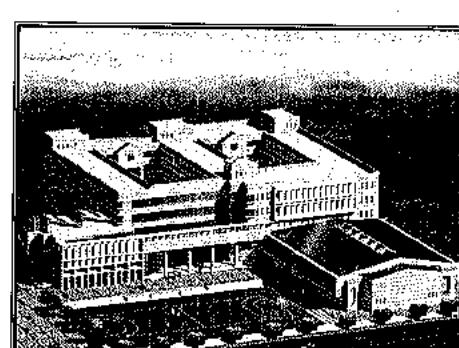
ARCI PAINT 하나로 쉽고, 빠르게 !



■ 아파트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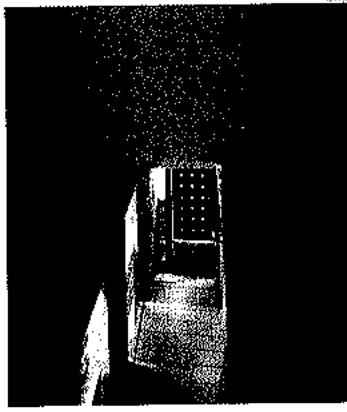


■ 건축물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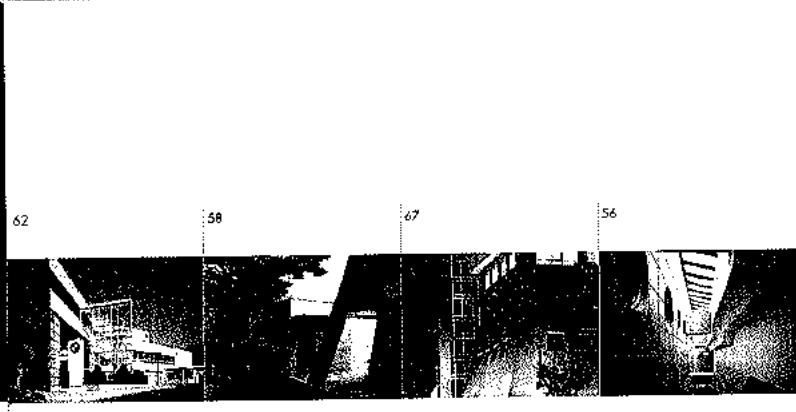


■ 투시도

[날짜] 1999. 02. 358호



하늘마당Ⅱ (방철린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위원: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장양순(위원장),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 581-5711~4
 팩스밀리: (02) 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천리안 ID: kirahead)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 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ung-Hwoi,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4
 Fax: (02) 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국회사무총장께 드리는 편지	김인철	8
작품리뷰 / 하늘마당Ⅱ	방철린	10	
내담: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건축가의 관심	이일훈	18	
비평: 가소공대(家小空大) - 작지만 넓은 집	이영수	26	
특집 / 20세기 한국건축 재조명(Ⅱ)			
20세기 한국건축의 분야별 분석			
- 건축사(建築史)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김정동	32	
- 20세기 한국건축의 근대화 도정과 한국건축가 세대론	김형우	36	
- 건강한 도시 건축, 천년 건축을 가꾸자	황기원	47	
- 19세기로 돌아가자	이창남	50	
아카시아 ①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란 무엇인가	조인숙	53
회원작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7 연구동	(주) 희림건축	56
	퇴촌오리주택	최수익	58
↗ 염리동시티빌201	손기찬	60	
	코오롱 모터스 서울 서비스센터	최관영+정동명	62
↗ 등촌동 에이스테크노 타워	오근석	64	
	태창철강사옥	박종석	66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2)	김미상	68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⑩: 춘천·강릉(하)	편집디렉터/박경립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정재국	76	
강릉 도시·건축읽기	김효남	79	
좌담: 춘천·강릉·강원도 건축의 현재와 미래		82	
리포트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Ⅲ)- 교육위원회	김지덕	95
건축미당	협회소식		106
	건축제소식		107
	현상설계		115
	해외잡지동향		121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8년 12월분)		126
	회원현황		128
	법령		129
	개시판		13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단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3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봉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9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미도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3411 · 시로구건축사회/3474-010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5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8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0-158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충청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2)983-8902 · 평택건축사회(02)684-5643 · 구리지역건축사회/(03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4121 · 안산건축사회/(034)4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67-5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35-0545 · 광명지역건축사회/(033)651-6149 · 모산건축사회/(033)375-0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1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1)254-242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축산시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843-39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96-4088
 공주시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683-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61 · 춠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51-0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6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7631-2223 · 익산시역건축사회/(063)852-5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시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시역건축사회/(050)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0)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0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353-1412 · 상주시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C571)1853-0244 · 염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0)334-8256 · 실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프항지역건축사회/(0662)244-6028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08)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26)334-6644 · 이천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립포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90)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030 · 진주지역건축사회/(0581)741-8403 · 진해시건축사회/(0553)8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6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85)9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Column

A Letter to the Secretary -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In-Cheul	8
--	--------------	---

Review / Sky Garden Ⅱ	Bang Chul-Lin	10
Interview The Architect's Concern for Proper Codes	E Il-Hoon	18
Critique Small But Broad	Lee Young-Soo	26

Special Feature / Looking Back on Korean Architecture in 20th Century(Ⅱ)		
- How i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Written?	Kim Jeong-Dong	32
- The Modern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and the Generation of its Architects	Kim Hyung-Woo	36
- A Healthy Urban Architecture, Architecture that Looks Millennium Ahead	Hwang Gi-Won	47
- A Return to the 19th Century	Lee Chang-Nam	50

ARCASIA ①		
What is ARCASIA?	Cho In-Souk	53

Work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Heerim Architecture & eng .	56
Ori Residence	Choi Soo-Ik	58
Cityville 201, Yumli-dong	Sohn Kee-Chan	60
Kolon Motors(BMW) Seoul Service Center	Choi Kwan-Young & Cheong Dong Myeong	62
Deungchon-dong Ace Techno Tower Apartment-Type Factory	O Kun-Sok	64
Taechang Steels Co.	Park Jong-Suk	66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2)	Kim Mi-Sang	68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⑩ - Chuncheon · Kangnu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Kangnung and its Modern Accommodation	Jung Jae-Kook	76
A Look of Urban Aspect & Modern Architecture in Kangnung	Kim Hyo-Nam	79
Conversati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angwondo Architecture		82

Report		
Report on the ACA-8(Ⅲ)	Kim Chi-Tok	95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6
Archi-net		107
Competition		115
Overseas Journal		121
Statistics		126
Members		128
Laws & Ordinances		129
Bulletin Board		130

국회사무총장께 드리는 편지

A Letter to the Secretary -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르카움

by Kim In-Cheul

국회의사당의 지붕모양을 바꾸려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둘을 기와지붕으로 하려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내려진 결론일 것이라 생각되어 함부로 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몇 년전 모주간지의 청탁으로 국회의사당의 건축적인 평가를 써본 경험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간지의 편집의도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을 구성하면서 의사당의 건축적인 특성도 함께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건축의 형식과 내용이 그곳의 상황에 어찌 비춰지는지 점검해보는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붕을 바꾸려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건축문화의 해를 준비하는 건축계에 던져진 공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더욱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도된 기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느낌이 산뜻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몇 년전의 느낌을 되살려 지금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는 것은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건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담당인 출입기자의 안내로 여의도 일번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의사당의 내부가 마치 미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도면으로 설계상의 특징들을 검토해보았던 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단순한 구성을 갖고 있는 형식이어서 오히려 무미건조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미로라는 표현은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미로라는 형식은 미노타우로스가 처녀공양을 받던 미노스의 미궁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달동네의 골목길처럼 생활이 만들어낸 곤란한 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오늘의 건축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가는 애써서 미로와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공을 드리기도 하지요. 기자의 느낌은 미학적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였겠지만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광장을 옆으로 돌아 의사당의 정면으로 다가가려는 저를 기자는 밀렸습니다. 그곳은 선택된 사람만 출입하는 곳이니 일반인은 뒤쪽에 마련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강의 너른 시야와 광장으로 트여있는 입지조건에서 건물의 전 후면이 따로 없겠지만 아무래도 뒤를 돌아 들어간다는 느낌은 별로 즐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패찰을 기슭에 단 뒤 들어선 내부의 첫 느낌은 에너지 절약정책 때문이었을까요 어둠이었습니다. 밖의 밝은 대낮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해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한기닥 빛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 층을 올랐을 때 어둠은 가시었지만 동서남북으로 곧게 뻗은 복도를 한바퀴 돌아보고난 뒤 그만 방향감각을 잃고 밀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로였던 것이지요. 질서정연한 획일성으로도 미로가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직선의 복도를 따라 방의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며 걸다보면 어느새 길을 잊게되는 것입니다. 미로는 치밀한 계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미로의 수수께끼는 그 원칙을 풀어내는 것으로 해결되지요. 그러나 계산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미로는 원칙이 없는 만큼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함에 변화를 더하는 것이 오히려 미궁을 해결하는 방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메인 로비에 들어서면 과연 나라의 뜻이 결정되는 곳에 걸맞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음이 보입니다. 비단과 벽과 기둥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드높은 천장입니다. 아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지붕 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의 계획에 해당되는 둘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전제주의의 상징적 형태라거나 식민지건축의 전형이라는 형태적인 관점은 덮어두더라도 로툰다홀의 천장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맑고 유쾌한 공간이 아니라 무겁고 침울한 공간이었습니다. 짙은 경험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공간은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둥글게 마무리 지으며 옆으로는 빛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빛으로 가득 차 있지요. 층층이 쌓여있는 어둠의 공간이 할 일 없는 이들의 낮잠과 담배연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며 의사당이 세워지던 당시의 상황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1975년에 완공되었으니 70년대 초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설계공모의 형식에 대한 잡음과 그에 따른 건축계내부의 반목이 눈에 뜨입니다. 저작권의 문제, 설계기간의 문제, 진행과정의 비민주적방식 등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명건축가중 일부는 사퇴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명건축가들과 일반 응모건축가로 협약팀을 만들어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여도 내노라하는 건축가들을 함께 작업시키는 것이 나라의 큰일임으로 당연하다는 명분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의사당의 설계자는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티칸성당의 벽화작업에 고호 고강, 세잔느가 함께 동원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를 상상해보면 되겠지요. 건축가란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가의 고뇌를 거치는 막연한 과정보다 회의하듯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주의 갯수가 정해지고 지붕에 둠이 얹혀졌을 것입니다. 그리되는 과정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긴 하여도 결정권자의 선택을 돋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행하는 일에 건축의 의지가 작용하지 못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은 단지 기능을 해결하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형식들조차도 덧붙여진 것일 뿐 내용과 의미가 결합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어색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런 과정으로 태어난 의사당에 이제 손질을 하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설년이 두세 번 바뀐 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와지붕이라는 문제가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둠을 발상한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적(또는 전통적) 양식으로 기와지붕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기와지붕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건축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둠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의 의견을 달리는 것과 둠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사당 전체를 보아 그에 적합한 지붕형식을 창안하는 건축적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붕 없는 솜씨를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라도 제안 중에 기와지붕의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자와는 전혀 다른 빌상에서 만들어진 경우일 것입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적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껏 국가적 사업이나 공공의 프로젝트들에서 빠짐없이 시도되었던 것이 전통 또는 전통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곳곳에 현대적인 유적들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전통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건축계에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적인 정체성의 구현을 상식적인 감각과 일반적인 논리만으로 막아온 그간의 관행 또한 책임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근대화의 역사적 과정이 왜곡된 결과로 겪고 있는 정체성의 고민은 비단 건축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알루미늄 창틀에 원자 문양을 끼우고 콘크리트건물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가 만나 융합되어 결론을 만들기까지 얼마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온갖 변수와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단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이라 말해집니다. 서양문화사의 시대구분이 건축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건축과 시대적 상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건축만이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게되었을 때 우리만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시대 이땅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건축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두의 고민입니다. 건축을 문화로 생각하자는 올해의 이슈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성급한 결론보다 모색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발표된 내용의 뒷면이 건축에 대한 불신으로 젖어있기 때문이라면 이제 그것을 거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건축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강과 여의도와 의사당이 어울려 이루어낼 미학의 완성이 바구려한다는 의사의 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여유가 이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건축가의 관심
The Architect's Concern for Proper Codes

건축사 / 방철린(인·토건축)

대담자 / 이일훈(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E Il-Hoon & Bang Chul-Lin

일시 / 99. 1. 19. 15:00

장소 / 인·토건축 소장실



대담광경(왼쪽: 방철린, 오른쪽: 이일훈)

이일훈 도시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좋은 도시는 대부분 좋은 건축이 채워지므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들이 불량 또는 관할만 하지 않은 상대의 자본논리로만 채워지는 집들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방소장님의 몇 년동안의 비슷한 프로그램들, 다가구주택들이 지나는 건강한 또는 작업의 성취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주택설계를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방철린 주택설계는 건축에 입문하고 3년이 됐을 때 친구의 의뢰로 청주에 지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다루어보고 싶었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간연구소 시절 공간연구소사옥을 마치고 주택을 다루는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도중에 중단되었고, 정립건축에서는 대형프로젝트를 13년간 다루다보니 주택같이 작은 프로젝트는 내 차지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작은 프로젝트, 특히 주택건축에 대한 욕구같은 것이 마음 구석에 있었는데 인·토건축을 차리고 나서야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늘 조건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남동 스텔」이 오랜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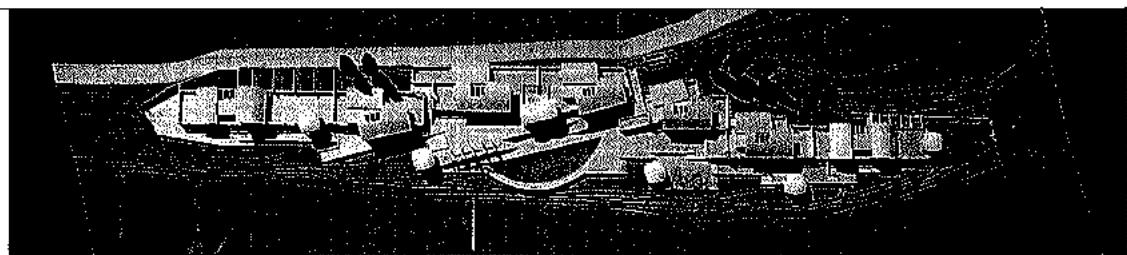
실현화 된 것입니다. 15년만의 일일 것입니다.

이일훈 그러면 20년전에 한 청주주택을 최근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방철린 친구가 그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일훈 15년정도 주택프로젝트를 접하지 않다가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느낀 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건축가로서 내용상의 괴리,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방철린 공간 연구소 시절은 중규모이하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작은 프로젝트속에서 공간 나누기라는 걸서 그리고 공간의 흐름만들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수 년간 다루면서 스케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변한 것이 없지만 대부분 공공 건축물의 공간구성 속에서 찾으려던 공간의 의미가 식구들이 사용하는 사사로운 공간으로 옮겨지게 되다보니 좀 더 가족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이웃을 느끼게 해야한다는 이중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조금은 다



탁심정이 있는 마을

른 부분이었습니다. 사용인수의 변화요소가 공간감을 조정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야기시켰으나 곧 안정되었습니다.

이일훈 루이자 구스베르티는 집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가들 대부분이 건축가적 평상을 얻는데 많이 기여한 것이 주택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꿈인 것은 정말 '꿈'이고 실제로는 자본의 논리가 집을 좌지우지 합니다. 프로그램도 철저히 자본의 종속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가구주택입니다. 방소장님의 프로젝트를 포함시켜도 좋고 안시켜도 좋습니다. 다가구주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분명히 그것들을 분석하였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방철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은 경제원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짓는 건축주들이 보통은 중하류급에 속해 있어 일생동안 번 돈으로 집을 짓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상당히 고귀한 돈이 집을 위해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재벌이 자기집을 호화롭게 짓는데 들어가는 많은 돈보다 물리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더 큰 돈같이 여겨지리라 봅니다. 그런 걸 건축가가 환경을 위하여 규모를 줄여라 늘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원리에 맞아야만 집을 지을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런 분들이 예식하게도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건축가를 찾지 않고 집장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사 현장사람 또는 자기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업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집을 짓게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장사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우선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셀본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장식적인 요소로 사람을 현혹해서 집에 들어가게는 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삶을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뻔한 결과이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이 결코 정신적으로 좋은 생활을 못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많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일훈 자본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치고 도시 또는 환경에서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철린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들여다보면 이곳의 주거환경이 취약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도로에 면할 경우 반지하 세대의 경우 채광과 통풍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선 건축가가 기본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 집에 여러세대가 살게 되니까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도시 주거에서는 늘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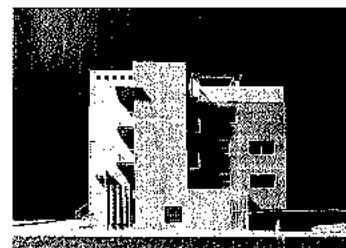
이일훈 처음에 작업을 하신 「스텝」 시리즈는 공동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각 유니트들의 독립된 어프로치나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몰두해 있다가 하늘마당시리즈에 와서는 내부로 집약화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방철린 말씀하신 것 같이 「스텝」(STEP) 시리즈가 공동성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스텝 1」을 설계할 때의 관심은 골목이되 실제 골목역할을 못하는 길, 골목이 있지만 차들로 그 골목을 다 빼앗긴 골목을 집안에 끌어들여 집안에서 각세대로 둘



채풀이 있는 사무소



옥탑에 파글라가 있는 역삼동 다가구 주택 모형

어가는 사람이 그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골목 속에 생활이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폐쇄적이지 않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시키고자 함이지요. 계단을 빠딱하게 놓으면 벽과 계단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지하에서 위까지 끌리는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사람의 시선이 오가면서 여럿이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에 세탁실을 두어 이웃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프로치도 다양하게 각각으로 하지만 말씀하신것보다 공동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방 하나하나가 벌집같은 분위기의 원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남을 인식 못하게 되는 생활이 되어버리니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생활을 위한 의도로 계단과 복도와 세탁실 등 공동시설을 배치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좀 외향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길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로에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어느정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외부와의 차단장치나 경계요소 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일훈_____공동부분, 계단이나 복도나 하는 부분이 초기의 작업에서는 상당히 외부 지향적으로 열려 있다가 요즘의 작업은 내부지향적으로 보입니다. 열려져 있는 것이 내부에서 주로 여는 방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근거가 있는 것인니까?

방철린_____집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짓고 난 후에도 여러차례 그집을 왔다갔다하면서 입주자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중에 그들이 공간적 위계가 프라이버시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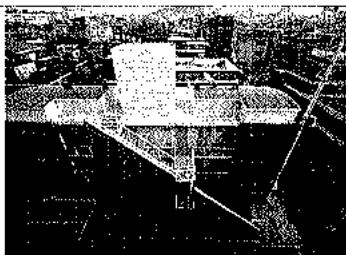
것이고, 완전히 개방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일훈_____혹시 입주자들의 정서나 집주인의 정서가 초기의 개방적인 부분을 거부하거나 못마땅하게 느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철린_____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건축주도 입주자들도 전혀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단지 「스텝」을 지어놓고 그것이 완전히 개방된 집이기 때문에 밤에 학생들이 계단뒤에 모여 담배피우는 바람에 담배꽁초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폐쇄적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일훈_____입주자들의 사용경험을 분석하고 반영한 셈이군요. 현대건축이 비단 주거용도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도시에 들어서는 건축들이 많은 용적과 건축면적의 증가가 도시건축에서 필연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또는 건축의 내재적인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과 만나는 옥상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관찰이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의 가능성을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다가 결국 건축가 방 철린이 하늘을 만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소장님께서 갖고 있는 하늘에 갖는 관심은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하늘마당에 접근이 됐는지 그 동기라고 할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니까?

방철린_____우리 인간은 삶을 영위하면서 오감을 통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권리와 갖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을 보고 숨을 쉬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다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기본적 권리와 관계가 있는 하늘·태양·신선한 공기에 대한 고



연남동 스텝의 계단과 몸체의 관계



연남동 스텝의 계단



이둔동 스텝 외벽

마음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나 공기정화장치를 통한 현대생활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무위(無爲)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즉 인위(人爲)적으로 만들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피폐되어가는 인간의 정서, 잊혀져가는 기본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하늘을 되찾아 주자는 개념에서의 출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상은 자동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부지의 3면은 도시건축으로 빼빼히 들어차 있다보니 건축속에서 자연으로서의 상징인 하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건축이 하늘과 접한 최상부라 보여지기 때문이며, 대부분 경제 논리에서도 이곳은 아직 챙겨지지 않고 있으니 이곳에 관심을 갖고 건축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전통건축에 있는 마당개념의 도입입니다. 마당은 벽체와 바닥이 있고 하늘로 뚫려져 있는 아주 한정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들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정원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마당의 개념을 현대건축과 접목시키자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건축주의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늘마당Ⅰ」이 완성되어 이사를 하고 얼마 안되어 눈이 왔는데 눈이 오는 바로 옆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건축주의 소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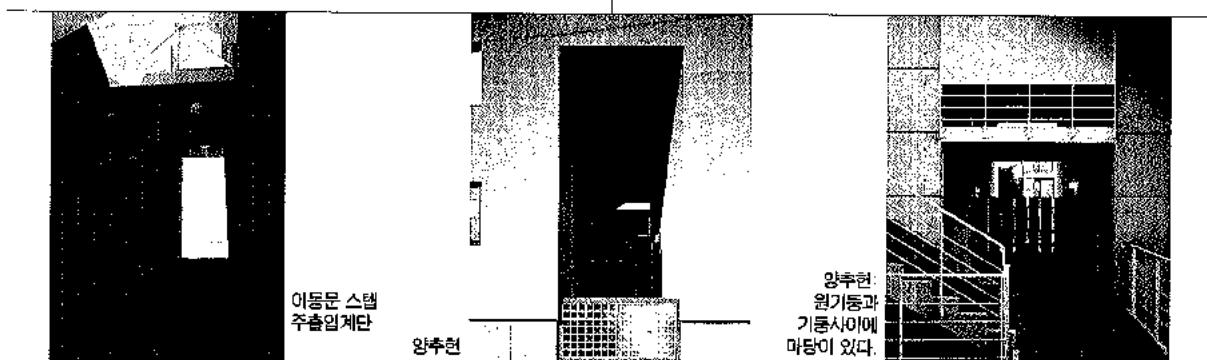
이일훈 소위 건축작품하면 대부분 형태를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늘마당에 쌓인 눈을 보고 집주인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생활의 실제적인 풍요성을 높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도 그런 삶의 풍요를 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가 실제로 사는 사람수로 보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마당도 주인세대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경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출연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의 놀이공간, 혹은 이웃과의 대화공간 등 작은 숨구멍같은 공간이 최소한 한층에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철린 좋은 지적입니다. 「스텝」에서 는 그 점에 대해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누리고 지하까지 모두 누리는, 선큰가든부터 지상까지 모두 통하게… 장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오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 누리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마당」을 하면서 3층 이상에서는 주인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건축주는 다가구 주택을 세워 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지상으로 올리간다는 생각 때문에 못내 아쉬워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나마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층에 마당을, 그리고 1층에도 작은 마당을 만들어 장독대로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건축최상부인 옥탑층은 건축주의 귀속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주인이 개인주택에서 살지 않는 아쉬움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거인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하마당을 만들어서 지하사람들도 마당을 밟고 햇빛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중간층에서는 그런 여유가 나질 않아 좀 아쉽게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마당Ⅱ」에서는 계단옆에 조그마한 발코니를 만들었는데 그 곳에 재털이가 놓여있는 것을 보니 약간 안심이 됩니다만 「하늘마당」을 전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일훈 특히 다가구주택은 입주자들의 폐단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소장님이 작업한 것을 보면 내부의 가변성, 이것이 전부 콘크리트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대응력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철린 「스텝」을 설계했을 때와의 방의 면적과 하늘마당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텝」인 경우는 원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유니트가 크지 않아서 나누고 장치를 하는 것은 플렉시빌리티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학생이 들어올 수도 샐러리 맨이 들어올 수 있다는 -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로도 쓸 수도 있고 거실과 침실을 나누어서 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 있는 평면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비려두는 것 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늘마당Ⅰ,Ⅱ」의 경우는 대부분 면적이 「스텝」보다는 훨씬 커서 막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그 면적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일훈 저는 60년대에 주택공급률을 증가시킨 공로가 짐작사에게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질적인 문제에서는 비판을 받겠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공헌한 바가 큽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재화 가치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작업을 한 결과들이 짐작사들에게 많이 보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급을 시키려면 권할만한 규범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소장님의 생각하는 다가구주택의 권할 만한 규범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방철린 다가구 주택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집안에 살도록 지어지는 집이므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면 좋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고 지리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촬영의

기교를 전혀 기하지 않고 사실표현만 중심으로 만든 좋은 영화라 보여집니다. 지금히 평범한 삶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삶속에서의 디테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려는 노력도 그려하지만 지루해 보일 스토리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자루함이 없이 전개되어가는 이유가 생활의 무연성과 의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홍상수 감독의 타월한 기법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다가구 주택건축도 그 영화와 공통점이 있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기교가 넘치고 인위적 냄새로 가득차 있는 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왜곡없이 담을 수 있는 집, 그러면서도 생활속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빠트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집, 그런 집이면 다가구 주택으로서의 규범속에 속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마다 대지의 조건이 모두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신만 같다면 늘 다른 방법으로 규범의 표현이 이루어지겠지요. 「하늘마당Ⅰ과 Ⅱ」가 그렇습니다. 기본개념은 같으나 대지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담는 피상적인 공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권할만한 규범이라면 그것을 이미지어놓은 평면의 형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일훈 자연조건이든 인위환경이든 잠재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방철린 다가구주택 이용자는 보통 서민들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폐해는 최소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가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구체화해 봄으로써 규범적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건축가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 보여집니다.

이일훈 그동안 작업한 것을 보면 재료가 몇가지로 한정되는 듯 합니다. 내부는 평이한 재료로 세련되게 구사하는 것은 제가 특히 확인한 바인데, 외부의 미감



하늘마당Ⅰ



하늘마당Ⅰ 1층 복도:
나무가 있는 마당과 지하충수
위한 광경이 보인다.



하늘마당Ⅰ

재료를 보면 구조재로 주로 콘크리트를 쓰고 외벽단열시스템 또는 약간의 철물들이 쓰입니다. 콘크리트를 주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철린 콘크리트를 쓰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콘크리트가 인간이 만든 인공재료중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컬러라든지 텍스추어 등이 자연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재료가 강력한 구조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의 진실성이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거짓없이 건축을 표현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노출콘크리트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조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보니까 온도차가 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열재의 사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외부단열재를 사용하고 그것 자체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집만들기가 아닌가하여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는 사실 조형이나 재료의 쓰임새보다는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공간만들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거짓이 없다면 어떤 재료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표현을 하는데 적합한 재료라면 다른 재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일훈 형태에 표현된 디자인의 방법을 보면 재료의 솔직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재료가 솔직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은(재료의 성질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일치적으로 건축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술성의 진보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텍토닉-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테크놀로지의 상향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소장님의 하늘마당을 보면 재료가 철저히 장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철골이 이유도 없이 들어가 있다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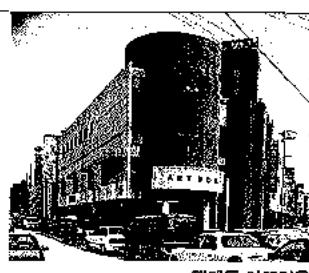
어가 있다든지…

방철린 재료가 철저히 장식으로 쓰이는 것은 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계시부터 구조재로 디자인되어 쓰인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하늘마당Ⅰ」에서는 원래 콘크리트로 설계되었던 부분인데 시공의 성공률을 감안하여 철골로 시공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식성으로 쓰여진 것 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구조재의 장식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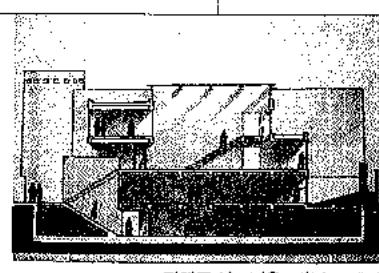
이일훈 짧은 건축가 김종일은 하늘과 만나는 옥상을 제5 파사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꼽겠습니다. 마침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것이 하늘이니까 제5 파사드와 하늘을 연결해서 보면 최상층의 창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철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하였지만 최상층부는 건축이 하늘과 만나는 곳으로 사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늘 버려지기가 일쑤이고 별로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지의 바닥은 좁고 얇은 벽으로 막힌 도시 공간에서 하늘과 만나는 이곳은 설계때마다 늘 버리기 아까운 부분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천창도 만들고(하늘마당Ⅰ) 마루를 깔아(하늘마당Ⅱ) 밤하늘의 별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공개인하는 작품이지만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페골라도 만들어보고 합니다만 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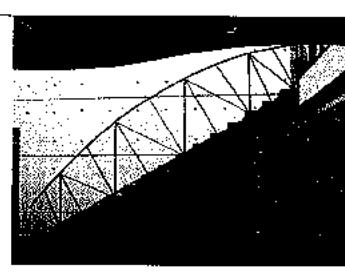
이일훈 「하늘마당Ⅱ」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공동게시판이라든지 집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애초부터 설계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정말 유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주인 혼자 관리하



평택동 아뜨리움



평택동 아뜨리움: 단면 스케치



평택동 아뜨리움: 내부 계단

는 것보다 입주자들 모두가 깨끗하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을 드러내는 시민사회와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소장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는 방식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까? 굳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들이 공동체로써 사는 방식에 대해 건축가로서의 생각…

방철린_____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회적동물입니다. 사회적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그렇거니와 말로써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동물이라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단절된 벽을 허물고 사회적동물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하늘마당Ⅰ이나Ⅱ」에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건축주가 옆집보다 좋은 집을 갖고 있다는 긍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잘 보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입주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동체 환경은 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건축가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이일훈_____ 저는 그 대목에서 하나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게시판까지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형태에 와서 왜 벽돌이 튀는 것을 유리로 막고 다른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막기위해 체인을 설치하였는지? 결국은 건축가의 임재적 베풁인 형태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까?

방철린_____ 그것은 형태의지가 아닙니다. 벽체의 빗물턱이 높고 낮고가 형태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지하층으로 벽돌이 튀어들어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반지하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빛과 공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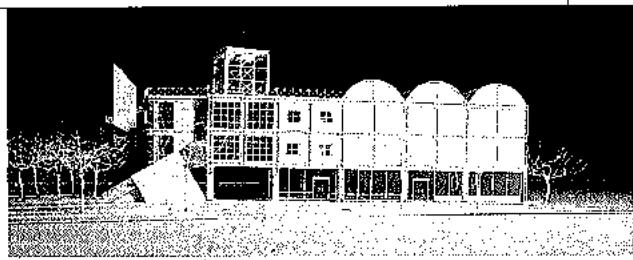
가 벽체의 빗물턱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일훈_____ 처음부터 유리로 하지 그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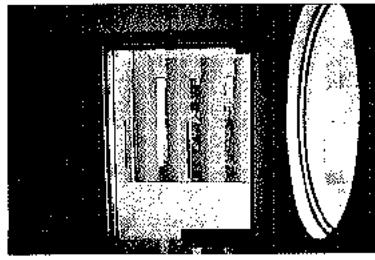
방철린_____ 다가구 주택에서 유리가 메인테넌스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을 쓴 것도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인테넌스도 생각을 해야되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하고 외부공기도 많이 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이지요. 지난 여름 유난히도 비가 오랫동안 오는 바람에 입주자의 불편호소에 건축주가 막는 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이곳을 유리로 뒤에 시공한 것입니다. 주차장 체인문제는 시공자에게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일훈_____ 모든 것이 다 건축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세상에는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건축가들이 많이 합니다. 방소장님의 작업은 내적 성취도면에서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집장사들보다도 약 10퍼센트 정도 상향된 공사비로 굉장히 노력했고, 아마 다가구주택의 디자인 비용을 아무리 비싸게 받았다고 해도 적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스태프들을 투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노력에는 굉장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자체에 갖는 관심은 굉장히 성취된 빈면에 그 집의 앞과 뒤 즉 주변과의 관계성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맥락이 특별히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는 흔적도 안보입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컨텍스트를 무시하겠다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방철린_____ 강남에 있는 주거지라는 것 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막혔느냐 뚫렸느냐는 정도의



서울보울스와 외부계단



한동대 기숙사 10호관

개념으로만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텍스트로 받아들여기에 주변이 너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과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석한 부분이지요.

이일훈_____작업량으로 봐서 스태프들이 현장을 매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흐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철린_____다른 것보다도 짐짓는 사람이 결국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벌기보다도 시공자 스스로 시공을 잘 함으로써 좋은 집을 만들겠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짓게 하는 것 이 첫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계자의 관심입니다. 매일 매일 시공상황을 체크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하며 모든 미감재를 스스로 골라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속에 조화로운 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빼지 않는 것 - 이것이 두 번째 조건아닙니까?

이일훈_____그 동안 대화를 통해서 방소장님이 줄기차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건축가의 의식이 매우 유쾌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많은 잠재적 고객에게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볼수할 다른 화두를 찾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늘마당의 연속적 발전도 좋고 제3의 관심사여도 좋고…

방철린_____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위(無爲)에 대한 관심을 금방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이 너무 인위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하다보니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생각이 대두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도 인위적환경보다 무위적환경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전통건축은 다분히 무위적개념으로 지어져왔다고 봅니다. 자연을 보고 집을 앉히는 관점에서부터 집안의 모든 공간구조와 디테일이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의 최상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을 계속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의 다가구주택 프로젝트를 하면서 늘 불만족스럽게 끝나버린 일부 분에 대한 연구를 깊숙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매력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훈_____스스로의 작업이 유형화되어 서 또는 권한만한 상태로 받아들여져서 많은 건축가들이 받아들이고 등장하기를 바라시겠죠? 극단적인 예로 징장사들이 건축가 방철린에게 설계는 안맡기고 지금 지어진 것을 그대로 갖다가 비슷하게 따라해서 좋게 만든다면 건축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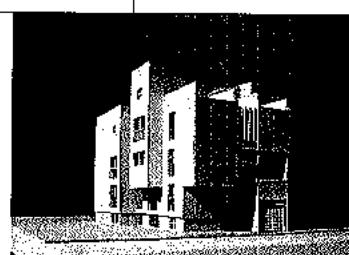
방철린_____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것이 비단 제 생각을 따라준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인간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이일훈_____IMF 때문에 힘드실텐데 작은 작업에 진력하는 것을 볼 때 반갑고, 새해 덕담 한 마디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이런 개념으로 공동주택들이 속속 디자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을 방소장님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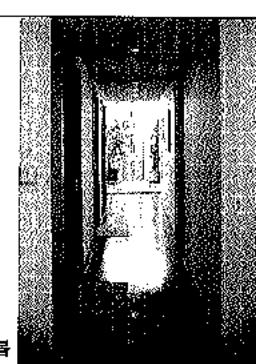
방철린_____감사합니다.



한동대 기숙사 10호관 옥팀총 피골라



하늘마당 Ⅱ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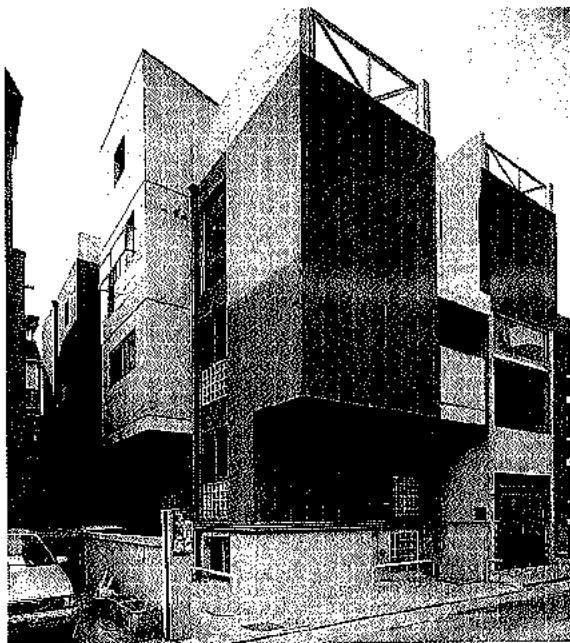


하늘마당 Ⅱ : 거실에서 하늘마당을 봅

가소공대(家小空大) - 작지만 넓은 집

Small But Broad

이영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Young-Soo



파거 소필지의 주택들이 헐리고 집장사들의 돈벌이에 크게 기여한 다가구주택이 언제부턴가 우후죽순으로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우리 주변에 매우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도심속의 평범한 건물로 인지되고, 건축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집장사들의 그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80평 정도에 건축면적 40~50평 내외, 연면적 200평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다른 계획에 비해 설계 이외의 세세한 부분까지 쟁여야 하는 다가구주택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조금이라도 넓게 짓다 보니 민원소지도 많고 법적 규제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비와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 및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건축가의 창작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예 건축주는 건축가의 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건축가는 자기들 영역 밖의 일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다.

대부분은 아니겠으나 많은 건축주는 땅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공사비를 대고 분양해서 이익을 행기는 식의 소위 집장사들의 다가구주택은 계단실의 세로로 긴창, 적벽돌, 불풀없는 외부계단, 빛의 절대 부족, 부실한 시공, 삶의 방식을 외면한 공간구성 등으로 대변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주택 유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작품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또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은 과연 없었을까?

건축가 방철린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언어를 가지고 일련의 다가구주택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도시와 주거를 잇는 중간영역으로서의 건축적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의 해결책으로 “가소공대(家小空大)” 즉 작지만 넓은 공간을 가진 집, 따라서 많은 건축

적 이야기가 있는 집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마당 Ⅱ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제안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건축가 방철린과 다가구 주택

우리에게 다가구주택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건축가 방철린의 다가구 주택의 연작을 보면 우선 Step 시리즈를 시작으로 최근의 하늘마당 시리즈를 전개하면서 그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나아가서는 건축전반에 대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빛, 바람, 마당, 길 등의 어휘들은 방철린의 다가구주택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주요 건축언어들이다. 그는 전통공간에서 보여지는 건축적 장치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평범한 도심속에 소품으로써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행위를 제공하고 한지붕 여려 세대를 묶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작가의 말처럼 “좋은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건축이 인간적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 하듯이 그의 작품에서는 건축의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요구조건에 맞는 주택평면을 제외하면 결국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나 계단, 그리고 발코니 정도의 구성요소만이 건축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용부분이 건축가의 창의적인 사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방철린은 다가구주택에서 건축가가 고심해야 할 필수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 즉 열악한 도시 콘텍스트를 감안할 때 각 주거로의 진입체계와 입체화된 계단에서 이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장치로써 해석하고 있다.

하늘마당Ⅱ의 건축이야기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늘마당이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어느 골목에 들어서면 금새 눈에 띠는 건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사한 대문, 계단과 복도공간의 식별성과 많은 빛, 바람, 파사드에서 보여지는 다른 다가구 주택과의 차별성, 깨끗한 내부공간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배려되어 있는 디테일과 장치들은 건축가의 섬세함과 건축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주변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다른 다가구 주택에 비해 전세들고 싶고, 나 이집에 살아! 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는 이들에게 삶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저게 다가구 주택이야?

공교롭게도 방철린의 하늘마당Ⅱ는 전면도로가 북쪽으로 면해 있어 일조권이 해결되어 네모 반듯한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전면부에 많은 개구부를 두는 대신에 면의 분절을 통해 다가구주택이라는 맛을 느끼기보다는 갤러리 혹은 스튜디오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아마 이러한 점이 이 주택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렇게 지으려면 돈 많이 들었겠지?

하늘마당Ⅱ는 추가 공사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당 약 235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한다. 일반 다가구주택에 비해 조금 더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부 외부 벽면의 미감부분이 몇 개월 안된 것 치고는 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한 주택으로서 건축가의 열정과 시공자의 성실함의 흔적이 보인다.

家小空大(작지만 넓은 집)

하늘마당은 도심지의 다가구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몇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밝은 빛이 쏟아지는 거리와의 연속된 길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적 산책로로서의 외부로 노출된 계단과 복도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이 주택에서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공간은 좁은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외부공간의 맛을 더하고 있음은 물론 충분히 다양하게 계획되어 사는 이들에게 공간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주택들이 전면부를 할애해 주차장을 배치한 반면, 하늘마당은 동서측면에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측면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으로 인하여 공간의 여유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서 고민거리의 하나인 지하

층 거주자의 환경적 처리로 드라이 에어리어이지만 지하 외벽을 조금 후퇴시켜 주거 내부로의 빛의 유입과 함께 통풍,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된 선큰공간은 건강한 주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입면에서 4개의 원형기둥으로 인하여 어떤 공간이 있을까 궁금증을 더해 주는 부분으로, 작가가 명명한 “하늘마당”이라는 제목처럼 사는 사람에게 4계절에 따른 자연과의 교감을 즐 수 있는 3층 집주인의 테라스인 하늘이 보이는 쌈지마당, 그리고 마루를 깔아 평상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옥상마당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공간적 장치들은 다른 일련의 다가구주택 시리즈에서도 한결같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하늘마당Ⅱ 역시 작지만 넓은 집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배려된 건축가의 Know-How라고 볼 수 있다.

괜찮은 입면과 매스

점, 선, 면이라고 하는 구성의 기본적인 3가지 요소를 파사드에서 적절히 혼합하여 꽉 짜여진 입면구성을 하고 있다. 다른 다가구주택에서 볼 수 없는 근사한 대문에서부터 서측 주차공간에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외부와의 대화를 유도하는 애교스럽게 돌출되어 있는 조그마한 발코니, 전면부와 후면부 매스의 자연스로운 결합을 도와주고 있는 노출된 복도난간 처리, 그리고 보이드와 솔리드, 밝고 어두움의 대비적인 형태구성과 선적이면서 대, 중, 소의 면적구성으로 데스틸적이고 꼬르枢지에적인 표피의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의지대로 걸치례적이고 가식적이기보다 보다 순수하고 진실된 표현의 수단으로 그리 흥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와 튀지만 괜찮은 보라색 외부 아이소코트 마감 등 전체 형태구성에서 약간은 장식적인 면이 느껴지고, 조금은 단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지만 다가구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몇가지 남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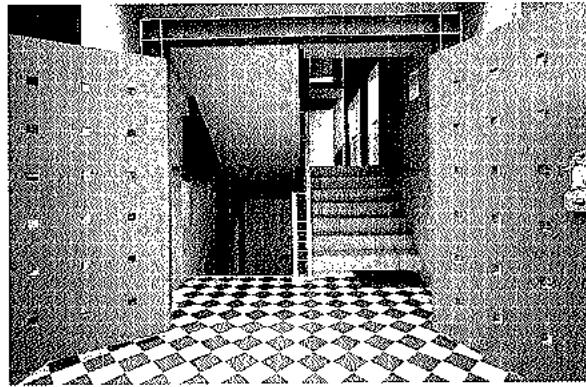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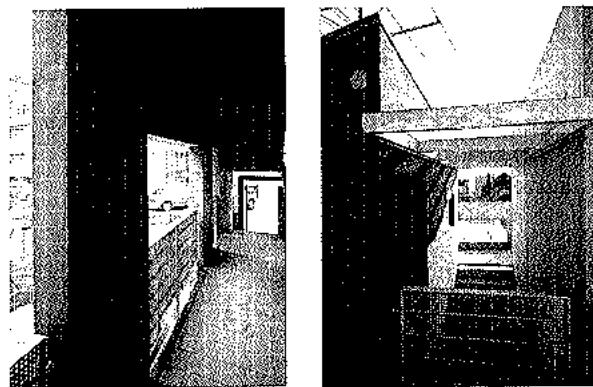
하늘마당Ⅱ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건축가의 손길이 달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선 준공 후에 덧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웃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덧붙여진 동측면의 덧창과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의 맛을 느끼게 하는 대문과 우편함, 사공자의 뒷이기는 하지만 건축가의 감리에 대한 열의를 엿볼 수 있는 공사비에 비해 깨끗하게 설치된 철제 계단난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제줄걸이, 그리고 동측 지하층 발코니에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오픈시킨 조그마한 공간에 노난방지를 위한 철제가로 등 건축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다. 또한 사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후에 설치된 것으로 준공후에도 건축가의 애프터 서비스정신이 깃들어 있는 서측 주차장에 위치한 지하층 복도에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이점에 대해서 작가는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유리로 처리된 난간 등은 건축가의 욕심도 부리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사는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된 건축가의 치밀한 사고가 엿보이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집 같았으면 외부로 노출된 계단과 복도 그리고 테라스로 인해 빗물이 들이치거나 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막자는 제안이 임대자들이나 건축주의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았으나 건축가의 의지를 받아들여 임대자들에게 손도 못되게 하는 건축주의 배려 또한 이 건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비싸지만 세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적어 본 글은 건축가 방철린과 함께 대담자인 이일훈과의 몇시간의 답사에서 느껴졌던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다. 비록 이 글이 작품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야 옳을 듯 하나 그렇지 못했던 것은 하늘마당Ⅱ는 나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게 했고, 속된 말로 남지도 않은 장사(?)에서 건축가 영역 밖으로 여겨졌던 다가구주택문화에 건축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몬갖 정열을 다 기울인 건축가에게 용기와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앞으로 IMF를 벗어나 건축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작지만 넓은 집인 하늘마당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Single family houses, as they age with time, are torn down, and replaced by multi-unit housings that are economically more lucrative. Before they are recognized as a major trend of housings, they have already occupied vast areas of our surroundings. They are intimate, yet we do not acknowledge them as a work of architecture. Instead, they are usually overlooked as products of housing business, merely concerned with profitability.

The usual size of a multi-unit housing is that whose building area is 120 to 150m², total floor area over 600m², sited on a land with the area near 250m². Compared with buildings of other architectural programs with similar scale, it requires more detailed designs that consume more time. Immoderate requests of the client for larger building area often results in violation of building codes, and always end up adding to the loss in environmental qualities. Comparatively unprofitable, with constraints from the client's demands as well as from codes, the architect, in the design of a multi-unit housing, neither wished to nor was asked to do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Consequently, most, though not all, cases of these housings are built on a land provided by the client, with capital invested by the contractor, where the usual results are the standardization of forms and materials, insufficient lighting, poor construction, and space composition indifferent to the people's life styles. We could ask ourselves how many examples can we find that investigated and modified one of the most popular housing type of our age. Isn't there any alternative schemes to these deteriorating environment?

Architect Bang Chul-lin, with a series of multi-unit housing works executed with his own architectural languages, provides an answer. Reflecting today's reality, he asserts the necessity for an architectural element that mediates the city and the house. This problem is dealt with housings of small but broad areas, which enclose rich architectural narratives. These suggestions are found in Sky Garden II, a recent housing project by Bang.

Architect Bang and the Multi-Unit Housings

The housing works of Bang, which never fail to provide the viewer with an image of novelty, were initiated with the Step series and now produced Sky Garden II. These group of works presents us with a chance to look into his insight on housings, and, in a broader view, on architecture itself.

Most of all, elements of light, wind, garden and path are continuing themes of his housings, which are the modern translation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s characteristics. Within the banality of our urban surroundings, they provide visual joy and catalyze reciprocal action among the units' inhabitants. The purity of architecture found in his works is also confirmed in the words of the architect: "To build good architecture is to make it more humane."

Since the plan of each unit is set by the client's demands, the role of the architect in the design of a multi-unit housing is normally confined to the planning of public spaces such as halls, stairways and balconies. These are the area where the architect can realize his full potential of creative imaginations, which fact that Bang understands too well. Considering the poor condition of its context, the entrances and stairways are arranged in a way which adapts to communal life.

The Architectural Narrative of Sky Garden II

"How I envy the tenants of that housing!"

Walking along the backstreets of Chamsil-dong, Songpa-gu, where the Sky Garden II is located, one is encountered by a building that stands out of its surroundings. Well designed gate, the characterization of stairways and corridors, the rich inclusion of light and wind, its novel facade and neat indoor details all suggest the passion and subtle caring of the architect. Within a row of other multi-unit housings which look like prefabricated works in comparison, Sky Garden II is sure to present its residents with a sense of pride in living in such exceptional environment.

"Is that really a multi-unit housing?"

As the approaching road of Sky Garden II is placed on its north, the lighting condition of the housing is remarkably good, which enabled the work

to be in a rather geometrical form. Its surface is with many openings and articulation, whose effect is the impression of a gallery or studio rather than a housing. This, however,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That housing must have cost a lot"

Sky Garden II seems like an expensive work, but according to the architect, the construction budget for the housing was \$550 per square meters. It is slightly over the usual, but its outcome is impressive. With the exception of poor exterior finishings, the overall construction alludes to the passion of the architect and the constructors' persistence for perfection.

"Small but broad"

Sky Garden II has some lavish attractions not easily found in most urban housings: Upon the entry, one encounters a path continuous from the approaching road, blessed with bright natural lights, that forms, along with the exterior stairway and the hallway, the architectural promenade. This most astonishing space of this housing, though not large in size, enhances the quality of outdoor space and induces a variety of spatial features. While other similar housings spare the front yard for parking spaces, here they are reserved in the east and west sides, which enables a clearance of space through visual opening.

One of the typical problems in multi-unit housings concerns the environment of the basement floor unit. The often adopted solution is the use of dry area, but here it is dealt with the introduction of sunken space, where the retreated exterior wall, while serving demands for privacy, allows room for good lighting and ventilation in the underground space. The 4 columns on the elevation derive the curiosity for the next spatial sequence, and the terrace of the third floor, what the architect has named "sky garden," enables the users to experience the diversity of the changing seasons. In the roof garden, the traditional space of Maru is recreated, presenting an atmosphere of Pyungsang. These devices, already used in previous multi-unit housing projects, are now Bang's unique method to provide a sense of broadness to the confined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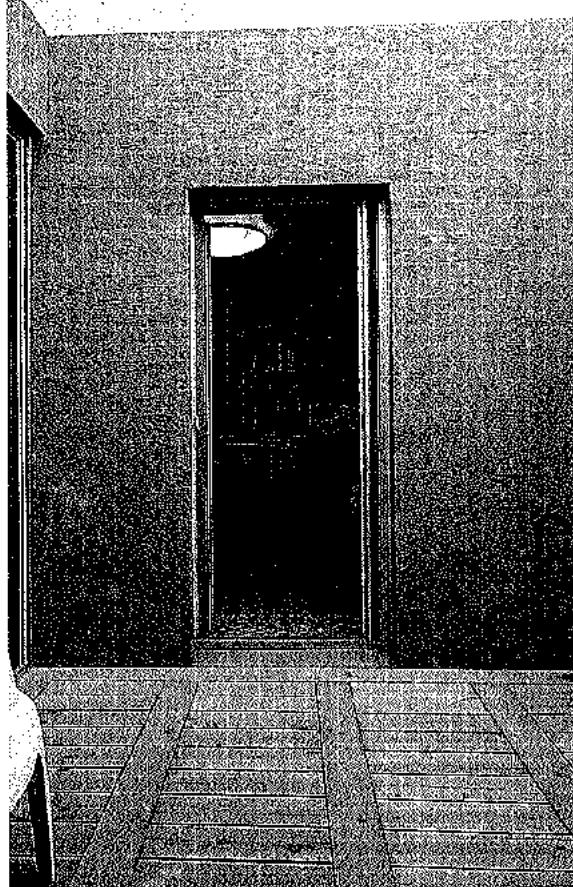
"Elevation and volume composition well-done"

The facade is a tight and well-arranged

combination of the three basic elements of composition - i.e. point, line and plane. The impressive front gate is followed by a small, projected balcony near the parking area of the west, that is intended for casual meetings between residents. The exposed railing of the hallway adds to the smooth connection of frontal and rear volumes, while the contrasting use of void and solid, light and darkness, along with the linear and planar compositions, refer to the facades from works of De Stijl group and Le Corbusier. The use of exposed concrete seems pure and truthful in expression, as the architect might have intended. The application of purple isocort(?), however, is rather ornamental, but as a whole, the work succeeds in suggesting an alternative image of the multi-unit housing.

A Few More Words

Through a closer inspection, one can recognize the subtle attention of the architect into the



details of the housing. The window barrier on the east, which seems to be add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was to promote visual privacy in relation to the neighbors. The gate and individual mailboxes help to enhance the atmosphere of a private house, and the tidy finishing of the steel railway of the staircase hints that the architect's concern was even extended in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 many other parts of the building, such as the steel cables that protect the parking area or the glass fences of the south that prevents the inflow of rain into the basement hallway, we find endless proof of the architect's will for flawlessness, to care about the comfortable use of the inhabitants, during and after the construction, not to men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 stairways and hallways exposed to the outdoors or the terrace spaces, as they are often subject to the inflow of rain and dust, are, in other usual cases, later covered with windows. Here, however, the client pays due respect to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and prohibits the tenant's modification of the building. This kind of sympathy on the side of the client helps to keep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housing afterward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hy so many people wish to move in to this not-so-inexpensive home.

This criticism was written after the visit to the housing with the architect and his interviewer. The purpose of such writing is to provide the readers with a chance to interpret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object. But as this work played a major role to change my preconceptions on multi-unit housings, and impressed me through all the cared details that transcended economic concerns, it was hard to maintain,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a neutral position. Due to the financial crisis of this Nation's economy, the field of architecture is also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May the housing business bloom again, when we will hopefully be gifted with more works in the line of these Sky Gardens.

건축사(建築史)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How i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Written?

김정동 /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Kim Jeong-Dong

개항 이후 들어 온 건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신건축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양식이 유입된 것이다. 이 신건축 양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도입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흘러들어 온 것이었다. 이는 체제와 생활·기능 등이 서구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전통건축에 머물러 있던 우리 건축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서구의 건축을 받아들인 중국·일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일본 역시 초기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서양의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빨리 서구건축을 일본화시켰다. 소위 신문명·신문화 수용의 태도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신건축 유입 초기시대인 19세기 말,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이미 들어 와 있던 서구식 건축물을 답습하고 있었다. 부산, 인천 등 개항장의 공관·상업 건축물들이 그 예였다. 또한 유럽의 가톨릭 신부를 통해 중국에 들어 와 있던 서양식 건축물을 받아 들여 성당, 주교관 등의 종교건축물을 세워 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그 경험이 있던 건축가와 시공자가 와서 그 일들을 했다.

일본은 부산 개항 이후 1879년 왜관 자리에 영사관을 세웠다. 이후 1880년대 초 원산을 위시로 해서 각 개항장에 소위 의양풍(擬洋風) 목조 2층 공관 건물들을 세웠다. 서양의 돌과 벽돌을 사용한 것이 아닌 목조에 의한 화양(和洋) 절충식 건축물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본 역시 서양건축을 직접 설계해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건설업자는 없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건축기가 직접 일본에 와 신건축을 세워 주었고 건축교육도 시켜 주었다. 이후 그들로부터 배운 일본인 건축기가 우리 나라에 들어 와 화양풍(和洋風)의 건축물을 세운 것이다. 공관시설, 군사설, 철도시설 등이 그것이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일본은 곧 야욕을 들어 내 우리 땅을 자신들의 병참기지화 시키려 했다.

청일전쟁(1894~1895)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러일전쟁(1904~1905) 준비도 이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전쟁 종 건축물과 건축가는 그 도구로 인식되었다.

우리의 건축 시설도 초기에는 비교적 서구 건축을 직접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가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건너와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세워 나갔다. 외국인 건축가는 그들 자국의 건축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종교관련 시설, 학교, 병원, 오피스, 주택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양건축(異様建築)'이라 부르고 있다. 그들이 가져온 설계도면, 공법, 재료 등을 우리와는 달라서 세워지는 것과 사용하는 것 모두가 놀라운 것이었다.

1880년대 이후 신·구 기독교의 유입에 따라 배재학당 당시(堂舍)와 기숙사(1887), 천주교 명동 주교관(1889), 약현성당(1892), 명동성당(1898), 정동교회(1898) 등의 르네상스풍, 고딕풍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로써 서울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건축을 사이에 들어서는 서양식 건축물은 1900년대 즉 20세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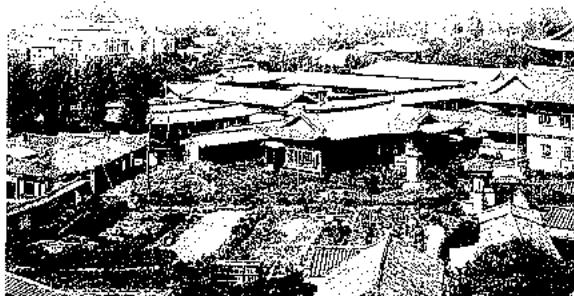
여러 나라와 외교가 수립되며 각국 건축에 맞춘 공관들도 들어서기 시작했다. 영국(1892), 러시아(1895), 프랑스(1896), 독일(1901), 벨기에 영사관(1905) 등이 그것이다. 르네상스식 벽돌 2층 건물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식의 건물은 서울의 기존 도시질서를 바꾸어 놓는 것 이었다. 이즈음 한옥과 양옥 절충의 점포가 서울의 북촌 종로 등에 생겨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이것은 우리 자생력에 의한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 자생적 건축가가 탄생했다. 그는 서울 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심의식(沈宜碩, 1854-1924)이었다. 그의 당



배재학당 기숙사, 2층 목조 건축물 (자료: 배재 80년사)



오른쪽이 프랑스 공사관, 서대문 성벽과 어울린다.
1903년의 풍경이라 생각된다.(자료: 關野貞)



덕수궁 내·외부에 이양관이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궁 밖에 세워진 의정부 청사, 오른쪽이 궁궐 내에 세워진 양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시 활동은 유럽, 미국 건축가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독립문(1897)을 세운 것은 매우 횡기적인 일이었다. 그는 서양 건축물을 눈썰미로 배운 것이었다.

야관파천(俄館播遷) 중 고종은 환궁을 위하여 경운궁(덕수궁)을 중건하게 되면서 그 구내에 몇 개의 서양 건축물을 세워 나갔다. 그 중 현존하는 건물이 1900년에 세워진 중명전과 정관헌이다.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로 현존하는 석조 전(1909)은 통감부 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우리는 일제와 을사 보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식민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외교권이 박탈당하며 반 식민지화 되자 건축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왜식화 되어 갔다.

우리 전통 건축은 1894년 갑오경장 시 최초의 근대적 건축조직인 군국기무처 공무아문(工務衙門)의 건축국(建築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통감부 시대가 들어서는 1906년까지는 궁내부 영선사(營繕司)로 역할했다. 1911년에는 이왕직(李王職) 소속으로 바뀌어 명맥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조직은 새로 들어서는 신건축을 세우는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제는 택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를 두고 새로운 관이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 많은 일본인 건축가를 침투시켰다. 건축의 식민화 기점은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바 없었던 위용을 갖춘 근대건축물들이 서울을 비롯한 개항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의정부 청사(1907), 공업전습소 본관(1907), 대한의원 본관(1908) 등이었다. 건축소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존치되었고 이어 조선총독부 기관으로 바뀌었다.

일제하의 건축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우리 땅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자 일제의 건축물은 마음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일제에 예속되며 우리는 일본 신건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16년에서 1926년까지 10년간 걸쳐 세워진 총독부 건물은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한국은행(1912), 서울역(1925), 그리고 서울시청(1926)도 그 일환이었다. 이 때까지도 우리는 새 양식의 건축을 스스로 실현할 건축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는 건축 식민화를 본격화하며 1916년 경성고공을 설립, 우리 건축가를 일부 양성했다. 이때까지는 1907년 개소한 공업전습소가 졸업생을 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영향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1922년 일제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건너온 건축가와 고공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했다. 이것이 '조선건축회'였다. 창립 회원 122명 중 우리 나라 건축가는 김용순(金應純)한 사람뿐이었고, 이듬해에 10명이 가입하는데 대부분은 1919년 한국인 첫 졸업생을 낸 경성고공 출신들이었다. 조선건축회에서 낸 기관지가 「조선과 건축」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이 큰 건축 저널이었다.

1920년대에는 모더니즘 양식, 즉 근대주의의 건물이 개별적인 형태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일제하 교육을 받은 우리 건축가들은 그들의 식민화 건축 활동에 도구로 존재했다. 우리의 건축은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우리의 건축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고공 출신들이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건축에 일선에서 활약했다.

1930년대 초부터 우리 건축가에 의한 설계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은 우리 건축을 개척한 선두(先頭) 건축가였다. 그는 우리 사회와 자본의 지원으로 몇몇 건축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 박동진(朴東鎮, 1899~1980), 박인준(朴仁俊, 1892~1974), 강윤(姜潤, 1899~1974) 등도 박길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길룡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연수 주택(1929), 경성제국대학 본관(1931, 한국문예진흥원), 화신백화점(1937) 등을 들 수 있다. 박동진은 보성전문학교 본관(1934, 고려대), 도서관(1937), 중앙고등학교 본관(1937) 등 석조 건축의 선두주자였다. 강윤의 경우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건축가 보리스(William Merrell Vories, 1880~1964)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태화기독교사회관(1939)과 이

화여자전문학교의 음악당·본관·기숙사 등이 그것이다.

박인준은 유일한 미국 유학생이었다. 그를 통하여 미국식 건축이 도입되었으나 일제하 그의 건축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 외교관을 위한 양옥주택에 전념했다. 그 외 김순하(金舜河, 1901~1966)의 전라남도 도청 및 강당(1932) 등이 있다. 우리 주택은 서구화, 웨식화의 물결에 밀려 전통목조건축의 아름다움을 잃어 갔다. '서구의 것만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건축가와 국민 사이에 퍼졌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존 계승해 나갈 수 없었다. 일제 양식이 서구화의 건축물로 잘못 인식되어 그대로 받아 들여졌던 것이다. 소위 화양질충양식이 주택건축에 주류를 이루었다. 한양절충식양식도 일부 뜻 있는 건축가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극소에 불과했다.

우리 건축가들 일부가 일본에서 배워 돌아 왔다.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의 구현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만주, 대만 등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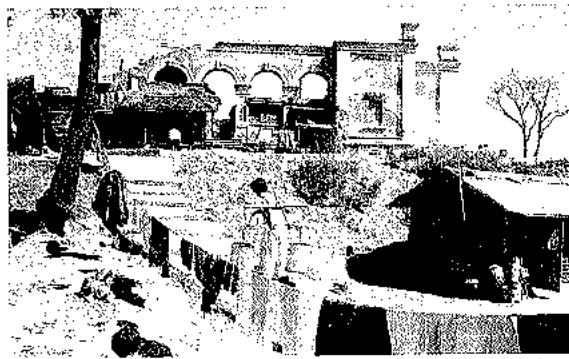
1920~1930년대 합리주의적인 건물들이 세워진다. 경성전기주식회사(1929), 상공장려관(1929), 부민관(1935) 등이 그것이다. 1928년경부터는 한편으로 건축에 조선의 향토적 정서를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驛舍)라든가 박물관 등에서 채택되었다. 한양(韓洋)양식의 의도적 결합이었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전쟁에 몰입되는 순간 건축의 양식이라던가, 발전은 완전 정체되었다. 군국적(軍國的) 보조 건축물이 세워지고 단순화되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자 우리는 새로운

해방 이후의 건축

시대를 맞는 작업을 펼쳐 나갔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조선공업기술연맹'의 결성이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발족한 이 연맹은 산하에 8개 부서를 두었는데 건축부가 이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조선건축기술단'이 이어서 결성되었다. '조선주택명단'도 업무를 속개했으며, '국민주택 설계도안'을 공모했다. 이 공모에서 김희준(金熙春, 1915~1993), 이희태(李喜泰, 1925~1981) 등이 입상한다.

'조선건축'이 창간(1947.3.20)되었다. 현상 설계의 본격적 기원이 될 서울 만물전 설계 공모에는 김태식(金台植, 1917~), 강명구(姜明求, 1917~) 등이 면모를 나타냈다(1947.10.2). 그러나 곧이어 미군정이 시작되며 이제는 미국 양식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건축도 미국 오리지널 건축이리[보다는 미 공병대에 의한 간이건축 형식일 뿐이었다. 경제 자체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였기에 독자적 건축 노선 항유는 어려운 것이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의 영향 속에 들어갔다. 동구적(東歐的) 요소도 포함되었다. 평양의 북구 작업은 러시아의 영향 속에 이뤄진 것이다. 6·



전쟁으로 일부 벽과 탑만 남은 리시아 공사관, 건축의사보다 하루살이가 더 중요했다.(자료: 한영수)

25전쟁으로 남북건축은 완전 파괴되었고 건축적 교류는 단절되었다.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은 모두 초토화되었고 폐허되어 갔다. 전통건축물도 신건축물도 모두 뿌리째 뽑히는 것이었다.

전란 중 건축가들은 암시수도였던 부산 등래에 피난처를 마련, 전후 복구사업에 매진했다. 휴전이 되자 남북한은 각각 전후 복구사업에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건축 그리고 졸속건축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모든 파괴된 건축물을 개·보수·증축하는 정도가 196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954년에는 '대한건축학회'가 '조선건축기술단' 후신으로 발족하였고, 1954년 국전(國展)에 건축부가 신설되었다. 대한건축학회는 1955년 국전 건축부 출품작을 이례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작품은 대구시청, 서울 만물전, 남대문 예배당, 국군 충훈탑, 주택, 공군본부 청사, 이화여자대학 강당, 이화여자중고교 강당, 서울특별시 의사당, 우남회관(鷗南會館) 등 10점이었다. 1957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전신인 '한국건축작가협회'가 조직되었다.

1959년 시행된 남산의 국회의사당 설계도안 현상모집은 김수근(金壽根, 1931~1986)과 박춘명(朴春鳴, 1924~) 등 일본에서 신건축을 배운 신세대가 이 땅에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5·16 혁명 이후의 건축

1961년 5·16으로 시작되는 1960년대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혁명 이후 건축에 관한 제 법규가 모두 새로 금조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963년 UIA(국제건축가연맹)에 가입한다.

1965년은 우리 현대건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건설시장은 월남, 사우디로 확장되어 되었다. 「공간(空間)」지의 창간(1966.11)은 우리 현대건축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했고 우리 건축을 스스로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1966년 경복궁의 국립박물관, 1967년 부여박물관 건축 양식 논쟁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1960년대의 주요작품으로는 서울 시민회관



1964년의 프랑스 대사관과 김중업
(자료: 동아일보사)

1964년의 자유센터와 김수근
(자료: 동아일보사)

(1961, 이천승)과 프랑스 대사관(1962, 김중업), 위커힐 각동(1962, 김희춘 외), 명동성모병원(1963, 김정수), 한양컨트리클럽(1964, 이광노), 예총회관(1964, 강명구), 자유센터(1964, 김수근), 남산 시립도서관(1964, 이해성), 제주대학교 본관(1964, 김중업), 조흥은행 본점(1964, 이천승·정인국 외), 유네스코회관(1966, 배기형), 경기도청(1967, 김희춘), 복자기념성당(1967, 이희태) 등이 있다. 이들 중 김중업과 김수근은 우리 현대사 최초의 대중적 건축가로 떠올랐다.

1966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현상설계는 나상진(羅相振, 1923~1973)을 뽑아 놓고도 미국 ‘피에이(PAE) 인터내셔널’에 설계를 내주는 수모를 당하고 밟았다. 우여곡절 끝에 1970년 새 청사는 준공되어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가로막았다. 세종문화회관이 그 라인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념적 공공건물의 등장과 대형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주제가 되었다. 이 년대는 고층 건축시대를 예고해 주었다. 정부종합청사의 준공, 삼일로 빌딩의 준공 등은 그 시대의 모습으로 상징지어졌다. 국립극장(1973, 이희태), 여의도 국회의사당(1975, 김정수 외), 세종문화회관(1978, 엄덕문) 등은 건축의 장적 측면에서 동방생명빌딩(1976, 박춘명), 대우센터(1976) 등은 기업의 신 사옥 시대로의 의미를 가진 작업이었다. 한편 와우 아파트 불파(1970.4.8), 대연각 호텔 화재(1971.12.25) 사건은 이 시대의 조악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는 대한생명 63의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1982년 새로이 탈바꿈되어서 나타났다.

1980년대 초 우리 근대건축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우리 건축의 근대화 문제, 식민성 문제 그리고 보존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사(建築史)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운동은 이 시기에 종암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재사용키로 한 국무회의 의결(1983.3.16)이나 화신백화점의 보존 운동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심을 끌게 했다. 이는 국민들 뿐 아니라 건축

가 자신들에게도 관심의 폭을 넓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은 도심을 재개발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갖게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은 서울을 대대적으로 확장시키고 고층화시켜 나갔다. 도심에서의 본격적 재개발은 1960년대 청계천 복개 등 무계획적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로 고가화, 상가개발은 서울의 고도적 측면을 무시한 행위였다. 이후 1980년대 올지로 2가 구역 재개발사업(1983.5)은 물량주의적 작업이었다.

1986년에는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1988년에는 올림픽을 서울에서 갖게 되었다. 처음 국제 사회의 인식권에 들었던 것이다. 국립경기장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공원 등은 우리 건축이 세계에 알리자는 첫 경험이다.

1988년 2백만 호 주택건설에 따른 분당, 일산 등의 ‘모래성’ 주택 정책은 여파도 거치지 못하고 강행되었다. 그 후 유증은 건축 전 분야에 퍼졌다.

서울에 국제그룹 사옥, 중앙일보 신 사옥 등이 들어서며 면모를 바꾸는 것은 국외 건축가들의 한국 무대진출의 한 현상이란 점에서 시비가 엇갈렸다.

1990년대는 우리 모두가 동참한 시대이다. 공동책임의 시대가 온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93년 청주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6.29, 17:50) 붕괴 사건은 물량시대, 정신 황폐화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1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건축의 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어떤 것은 오히려 후퇴했다. 본질적인 사명감이라든가, 도덕성에 있어서 그렇다.

정부도 스스로 부른 화였다. 청와대에서 남산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또 다시 큰 것은 부서져 나갔다. 우리 모두는 경험도 여과되지 않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에 빠져 지내는 동안 1990대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



정부 종합청사는 모든 매스컴의 시선을 모았다. 그런 일은 건축계 유사이래 처음이었다. 당시의 한 뉴스 기사 (자료: 서울신문, 1970.12.10)

20세기 한국건축의 근대화 도정과 한국건축가 세대론

The Modern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and the
Generation of its Architects

김형우 / 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Hyung-Woo

서구 건축의 유입과 20세기 건축의 맴아

강화도 조약(1876년)이 체결됨에 따라 개항이 되었고, 부산, 인천, 원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에 의한 색다른 건축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곧 도성인 서울의 중심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 나타났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여, 쇠잔한 조선시대의 강력한 왕권을 부활시키려는 대원군의 집념 어린 시도가 궁궐과 왕실에 관련된 건축 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즉 250년 동안 폐허의 궁궐로 방치되어 오던 경복궁이 1868년 재건을 맞게 된다. 중건된 건축물이 7,200여 칸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복궁의 재건은 도성의 도시적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광화문과 6조 거리가 제 모습을 갖추고 중세 도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세기 전반까지 일부 특권 계층의 주택건축에 한정되었던 고도의 미적 감각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공간의 다양성과 형태의 세련미를 더 보편화시키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19세기 후반, 고종 재위 중에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혁기를 맞았으며, 노비의 세습과 양반과 상민의 신분구분이 철폐되고 이에 따라 인재의 등용에 차별화가 타파되었다. 이 시기 전래 건축의 장인들은 19세기초보다 도시로 더 집결하고 조직화하였다. 향상된 기술을 지닌 장인 조직의 집단은 경복궁 재건 참여의 기술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의 수준높은 주택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경복궁 재건 이후의 권위적 전통건축은 단절되었다고는 하나, 향촌

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진 양반가들의 주택의 건축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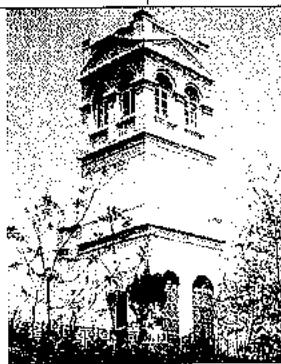
18세기말에 장인의 노임이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면서 장인직은 하나의 고유한 전문직으로 활성화되었다. 민간인 장인이 활성화되면서 승려 장인은 점차 소멸되었고, 대부분의 불교사찰은 민간인 목수에 의해 건립을 맞게 된다. 이로서 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풍의 독특한 사찰건축이 19세기 후반의 시대 배경에서 이뤄진 민간인 장인들의 건축적 체험이 발전하여 새롭게 불교건물에서 재현되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의양풍(擬洋風)건축은 1877년 부산의 일본 관리청 건물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주로 개항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진다. 인천 세창양행(1884)은 유럽인들이 아시아 식민지 일대에 세운 건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4각 기둥의 개방된 아케이드를 가진 2층 벽돌조의 별장풍 건물이다. 이후 1890년대 들어와서 각국의 공관을 중심으로 한 건축이 본격화된다.

1886년 한불조약을 계기로 18세기말 이후 흑독한 박해를 받았던 가톨릭 교회가 비로소 공인되어 본격적인 가톨릭 교회건축의 건립을 맞게 된다.

명동성당은 18세기이래 유럽인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아시아 식민지에 지은 건축과 같은 맥류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 건설 주체도 외국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입지가 도성의 경관을 위압하고 있는 서구적 도시구성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개항지에 외국인에 의해 건립되는 서양식의 건물들



인천 세창양행 사택(1884년)



프랑스 공사관(1897년)



러시아 공사관(1895년)

이 점차 높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 주변의 경관은 크게 변모하였다. 이 당시에 지어진 교회당은 대개 외국인 신부나 선교사들의 주도로서 서양식 교회당 건축 형태를 현지의 기술적 여건에 따라 적당히 간략화 하여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이 때에 지어진 개신교 교회는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영국 빅토리아조 전원주택풍의 간결 소박한 외관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에 따른 민간의 상업 목적의 건물조성 도 활기를 띠어 호텔과 사옥, 별장 등이 건립되었다.

선교사들에 주도된 학교건축들도 서양식의 건축으로서 기본적인 외관장식 요소들을 적당히 가미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건물의 설계는 당시 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건축 기술자가 알거나 아니면 전문기술자가 아닌 서양인들이 건축 물의 형태를 결정했다. 공사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당시 국내에서 시공 가능한 간결한 구조로서 건조하였다. 이와 같은 서양식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건립하는 건축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조선인들의 고유한 건축관이나 생활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질적인 형태의 건축으로 우리의 전통적 건축의 부정적 시각이나 서양인들의 건축 양식에 우월성을 갖는 일방적인 건축 양식의 유입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문화적 관습을 배제한 매우 공격적인 문화유입이며, 전통 건축과 서구 건축의 괴리를 촉발 하는 20세기의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성숙되지 않은 건축문화의 기점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국내의 기술인력이 철저히 배제되고 한국의 문화 수준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며, 번거로운 기술 전수의 이행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건축의 근대화 과정으로서는 불행한 불씨인 것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우리나라에 서양식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서구 열강에 의한 일방적 문화 유입이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건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는 서양건축의 유입기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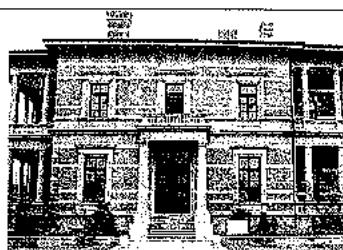
이 시기 한국이 겪은 서양건축의 유입은 아시아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일방적이고도 타율적인 것이었

다. 이후 이것은 한국에서 서양 건축이 정착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외래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한국인 자신들의 여건상 필요로 하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변화된 문화를 조성해 가는 바람직한 문화의 이점현상이 단절되거나 왜곡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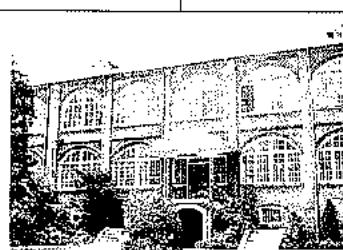
대원군의 쇄국정책에도 기인하지만 서양 세력의 강요에 따라 개화의 문이 열렸고, 그들의 일방적인 필요와 선택에 의해 서양식 건물이 유입되며, 한국인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서양 건축이 국내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타율적인 수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지배계층과 공공건축에서는 무조건적인 서양식 건축이 만연되며, 주택 건축과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전래적(토착적)건축과의 사이가 유리되어 일관된 한국 건축의 근대화로 한국인의 피부에 와닿는 전통 건축의 융화와 근대화라는 과제가 현재에까지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운궁의 중건공사(1906년)에서의 양판문(洋板門)과 같은 서양식 창호기법의 출현은 전통적인 건축인들의 서양건축의 수용과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종은 경운궁에 전통적인 궁궐 건축의 정수를 조성하는 한편 서양의 외래 건축도 과감히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양식 건물은 대체로 1900년경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정관현, 돈덕전, 구성헌, 중명전, 석조전 등에 융합된 건축의 적용 예를 남기고 있다. 석조전은 1900년에 착공된 서양식 건물의 가장 돌보이는 장대한 건물로서 공사가 지연되어 1910년에 가서 완공되었다. 설계는 영국인 기사 하이딩이 맡고 공사는 심의석(沈宜錫)과 러시아인 사비친 외에 일본인 기사들이 참여하였다. 석조전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서 유럽 궁정건축을 모방한 이오니아식 열주를 가진 궁정 건축으로 중앙 상부 박공에는 왕실문장인 이화를 장식하였고, 건물 전면에는 서양식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지닌 정원을 꾸몄다.

왕실에서 서양식 건물을 과감히 수용한 데는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열강의 품격에 겨루는 황제의 권위에 부응하는 건축적 상징으로서 서양식의 건물을 채택하는 진취적인 일면도 있었다. 민간에서도 일부개화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을 적극 수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독립문은 사비친이 설



벨기에 역사관(1905년)



울산의 신학교(1891년)



학현성당(1892)

계하고 공사에는 심의석이 간여하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전통건축과 서양식의 교회건축이 융합하는 예로서 교회건축은 카톨릭 신앙이 뿌리내린 지역의 한국의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최남선이 설립한 신문관에서도 있었다.

지방의 성당이나 교회당의 한식 또는 한·양 절충식 건물은 지역의 토착 건축 장인들에 의해 한식 건물의 기술을 바탕으로 교회당의 기능을 수용하는 과제를 풀어가면서 창의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출입구 위치의 변경과 벽면의 벽돌 조의 도입, 한식 기와의 지붕, 서양식 성당의 세부형태를 목조 기둥과 벽면으로 묘사하는 방법 등은 이 시기 당면한 지방 건축 장인들의 고충이며 건축의 토착적인 요소가 융합하는 선구적 시도인 것이다. 국내의 서양식 건축에 참여하였던 중국인과 일본인 기술자의 유입과 서구인들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건축물이 좀 더 손쉽게 한국인 장인과 기술자로 전수되었다면 한국 전통건축의 근대화라는 과제가 자연스럽게 토대를 다질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운 20세기 초의 상황을 상정해 본다. 국내 건축 장인에게 이러한 기회는 이후에도 상실되어 서양식 건물과의 접촉은 그 형편이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었다.

전래식 건축과 서양식 건축의 동반자 / 심의석

서울에서 태어나 한학을 배우던 중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면서 서구 건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전통적인 장인과는 전혀 다른 성장과 건축 습득의 과정을 가졌으며, 일찍부터 서양식 건축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배재학당(1887)은 그의 첫 번째 서구식 건축의 참여가 되며, 이때 벽돌조 공사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시병원의 건립에 참여하고 독립문 공사(1896)에 사비친과 함께 종사하게 된다. 뒤이어 정동 제일교회, 이화학당 본관, 상동교회 공사에 종사하였다. 이후 왕실에 그 명성이 알려져 왕실의 전통적인 한식 건축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파고다 공원의 팔각정, 원구단과 황궁우, 고종의 회갑을 기념한 칭경비각의 신축공사와 경운궁의 석조전 공사에도 활동하였다. 그만큼 심의석(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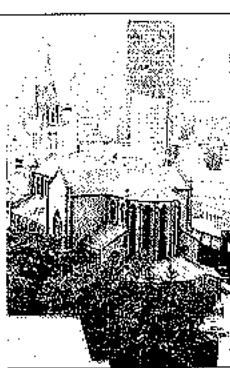
宜錫; 1859~1927)은 서양식 건축물은 물론 기존의 목조 건축에도 정통한 동·서양 건축을 넘나들며 그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이후 내부(내무부)의 건축기사로 임명(1908)되어 관리의 신분으로 건물의 설계와 감독 업무를 맡았다. 한일 합방후에도 경성부 참사(1911~1919)를 지냈다. 심의석은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인이 재래식 건축과 서양식 건축을 동시에 익히면서 양쪽을 적절히 접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근대적인 건축 설계사로서의 변신을 보여주는 20세기 최초의 한국 건축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관제건축(1906~19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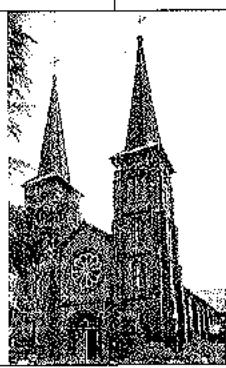
노일전쟁(1904.2.~1905.9.)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결과 단독으로 조선에 개입하여 소위 을사보호조약(1905.11.17.)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외교권의 박탈이라고 하지만 통감부는 조선의 모든 내정을 간섭함으로써 사실상 식민통치와 같은 차관(次官)정치를 하였다. 따라서 개항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양인에 의한 양식 건축의 직접적인 유입은 끝을 맺고, 일본을 거친 절충주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일본은 조선의 모든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판야 건물의 새로운 건립을 도모하였고 1907년 체결된 한·일 신 협약에 의해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용하여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관치 정치를 시작하였다. 즉 택지부내에 건축 소리는 기구를 두고 일본인 건축기술자를 다수 직원으로 고용하여 구 한국 정부의 관청건축은 일본 대장성의 영향을 받는 의양풍의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르네상스 풍이 풍미하였고, 대한의원 본관은 17~18세기 유럽의 화려한 네오바로크 양식의 중앙 시계탑을 지니고 있다. 이 당시 건립된 건축은 다음과 같다.

통감부 청사	(1906년)	택지부 청사	(1907년)
대한의원 본관	(1908년)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1908년)
광통관	(1909년)	내부청사	(1910년)



명동성당(1892~1898년)



대구 계산동 성당(1902년)



정동교회(1898년)

공업전습소 본관 (1909년) 농상공부 청사 (1910년)
부산세관 (1910년)

이 밖에 택지부 건축소 주관의 주요 건물로는 학부청사(1908년), 건축소 청사(1909년), 택지부 인쇄국(1908년), 각 지방 재판소, 경찰서, 경성감옥, 각 지방 재무서 청사, 각 항구의 세관 등이 있었다.

건축소에서 담당하지 않았지만 주요한 관청건물로서는 통감부 청사(1907년), 부산우체국(1910년), 부산역사(1908~1910년), 조흥은행본점(1908~1912년) 등이 있다. 부산역사를 설계한 일본인 다츠노 킹코(長野金作)는 일본 공부대학 조가학과(동경제대 건축과 전신) 제1회 졸업생으로 영국 유학 후 일본 건축계의 주요 인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힘방 이후 택지부는 해체되고 그 업무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철도국 공무과 및 건설과, 체신국 공무과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였다. 이 부서의 기술직은 거의 전원이 일본인 이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1907년 공업 전습소를 설치하여 목공과를 개설하였고, 여기에 입학한 학생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16년 경성공업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일부 재질이 뛰어난 한국인도 소수 입학할 수 있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한국인들은 1930년대에 한국인으로 건축 설계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1920년대까지는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김정동은 “① 관립이 사립에 우선하며, ② 교세는 경성공업 학교가 훨씬 앞서고, ③ 공업교육(건축교육)의 중심은 경성이며, ④ 경성고등공업 학교는 일인 중심이고, 대동공업전문학교가 한국인 중심세였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식민지배 초기의 서양식 건축(1910~1925)

1910년 9월의 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로 출발한 건설관계 부서는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총독관방 토

복국 영선과로 소속이 바뀌고 총독부 서무부 회계과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내무국 건축과로 변경된 것은 이 당시 피크를 이룬 대규모의 관청 건축 건립기를 반영하고 있다. 1930년부터 해방시까지 건축 관계부서는 재편성되어 총독관 관방계와 건축계로 존속되어진다.

이 당시 건립된 건축은 다음과 같다.

조선호텔	(1913~1914년)	경성우체국 (1913~1915년)
총독부 박물관	(1915년)	경성역 (1922~1925년)
조선총독부 청사	(1916~1926년)	경성부청 (19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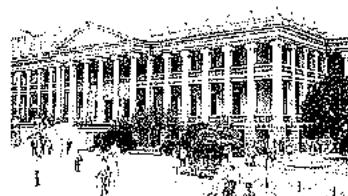
이 시기에 지어진 일련의 식민지 관청 건물과 그 예하의 민간 조직 건물은 권위적인 외관, 단조로운 형태로 일관하였다. 주로 서양에서 18세기이래 유행하던 역사적 스타일의 모방에 치중했으며, 중요한 건물은 표면을 석재로 마감하여 독종한 외관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철도 역사의 공사는 총독부 철도국이 주관하였고 일부 지방의 호텔 건축도 담당하였다. 조선호텔은 독일인 리란데의 설계로 건립되었는데 이 시기 건축의 주류를 이루던 권위적이고 경직된 대칭 구성을 벗어나 외벽을 벽돌쌓기로 마감하고 지붕에도 곡선을 이용한 변화를 주어 부드러운 외관을 구성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노골화되자 민족적 자각도 증대하였다. 서양 문물의 장점을 수용해서 민족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식에서 서양 학문을 젊은이에게 고취시키고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나 기타 교육시설이 민족 자본에 의해 활발히 지어졌고, 이러한 건축물은 서양식 건축이었고, 기독교 계통의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에서도 서양식 건물의 확산에 한몫을 하였다.

서북학회 회관의 설계는 캐나다인 건축가 고든 이,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은 미국인 돈햄이 설계하고 시공은 중국인 장시영이 담당하였다. 서울 종로 일곽의 건축은 서양인들의 직접적인 설계로 온건하면서도 비례가 잘 잡혀 있었다. 중앙고등전문학교(1917~1923)와 천도교 중앙교당(1918~1921)은 일본인 니카무라 요시히에의 설계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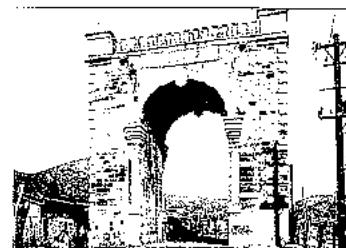
종교 기관이 건축은 토착 기술에 비탕을 두면



인천 제임스 존스턴 별장(1905년)



덕수궁 석조전(1910년)



돌릴문

서 서양식 교회당을 지방 각 도시 중심부에 건립하였다. 영국 성공회 성당(1926)은 영국인 딕슨의 설계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원안의 설계대로 1996년에 완성을 본 바 있다. 이 밖에 기독교 등의 종교 관련 교회당과 민족 자본에 의한 학교건축은 공통적으로 벽돌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외관을 갖추면서 세부시공에서 정교하면서도 변화를 지니도록 노력하였다. 공공건축에서의 서양식의 건축은 도시인들에서 점차 친숙도를 더해 갔다.

식민지배하의 근대건축(1926~1945)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 대도시에 늘어나는 상업활동을 반영하여 민간의 상업건물이나 공공시설이 늘어났다. 대도시의 상업건축들은 외관에서 종래와는 다른 경쾌하고 참신한 디자인이 돋보였다. 이들 건축물의 설계는 민간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들에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일본 국내에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서양의 근대건축 운동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조선과 건축」지에서도 근대건축가와 건축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에서의 「메이지 건축(明治建築)」으로 불리던 근대건축은 식민지의 근대건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920년대 「분리파 건축회」가 동경제대 출신의 호리구치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5명에 의해 창립되고 비엔나 세제션(1897년)에 비견하는 건축운동을 주창함으로써 모더니즘의 발아를 맞게 된다. 「조선과 건축(1923.9, 1924.1)」은 표현파의 건축인 에리히 멘델손의 「아인슈타인 탑」 등을 재빠르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꼬르뷔지에는 1923년 소개되기 시작하여 1927년, 1928년에는 간헐적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라이트의 봄이 일어나 「라이트식」이라는 용어가 파생될 정도였다. 이때부터 일본인 건축가들은 유럽과 미국 건축가들의 모더니즘 건축을 복사해가는 급진적인 전환을 맞고 이러한 영향이 한국에도 파급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의 근대건축의 초기작업은 라이트의 사무소 소원으로 있던 안토닌 레이몬드(Antonin Raymond : 1888~1976)가 1924년 자택을 건립하면서 일본적인 토양에서의 근대건축이 짹트게 된다. 1927년 일본 건축계의 급진

파들이 「일본 인터내셔널 건축회」를 발족시킴으로써 1925년의 바우하우스 출신에서 그로피우스가 주창한 국제건축(International Architecture)이 발표된 지 2년 후인 1927년 「일본 인터내셔널 건축회」가 발족을 보았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의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 : 1870~1956)을 고문으로 멘델손, 페터 베렌스, 브루노 터우트, 그로피우스, 르 고르뷔지에, 네델란드의 리트벨트 등을 회원으로 가담시켜 일본건축가와 유럽의 세계적 건축가와의 교류를 통해 건축 발전의 계기를 이루게 된다.

근대건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서울의 부민관(1935년), 아사히 빌딩(1935년), 총독부 상공 장려관(1932년), 경성 중앙전화국(1935년),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1933년), 초오지야 백화점(1937년) 등이 있고 지방에서는 전라남도 평의회 회의실(1932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그리스의 오데나 르네상스풍의 돔 지붕을 올려 놓는 등의 양식주의 풍을 벗어나 벽면에 장식을 하지 않고 수평·수직을 강조하고 넓고 개방된 창과 기능을 살린 역동적인 외관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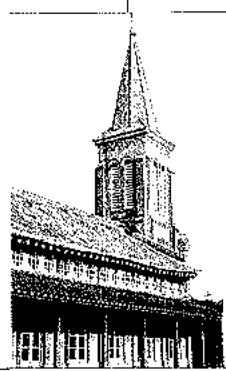
근대 건축의 전개와 한국 건축가의 활동

1907년 설립된 공업 전습소를 졸업한 한국인들은 대개 시공 과정의 기능공으로 밖에 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건축 교육은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고 난 뒤 소수의 한국인 입학이 허용되어,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본인들 틈에서 설계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뛰어난 평양에 대동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한국인이 중심이 된 유사한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밖에 공업 전습소의 명성을 바꾼 공립공업학교가 기능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 사립 학교로 소회공과학교와 동아공과학원이 있어서 제각기 전문 인력의 육성을 담당하였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하여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약 60명 정도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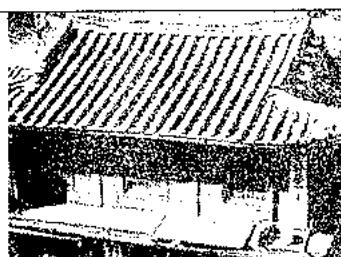
한국인의 학연이 시작되는 경성고등공업학교



성공회 강화성당(1900년)



논산 학산성당(1906년)



신문관(1906년)

출신으로서는 박길룡(1898~1943), 이기연, 김세연(1897~1975), 이원식, 장연재(1901~1976), 김순하(1901~1966), 김남수, 이균상(1909~), 김형칠, 김해경(이상), 유상하(1907~1950), 김하진, 유원준(1909~), 이천승(1910~1992), 전창일(1912~1971), 이한철, 김재철(1913~), 김희준(1915~), 신무성(1914~1990), 장기인, 박대규, 김정수(1919~1985), 송민구(1920~) 등이 있다. 이균상은 후에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수진에 발탁되며,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었다. 졸업생들은 관청이나 시공회사에 취직하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일부만이 설계 업무에 진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박길룡(朴吉龍)과 박동진(朴東鎮)을 내세울 수 있다.

한국건축가 제1세대

박길룡 / 박길룡 건축사무소

1919년 경성공업고등학교 최초의 졸업자(이기인과 함께)로 졸업 후 13년간 총독부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920년부터 조선 총독부 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 1932년부터 건축사무소를 설립하여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민간 설계의 작업을 하였으며, 폭넓은 인품으로 당시의 한국 건축인 사회를 리드하였다.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한편 일본인에 못지 않게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벌여 한국인 건축사로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또 한글로 된 「조선 건축」이라는 최초의 한국인 건축기에 의한 건축 잡지를 창간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건축사 협회에서 유일한 조선인 회원으로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박길룡 건축사무소는 당시 소장 한국인 건축가의 집산지처럼 되었고, 김세연, 김관정, 유원준, 유상하, 장연재, 손민수, 박동진, 김해경(이상), 이병문, 전창일, 이천승, 조병섭, 윤정훈, 김한섭 등이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사무소 조직은 작업에 따라 주변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건축 작품으로는 1929년에 벽돌조 서

양식 주택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는 4, 5층 규모의 공공건물이나 은행, 상업 건축 등을 설계하였다. 주요 건물로는 조선생명 보험사옥(1930), 경성제국대학 본부(1930), 종로 백화점(1931), 제일은행 남대문 지점(1931), 가회동 김씨 주택(1931), 한청 빌딩(1934), 화신 백화점(1935), 경성 여자 상업학교 교사(1937), 혜화전문학교 교사(1934) 등이 있다. 설계에 특별한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벽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기능에 충실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유지하여 서울에서 지어지는 서양식 건물의 보편적인 수준을 이루었다.

박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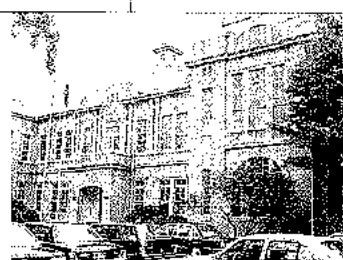
박길룡보다 1년 뒤에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중에 3·1운동에 연루되어, 재입학하여 1926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총독부 건축과에 근무하다 1938년 퇴임하고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데, 주요 프로젝트는 인촌 김성수 씨에게서 받게 된다. 대표 작품으로는 보성전문학교 본관(1934), 조선일보사사옥(1934), 보성전문학교 도서관(1935), 중앙중학교 본관(1936), 평안공업학교 대강당(1942) 등 주로 학교 관계의 설계를 많이 하였다. 이 가운데 보전 본관과 도서관은 고딕풍을 기조로 한 외벽에 화강석 마감을 한 육중하고 안정된 외관을 이루게 된다.

박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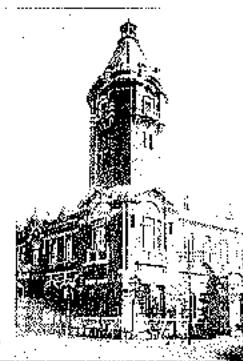
박인준은 박길룡보다 8년 연상이지만 건축 수학은 만년이 되어 1927년 경에 마친다. 1914년 연희전문 수학과 재학중 항일 운동에 가담한 관계로 1917년 도미하여 1923년 시카고 Lewis공과 대학에 기계공학 전공으로 졸업한 뒤 다시 1927년 미네소타 주립대학 건축학부를 마친다. 그는 졸업 이듬해부터 시카고에서 건축 실무를 익히다가, 1933년에 귀국하여 박인준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경력은 한국에서의 인맥과 지역에서 멀어져 프로젝트는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 그는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형태의 주택을 주로 설계하였다.



대한의원 본관(1908년)



공업전문학교 본관(1909년)



부산세관(1910년)

강 윤

1923년 일본 관서공학전수학교에서 건축 수학을 마치고 미국계 보리스(W.M.Vories)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다. 그의 건축은 대부분 양식적이다. 보리스 건축설계사무소 경성사무소에서 작업을 계속하게 되며 학교 건축, 공공 건축 등에 작품을 남겼다. 강 윤은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태화 기독교 회관(1938)과 이화여전 강당과 같이 양식적 낭만주의를 표현하는 여러 건물을 설계하였다.

한국의 근대 시점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는 1976년의 개항기부터 보는 견해(김정동)와 모더니즘이 배태되는 1930년대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한국 건축가에 의한 구도가 뚜렷하게 변별되어진다. 개항기 이후 한국은 일제에 강점되어 있으면서, 외국 공관계통의 서구적 건축과 선교사를 통한 구미인들의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을 위한 공공건축, 외국인 상사 건물과 관련 주택, 한국의 내정 개혁에 따른 학교건축등에 서구식의 건축 양식이 유입된다. 한편, 일제에 의한 관아건축 등도 의양식과 절충식 등의 혼란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근대 건축의 도정에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의 역사 양식과 절충주의에 따른 낭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양식성과 합리성이 결부된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구성주의, 기능주의를 포함한 합리주의, 한국 전통 역사 양식의 변형과 서구 낭만주의와 혼합과정등 밀려드는 외래의 건축문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파동적으로 수용하는 모순이 따르고 만다. 이것은 건축가들의 자율적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후일의 건축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1930년대부터 한국인 건축가들의 입지가 두드러지며, 그들의 표현적 의사는 ① 서구 낭만주의 양식을 수용하거나, ② 합리주의를 수용하거나, ③ 전통적 수사를 유지하는 과정과 양태를 지닌다.

해방과 이데올로기의 격랑속에서 건축도 침체하며, 제 2세대를 맞게 된다. 이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이 천승과 김희춘의 역할이 중요하며, 건축가로서의 작업은 해방 이후 구체화된다.

한국건축가 제2세대

일제기에서 건축 수업을 받고 건축을 시작하나 대체적으로 해방후의 작업이 중심을 이루는 건축가의 부류이다. 해방 후 관료조직(철도청, 건설부 등)에 속해지거나, 독립사무소로서 개별적인 작업 또는 소수의 그룹화 된 사무소를 운영한다.

제2세대의 건축이 시작되는 1950년대 초기는 해방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사회적 정경(政情)에 따른 문학적 혼란이 가중된다. 결국 혼돈속에서 6·25동란을 맞이하고, 모든 건축적 활동은 중단되어 피난지 부산에서 군사관련시설에 참여하거나 전시학교 교육에 진력한다. 한국전쟁동안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교통부 철도청 관련프로젝트가 건축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당시의 건축계는 관료조직 이외에는 조직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여 철도청의 현직에 있던 최순철, 신무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작업이 유덕호, 이천승, 김중업, 김태식, 엄덕문, 강명구, 김희춘, 이 광로, 송민구의 참여로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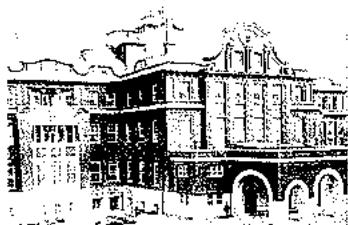
1957년 「건축작가협회」가 건축의 예술 지향의 가치를 들고 결성되었으며 1959년 「한국건축가협회」로 개칭을 한다. 이 당시 회장에는 이천승, 임원에는 정안국, 배기형, 김희춘이, 회원에는 김태식, 강명구, 엄덕문, 김정수, 박학재, 김중업, 홍순오, 나상진, 이희태, 이명휘 등이 참여하였다. 주택 사업과 미국식 주택의 개발 연구를 여러 원조기구들과 담당하였던 한미재단에는 아광로, 강명구, 이건영 등이 있었다.

김태식 / 김태식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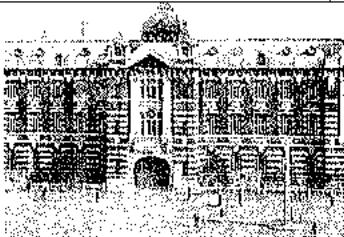
김태식은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1940년 일본대학 전문부 건축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처음으로 건축사무소를 창립하였다. 동시대인 중에서 가장 명장한 모더니즘의 건축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의 전모에서부터 디테일까지 견실한 작업의 면모를 보인다.

이천승, 김정수 / 종합건축사무소

이천승의 시대적 역할은 세대간의 연결고리로서 일제 아래에서 대부분 성장하나 실질 작업은 해방 후 시작



조선호텔(1913~1914년)



경성무체국(1913~1915년)



총독부 박물관(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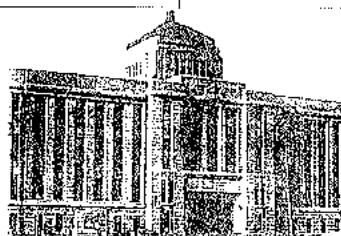
하여 만년에까지 건축 실무에 관여하였고 사회적 개성이 풍부하였다. 1929년 경성고공에 입학하여 건축에 입문하였고, 1년간 박길룡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설계에 참여한 뒤, 남남주 철도 주식회사로 옮겨 기술 분야에서 일하다가 1943년에 귀국하여 박홍식이 경영하는 조선 비행기 공업회사에서 징용을 면하기 위해 근무하였다. 1953년 김정수와 함께 설립한 「종합 건축」은 본격적인 사무소 조직으로 기술, 디자인, 관리의 일관된 체제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송종석, 안영배는 종합건축의 디자인을 이끌며, 한국의 모더니즘을 성숙되게 하였다. 이 건축사무소는 실무를 가르키는 연구소로서 이희영, 이규재, 강진성, 이승우를 실무 책임에 두고, 계획에 송종석, 안영배, 김정철, 설계는 오웅석, 이상순, 서재웅, 송기덕, 이정덕, 최춘환 등이 맡았다. 기술분야에서는 최종완(구조), 지철근(전기), 이휴선(설비) 등이, 도시계획에는 윤정섭이 작업하였다. 대규모의 프로젝트와 많은 현상설계의 참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김정수는 연세대로 가게 되었고, 이천승은 국회의 건설 전문위원으로 우남회관, 조폐공사, 화신산업의 건설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건축적 성향은 비교적 모더니즘의 정신을 일관되게 나타내 보이며, 국제주의의 실험이 주요프로젝트에서 시도되었다.

신건축 문화 연구소

1945년에 정인국, 엄덕문, 강명구, 박학재 등의 중견건축가 그룹이 장안빌딩에서 또 다른 모더니즘 그룹을 이루었다. 1957년 5월의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었고 경영적 곤란으로 이 당시 대학의 건축과 형성기에 부응하여 정인국, 엄덕문, 강명구는 흥익대학으로, 박학재는 한양대학으로 작업의 기반을 옮기게 된다. 정인국은 건축의 이론과 설계를 병립하는 교수건축가로 중앙관상대(1960년)까지의 국제주의 경향 서울시 교육위원회(1967년)의 낭만적 모더니즘 한국적 토착 성의 모색(영남대학교 박물관 프로젝트, 1971년)의 과정으로 진화된다. 구조에는 김창집, 함성권, 배기형, 그리고 설계진은 원정수, 이윤형, 유희준, 주경재 등으로 팀을 이뤘다.



조선총독부 청사(1916~1926년)



경성부청(1926년)



경성역(1922~1925년)

구조사 / 배기형(1918~1979년)

신건축문화 연구소의 파트너였던 배기형은 구조사를 설립하여 독립한다. 그는 니시지마 사무소 출신으로 디테일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에 탁월하였다. 당시 건축설계에서의 구조사의 부상은 그의 현실적 감각과 기술성을 디자인에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건축 이외에 1960년대 후반부터 사무소 건축에서 많은 작업을 남겼다. 유네스코 회관은 도시건축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한 예이다.

김창서, 장종률, 장석웅, 윤도근, 현재의 윤홍갑 등이 그의 작업을 뒷받침하였다.

이희태(1925~1981년) / 이희태 건축사무소

1942년 경성공립 직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해방후 진보적인 시대, 사회관으로 신건축을 모색하였다. 그의 일관된 건축개념은 전통적 수사를 현대화하는데 있으며 혜화동 성당(1955년) 절두산 복지기념성당(1967년) 등의 건축조형과 부조 등이 조화를 이룬다.

김희춘(1915년~) / 김희춘 건축연구소

1937년 경성고공을 졸업하고 관계의 경력을 쌓은 뒤 동경건물을 주식회사에서 임대 사무소 형식의 동경건물 회관을 설계한다. 1952년부터 1990년 정년퇴임까지 서울대학교였으며, 대학시설과 연구시설 등에 건축설계를 남겼다.

엄덕문(1919년~) / 엄덕문 건축사무소

신건축에서 파트너였던 엄덕문은 1960년 홍익대학의 제자였던 이운형과 엄덕문 건축연구소를 설립하며, 1962년부터 홍익대학 건축과 교수로 재직한다. 1977년 4월에는 이희태와 함께 엄아건축 주식회사를 맡으며, 전동훈, 김인철, 이각표 등과 함께 그의 후기작업을 시작한다.

박학재(1917~1981년) / 국제 건축연구소

1946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며, 1948년 세종로에 국제건축 연구소를 설립한다. 1954년부

터 1969년까지 주로 한양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체계가 계속되다가 1970년부터는 대학에서 건축역사와 캠퍼스 디자인에 주력하게 된다. 이해성, 한창진 등이 그의 건축을 뒷받침하였다.

박춘명(1924년~) / 박춘명 건축사무소

1959년 일본동경대학 건축과와 동경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단계겐조(丹下健三)의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 뒤 국회의사당 현상설계(남산)의 당선을 계기로 김수근과 함께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한다. 1965년 사무소를 개설하여 특히 사무소건축에서 독보적인 건축을 이룬다. 조형과 기술적 해결의 양면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광노 / 무애 건축연구소

그는 해방 직전 1945년 4월에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개편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1951년에 졸업한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I. M. 페이 사무실에서 미국적 합리주의를 체득하여 그의 건축경향을 이루게 된다. 1955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한미재단에서 주택건설부를 담당하였고 1951년부터 서울대에서 40년간 교직에 몰입한다. 이광노는 건축의 조건에 따른 대응력이 뛰어나며, 대상에 따라 디의적인 표현이 이뤄지고 있다. 합리주의와 낭만적 경향, 구조와 재료의 새로운 표현 등으로 한국 건축계의 보편적인 성향을 표괄하고 있다. 그는 모더니스트로서 합리성과 한국적 정서를 포용하는 의지가 강하다.

무애의 인맥은 모연홍, 강의식과 함께 시작하여, 김종근, 허규용, 홍만기, 김인석, 김태수 등에 의해 초창기가 형성되고 김병현, 마춘경, 김창익, 김태권, 배영덕 등에 의해 1960년대초의 작업이 수행된다. 서울공대를 기반으로 한 학연과 조직은 부대진, 김준호, 정연석, 황일인, 정세석, 박용무, 유걸, 엄웅, 공상일, 김수국, 이영복, 공일곤, 조성중, 이민섭, 홍대현, 이문보 등이 창립빌딩 시대의 집단을 이룬다. 설계 경기에서 부산 시민회관(1962년), 부산 민중역사(1963년) 등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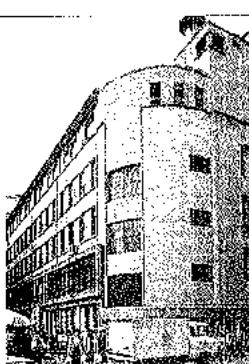
김중업(1922~1988년) / 김중업 건축연구소

김중업은 일본 요코하마고공을 졸업하고, 서울공대 재직 중 6·25동란이 일어났다. 문인과 예술인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김중업은 1952년 9월 유네스코 주최 제1회 국제예술가 회의의 한국대표로 베니스로 떠난다. 그곳에서 르꼬르뷔지에와 조우한 그는 프랑스로 가서 르꼬르뷔지에의 문하에서 현대건축의 수련을 쌓고 1956년 처음의 개인 건축전시회를 통해 그의 건축세계를 펼쳐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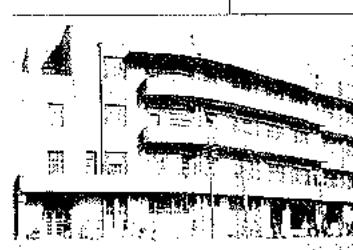
1960년대 중반까지는 김중업의 작업이 가장 화려한 면모를 보인다. 그의 건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안병의, 윤도근, 김인배, 정길협, 장석웅, 양덕규, 김석철 등이 뒷받침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중견 건축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1963년 5·16혁명 후의 도전적 정책의 비판으로 국내를 떠나 프랑스와 미국에서 이주하며 작품과 교편 생활을 하다가 1968년 귀국하여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다시 개설하여 개인전을 열며 제3의 전성기를 시작한다.

부산대학교(1956년) 이후 김중업의 관심은 르꼬르뷔지에의 영향력 속에 있었고 그것은 서강대학(1958~1960년) 등에서 지속된다. 형태소와 형태 선형의 관능에 집착하는 형태주의적 경향은 제주대학(1964~1970년), 서산부인과 의원(1965년)으로 이어진다. 그의 가장 원숙한 건축적 한국성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1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1967년)에 이르며 동시대의 보편적 조형과는 일탈된 개별성을 지니게 된다. 김중업의 영향력에 속해있는 김석재의 육군 군종센터(1969)의 조형은 콘크리트 구법에 따라 하나의 오브제로서 표징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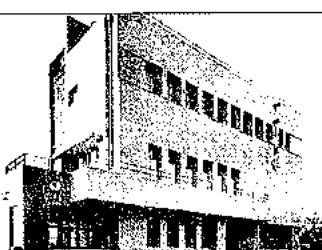
한국 모더니즘에서 국제주의 경향과 연대가 없이 표류하고 있다면 서정성이 내포된 합리주의적 경향들은 한국의 지역성과 특이성으로 융화하여 재료와 구법의 반곤감을 극복하는 행위이다. 김희춘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1956~1957), 경기도청사(1963~1965) 등은 전체적인 단순한 조형을 중점을 갖는 공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1973년 삼일빌딩은 본격적인 커튼월의 고층 건물로서 미국의 마천루 계획을 비유하는 70년대 사회의 진보라 할 수 있다.



아사히빌딩(1935년)



경성 실공 장려관(1932년)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1933년)

한국건축가 제3세대

제2세대의 후학들로서 모더니즘의 건축 교육의 체제에서 성장하는 세대로서, 건축교육의 국제화를 체험하였으며 종합건축사무소와 대학 교수 건축가로서 해방 이전에 출생한 세대이다. 광복 후에 수학하거나 건축 체험을 시작한 건축가로서 서구의 팀센, 아카그램과 같은 새로운 건축조류를 동시대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진보적 사고를 향유하고 있다.

김수근 / 공간그룹

서울대학교 재학중 도일한 김수근은 일본 동경예술대학에서 요시무라 준조(吉村順三)의 문하에서 근대 이후 일본의 모더니즘을 체험하였다. 일본의 현대건축을 이끌고 있는 메타볼리즘의 영향속에서 양면적 진취를 시도하였다. 즉 그는 모더니즘에 따른 건축의 합리성의 기반위에서 메타볼리즘으로서의 조형과 형태 규칙을 구성하는 기법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사당의 현상설계에 당선(1960~1961년)하여 귀국하며 1961년 김수근 건축연구소를 개설하고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성취해 나간다. 이 시기는 윤승중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팀웍으로 70년대와는 구분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의 일본색의 논점을 계기로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성의 탐구가 1966년의 「공간」지 창간으로 이어진다. 공간사목(1971~1977년)에서 형태를 불식하고 난 뒤 한국적 공간의 발견과 확신이 이루어졌다. 범태평양 건축상(1971)에서 그의 공간적 이상은 「궁극공간」의 개념으로 귀착되며, 1980년의 네거티비즘(Negativism, UIA, 동경)은 그의 건축관을 재천명하였다. 서양의 합리적 공리주의의 한계에서 겨룰 수 있는 한국의 공간은 자연과의 융화, 빛과의 생명, 상상과 창조를 위해 확연치 않은 모호함의 여유이다. 김수근의 1971년부터 원서동에서 공간의 제2세대를 구축하고 있었고, 「한국 기술 개발공사」의 프로젝트 책임자급이던 윤승중, 김원, 오기수 등이 독립하여 자신의 건축관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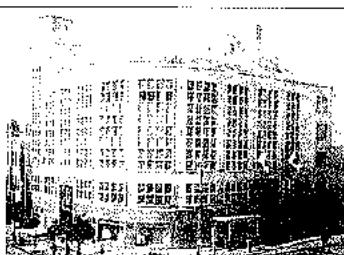
종합건축은 1978년부터 (주)종합건축설계 사

무소로 이승우, 윤석우, 유경철 체제를 이룬다. 김정철, 김정식은 1967년 정림건축을 개설하여 대규모 조직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을 견인하며, 국내의 설계 사무소 조직의 대형화를 촉발하게 한다. 정림건축은 조직 자체의 다면성을 지니고, 모더니즘을 거쳐 후기 모더니즘에 이르는 다원화 양상을 띠게 된다. 그 뒤 해외로부터 수학과 실무를 거친 많은 건축가들이 국내의 건축무대에 등단한다. 이러한 건축가로는 김형만(호주, 시드니 대학원), 강석원(프랑스 국립건축대학, 그룹가), 김종성(미국 IIT 교수, (주) 서울 건축 컨설팅), 곽영훈(미국 MIT, 환경그룹), 전태진(미국 King & King Architects / 예청건축), 이재환(미국 하버드 대학원, 국민대 교수) 등이다. 그밖에 아직 해외에 중심을 두며 국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가로는 김태수(예일대 대학원)의 국립현대 미술관(과천, 1984년), 대한교육보험 천안 연수원, 김병현의 인터콘티넨탈(1988년), 우규승(컬럼비아 대학원)의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설계경기 당선과 최근에 맹활약을 보이는 유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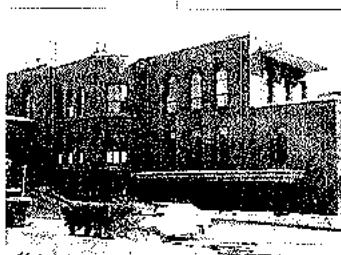
국립중앙 박물관(강릉진, 1966년), 국립부여 박물관(김수근, 1968)에서 나타난 수구적 전통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전통성 및 공간성의 추구와 토착적 건축의 적응에 대한 시도로 이어지고, 이는 김수근의 건축에서 해외 개발공사, 문예회관 미술관(1977~1978년), 샘터사옥(1977년), 강원 어린이 회관(1979~1980), 한계령 휴게소(1979~1982년), 국립진주 박물관(1979~1985년), 국립청주 박물관(1979~1987년)으로 이어져 「공간의 의미」를 일깨우는 전통을 가져온다. 이와 함께 김원이 말하는 한국의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케일과 감각으로서 서정시 이어야 함을 읊 미케 한다. 이러한 것은 50대 이후의 제4세대 건축가에서恒性(恒性)으로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한국건축가 제4세대

세계사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급격한 표현적 경향의 조류는 국제주의 건축의 영향에 겨울 만큼



초오지야 백화점(1937년)



경성제국대학 본부(1933년)



화신백화점(1935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최근의 서구 건축은 이미 **포스트-모던**의 시기를 지나 해체주의와 기술에 기저(基底)한 모뉴멘탈 테크놀로지와 네오모더니즘의 시대에 진입하며, 핵리적 건축의 견고성보다는 조소적 감각의 풍부한 공간과 형태의 체험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프랑크 게리의 건축 등에서 표징되고 있다.

해방후 세대는 문단된 국내 상황에서 불안정하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누리며 성장하여왔고, 일제의 잔재적 교육 체계와 기성 세대의 사고에 부딪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돈과 군사정권과 광주 항쟁과 같은 민주화의 고통을 누리며 시대의 터널을 지나왔다. 보수성의 영향을 완전히 불식하지는 못한 전이적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천년의 세기를 앞두고 있다.

신합리주의의 경향(조성룡, 바로끄빌딩, 1989년)과 정서로서 한국성에 다가서는 시도들이 「비어낸다」는 작업(민현식, 국악고등학교, 1992년), 공간을 외곽의 형식으로 실체화하는 것(승효상, 논현동 주택, 1992년), 공간적 분화의 묘미(김인철, 솔스티스, 1990년), 공간을 디중화하고 중성화하며 전이화(우경국, 여운현, 1991년)하는 건축적 구현의 의지를 나타낸다. 국내의 재료의 선택에는 빈곤하고 구법의 선택이 현정되는 저역에서 범속한 건축을 누리게 된다. 이를 이탈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물성을 재탐색하는 일련의 작업: 장세양의 정릉동 주택(1991년), 백문기의 Attic(1990년), 승효상의 동숭동 문화공간(1996년), 민현식의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1995년), 이종호·양남철의 바른손 사옥(1995년) 등과 최근의 안도 다다오류의 노출콘크리트의 탐닉은 이 시기 건축가들이 공유하는 감성일 것이다.

형태와 기능의 타협적 결과와 추구들은 비교적 여러 건축: 조건영의 JS 빌딩(1990년), 손학식의 두손 플라자 빌딩(1992년), 동정근·이창근의 우원 디자인 사옥(1992년) 등에서 나타나며, 내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계에서 표현의 최대한의 가능성을 누리는 방편이다.

맺음말

숨가쁘게 달려온 20 세기의 끝점에서 다시금

19 세기 말 선진 열강의 강압적인 개항의 요구에 따라 개화기를 맞았던 그때를 생각해본다. 우리가 전래적인 건축과 서구의 건축을 충분하게 접목하여 이식하지 못한 채, 일제 압정기와 일본제국주의의 무차별한 한국성의 말살은 이땅에서 완전히 전통 도시와 취락의 와해를 촉발하게 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타의에 의한 서양 건축의 유입과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건립하는 건축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의 전통 건축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서양인들의 건축 양식에 우월성을 갖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의양품이나 절충 양식의 일시적인 유입은 살피지 않은 채 2차 세계대전과 광복, 6.25 동란 등 계

속적인 불안정 속에서 인정된 진전을 가져올리 만무하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근대화는 1876년 개항을 시점으로 올려잡기보다는 본격적인 한국건축가가 일제에 의한 건축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되는 1930년대부터 모더니즘으로서의 건축의 시작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한 사상과 철학에 따른 건축교육이 시행되어지며, 한국의 거장 건축가인 김종업과 김수근이 팀을 이끌고, 문하의 후계자와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나누며, 조국의 근대화 과정이 이뤄지는 1960년대까지도 한국의 현대 건축은 끊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래적인 장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양식 건축에 참여하였다면 새로운 건축 기술의 이전이 손 쉬웠을 것이다.

재래식 건축과 서양식 건축을 겸하였던 건축가인 심의석(沈宜錫)의 최초의 건축가적 위치와 예를 들어 박길룡, 이천승, 김정수, 정인국, 엄덕문, 김희춘, 이광노, 김종업, 김수근, 윤승중, 장석웅, 김석철로 이어지는 건축설계 집단의 세대별 연속성과 성향은 제4세대에 가서는 희석되고, 다원화에 따른 건축가의 연대와 결속은 여려질 것이다.

한국 건축계가 특히 연령의 계층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조직과 교육체계에 따라 외국에 비해 뚜렷한 패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실무의 체험과정도 전문교육 과정 이후 분명한 패러다임에 거치나, 그것은 비교적 건축사회의 폭이 좁아 한정성을 지니고 있음에 연유한다. 일제 압정기의 관료, 관제적 건축조직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토목의 획하게 가려 그 개선을 못 보고 있다. 일본건축교육의 체제를 따랐던 공과대학 체제의 건축 교육도 개선되지 못하고 금년의 UIA 총회 상정 목전에까지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 건축가들의 조형의사는 합리주의, 낭만성, 한국성과 기술성에 관련되어 있으며, 점차 공간과 토착성의 흰원과 병존이 규명하여야 할 과제이고 제4세대가 추구하는 바이다.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환란을 불러 일으켜 21세기를 앞두고 IMF행을 선진열강에 구걸하였던 것처럼 20세기를 앞둔 개화기의 분위기를 다시금 새겨보는 것이 21세기를 바르게 달려갈 준비이며, 충분한 건축적 역량을 국제화를 앞두고 길러야 할 것이다.

건강한 도시건축, 천년 건축을 가꾸자

A Healthy Urban Architecture, Architecture that Looks Millennium

황기원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by Hwang Gi-Won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

도시화 현상

구한말의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의지대로 근대화를 이루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제의 식민 시대를 거치고, 광복 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척 혼란한 과정을 거쳐온 20세기는 우리에게는 아른바 근대화를 달성한 시대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업화, 사회환경적 도시화를 달성하는 것들이 근대화의 징표인데, 이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화이다.

그리면 도시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 현상을 가리키는가? 우선 도시라는 특별한 생활 공간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결국 기준의 도시가 커지는 현상, 또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다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도시의 인구는 원래 그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 밖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도시의 발생과 성장은 농촌의 쇠퇴와 소멸을 수반한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은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공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의 성장, 상업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의 성장을 달성한다. 그래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된다.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

20세기의 도시화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산업화를 일찍 달성한 선진국에는 이미 19세기부터 도시화를 시작하였고,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가에는 20세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근대시대에 속하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인구가 5천명 이상 되는 도시(대도회라고 불렀다)는 49개로, 여기에 약 57만명이 살았으며 전국 인구에 대비한 도시화율은 7.8%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인구 2천5백명 이상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 보더라도 88개 도시에 약 87만 명이 살았으며 도시화율은 11.8%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한성조차 인구가 19만명, 부산은 9천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 통치하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광복 당시 도시화율은 약 23%(남한 기준)에 지나지 않았다. 6·25동란과 수복, 부흥기를 거친 1960년에는 도시화율이 39.2%, 경제개발과 국토건설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던 1966년에는 42.6%에 이르렀고, 1970년에는 드디어 50%를 넘게 되어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 말에는 도시화율이 90%를 넘고 있으나, 20세기 초에 전 국민 10명 중 1명 남짓한 사람이 도시에 살았다 면 20세기 말에는 이것이 역전되어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한국 도시의 양상

이처럼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오면서 도시국기를 이루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화를 달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몇 가지 도시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도시화가 일어났다. 19세기 말 20만 명밖에 되지 않던 서울이 이제는 천만 명이나 사는 거대도시가 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많은 지방도시들도 인구 수 백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다.

둘째, 연담화가 일어났다. 성곽 등 뚜렷한 물리적 경계로써 바깥과 확연하게 구별되던 전통적 도시의 형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여러 도시들이 서로 붙게 되었다. 이는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패밀화가 일어났다. 도시구역은 확산되었지만 인구와 건축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도시 활동의 강도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고층 건물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 공급 및 배출량의 증가 등 통계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다.

넷째, 환경의 질적 저하가 일어났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녹지 감소, 하천 복개, 역사문화 유산 인멸, 범죄 증가 등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심각하게 일어났다.

다섯째, 인공적으로 만드는 도시가 생겨났다. 작은 고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커지면서 도시가 되게도

하였지만, 1960년대의 공업 도시, 1970~80년대의 신시가지, 90년대의 신도시 등 통일된 계획과 집중적 투자를 하여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다. 기단과 농은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보편화되었다.

여섯째, 도시와 농촌을 묶는 이른바 '도농통합' 도시가 생겨났다. 즉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지역을 통합한 큰 도시·행정단위로 보는 – 들이 90년대 후반에 여럿 발생하였다.

도시 건축의 등장과 변화

근대 도시의 건축

도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도시 건축(Urban Architecture)'은 아니다. 이것은 도시적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물인 동시에 도시적 맥락에 적응하는 건축물이다. 또 그것은 특히 근대화 이후 형성된 도시, 현대 도시의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도시가 생겨난 것은 반만년 이전 이었다고 하니, 도시 건축의 역사도 그에 따라 대단히 오래 되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건축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던 건축물로 등장한 것을 도시 건축이라고 하여야 한다.

근대화와 도시화에 따라 건축 수요가 양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의 기능은 불특정한 다중의 평균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다양해진 도시적 기능별로 전문화되었다. 또 그러한 단순화 확장화된 기능을 '대량 수용' 하는 공간이 보편화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그 공간은 상당히 기계화되었다. 한편 근대 도시계획의 이념에 따라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 통합되고 도로와 필지를 중심으로 그 공간구조가 짜여지게 되어 가로 건축, 필지 건축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 도시 및 건축의 양상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인 전범(典範)이 되었으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전근대시대 한국의 도시 건축

앞에서 본 것처럼 19세기 말까지 한국에는 근대적, 서구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



일제 시대의 도시건축 : 평양 시가지

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많은 도회가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내에 해당하는 성내는 관아 위주의 건물들이 주로 자리잡아 일종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 주거도 크게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상공업 등 근대도시의 주된 기능은 사회적으로 출입을 받았기 때문에 근대적 도시 가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과는 달리 기능별로 건축 형태가 달리 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른바 한옥이 무슨 기능이든 수용할 수 있는 '범용 건축'으로서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 또 건축 규모, 형태, 재료에 있어 사회적 계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그 한도 안에서는 능력만큼 지을 수 있었고, 필지의 형상이나 분포, 그리고 도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근대 도시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지 건축이나 가로 건축은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한국에는 근대적 관점의 도시도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건축이라고 할 만한 유형이 별로 성립하지 않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도시 건축

20세기의 한국 도시 건축은 유감스럽게도 서양식 도시계획에 일본식 도시 조성방식을 혼용한 도시구조가 전국 도시에 적용되던 일제 강점기에 발생하였다. 구획정리사업이 성행하여 가로로 둘러싸인 가구를 만들고, 그 가구 안에 획일적으로 배치된 필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도시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도시공간 구조와 건축 형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많은 법규의 제약을 받는 필지 건축과 가로 건축,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설계, 시공하는 건축이 도시 건축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양식 구조, 재료, 형태로 지어지는 '양옥'이 대중을 이루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근대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된 80년대 이후부터 재개발에서 보듯 건축의 수명이 경제성에 의해 판가름되는 건축, 르 고르비제가 현대 도시의 모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듯 가로와 필지를 무시한 단지 건축 내지 슈퍼 블록 건축,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건축, 여러 기능이 한 건물에 수용되는 복합 건축, 첨단 제어 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건축 등 현대 도시의 건축 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건축이 도시 건축에도 파급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범용 건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 건축을 대표하는 유형은 '범용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로변에 자리잡은 100평 미만의 소필지에 5층 이하로 지으며, 평면이 단순하고 철근 콘크리트와 슬래브 구조를 택하고 있는



20세기 말의 범용 도시건축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범용(汎用)이라는 말이 가리키듯 무슨 용도든지 세를 내고 입주할 수 있고, 매우 평범한 건물이라서, 한국 도시의 가로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한 건물에 매우 많은 업소가 입주하므로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건물의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임의로 변형하므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것이다.

이것의 변형은 근린생활시설만 아니고 주거 기능이 함께 수용된 '주상 복합 건물' 일 것이다. 오히려 그 원형에서 우리 도시 건축의 또 다른 유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층 건물인데, 길에 면한 앞쪽은 점포, 뒤쪽은 주거가 배치된다. 음식점처럼 이 주거 공간은 때때로 점포의 연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점포 공간은 때때로 주거의 연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건물들은 가로에 면한 입면만 유난히 강조하는 파사드 건축, 언제라도 입주 가능이 바뀌는 한시 건축, 건물의 전면 공지나 보도를 점포의 연장이나 주차 공간으로 쓰는 임시 건축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 자체에 있거나 보다는 유동성, 한시성, 영세성이 강한 우리 도시의 경제 구조,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이 모두 우리가 경험, 축적한 근대화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환경 건축의 등장과 변화

근대 도시의 환경과 건축

도시나 건축이나 모두 하나의 분명한 환경이다. 건축은 그 자체가 환경이면서 도시라는 큰 환경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면서 건축은 도시라는 큰 환경 속에 건립되면서 그 존재 양식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 건축은 그 형성 과정에서 특히 '환경 건축'이라는 또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니, 그것은 19세기 서양 도시와 건축에서 주창되어 CIAM을 거쳐 오늘날까지 흐

는을 잃지 않고 있는 '햇빛', '바람', '푸름'이라는, 건축이 갖추어야 할 환경의 질로 대변된다. 그래서 위생, 조명, 공기 조절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유지하는 것이 건축 자체의 과제라면 이 건축들이 도시의 공공환경, 또는 이웃한 건축에 부정적 환경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건축의 과제이다. 이러한 사고는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보다 분명한 조건으로서 건축에 부과된 것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동시에 진행된 근대화 이후이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성립되었고, 환경이 의식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환경의 질이 무척 나빠져서 인간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환경 건축

20세기 초 서울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환경 오염에 대해 공장지대나 연탄 하적장 등을 제외하면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고, 공장 굴뚝이나 절개자는 오염과 환경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70년대를 살았다. 학계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논하고 국가의 제도에서 환경 관련 법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환경을 화두로 삼는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20세기는 매우 급격한 '환경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건축은 어떠한 적응을 해 왔고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건축은 건축가는 환경의 의식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 어쩌면 사회 전반의 문제일 것이다.

환경 건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건축은 건물 자체의 환경을 만드는 작업에는 유능하고 열심이지만 환경에 어울리는 건축을 만드는 작업에는 아직 유능하지 못하고 소홀하다. 건축의 서비스를 인텔리전트화하면서 실내 인공환경을 치밀하게 조성하고 통제하는 작업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도시 환경의 질적 유지와 향상을 위해 외부에서 건축에 대해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요구는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폐기물의 배출 등을 따지는 환경 관련 요구, 자동차 등 교통 발생량과 주차를 따지는 교통 관련 요구, 건물의 형태, 음영, 프라이버시, 조경, 예술품 설치 등을 따지는 경관 관련 요구 등을 건축을 좋게 만드는 요구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태양열이나 지열 활용 등 에너지 효율 및 지원 절약형 건축, 기존 건물의 재순환, 건물 배치, 조경 등 친환경 내지 환경친화적 건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설계

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건축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처럼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위한 건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축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건축, 건축과 건축이 모여 이루는 도시적 환경에 적응하는 건축,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회고와 기대

20세기는 격동의 시기이면서 범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시기이다.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근대화를 이룩하고 그럭저럭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 하지만 우리 도시와 환경에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양상이 공존하고 있다. Y2K라는 말이 잘 나타내듯 근시안적 근대화, 일본 사람이 만든 '건축'과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그렇듯 외세와 타의에 의해 시작되고 굴절된 근대화, 건축학과가 공과대학에 안주하고 도시학과가 도시공학과로 전환하는 경향이 그렇듯 과학 기술에만 의존하는 근대화, 대충 설계하고 대충 시공하는 건설 악습이 그렇듯 순서와 중요성이 뒤섞인 근대화의 양상은 우리 도시와 환경을 채우고 있는 건축에서 여실히 보여진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으나, 20세기를 미감하는 시점에서 맞이한 IMF 위기는 우리에게 지난 한 세기에 숨 가쁘게 이룩한 우리 삶터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고 추스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1999

년은 경쟁력 때문에 환경이 소홀히 되고 도시가 아무렇거나 재개발되면서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이 오히려 소홀해지기 쉬운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2천년 대의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환경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유사아래 처음 맞이하고 앞으로도 좀처럼 있기 어려운 '건축문화의 해', 이 1999년은 우리 삶과 삶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호기이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건축도 자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자 공간이고, 그 환경의 하나인 도시는 모여 사는 문화이고, 건축은 가장 원초적인 환경이다. 인류 최초의 건축인 비벨롭이 베림을 받았지만 인류의 또 다른 구원은 스투파와 솟대에 있고 인류 최초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았지만 인류 궁극의 극락은 여전히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건축가들은 오랫가는 일군이라는 아키텍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새겨 보자. 아울러 인류 최초의 조경인 에덴 동산이 있었고, 우주선 지구호의 원형인 노아의 방주가 생태계를 재건하였으니, 건축을 짐만 짓는 건축(Building Architecture), 도시 속에 집 짓는 건축(Urban Architecture)으로만 여기지 말고, 건강한 대지를 가꾸는 조경(Land Architecture),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조선(Naval Architecture)의 지혜도 받아들이면서 보다 큰 건축, 보다 넉넉한 건축을 해 보자. 우리도 환경과 어울리면서 환경을 빛내는 건축, 오래 될수록 더 좋아지는 건축, 오래 묵어도 늘 새롭고 새로 지어도 살기운 건축, 천년 건축을 해 보자.

20세기 한국건축의 분야별 분석 / 건축과 구조 · 기술

19세기로 돌아가자 A Return to the 19th Century

이창남 / 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모방과 표절, 그것도 곁에 보이는 깁데기만을 흉내내다가 한 세기가 휘파 지나갔다고 하면 나무랄 사람이 있겠지만 차라리 이 같은 망발 때문에 몰매라도 맞을 수 있다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우리네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공짜 배기 관광여행 기회가 있어서 중국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천안문, 만리장성 등 그림에서 보던 대로 과연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너무나 지루하다. 어떻게 재미없는

동일한 패턴을 어쩌면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수 있을까? 가끔 지나치게 꼼꼼하고 섬세한 수제품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건축물의 패턴으로 말하면 방송국의 가설 세트처럼 볼 품 없고 거칠다. 한마디로 실망했다. 먼저 보고 온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감탄사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우리네 건축 유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식막하다.

그들의 것이 표정 잃은 박제라면 우리 건축문화 유산은 살아 움직이는 통통한 강아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서 이루

어 놓은 건축유산 중 자신 있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창피하다. 면목이 없다. 우리 세대도 아들 작품 제작의 주역임을 부인할 수 없으니 누워서 침뱉기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저 겉만 보고 베끼는 일에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죽이고 해치우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19세기로 돌아가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특식을 먹어보고 집에 와서 흉내내는 정도로는 부엌에서 땀 흘리는 주방장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일산 신도시로 가는 길목 “화정”이란 곳에 칼국수 집이 있다. 옛날 한 동네에 살던 중학교 교사 부부가 새로 낸 음식점이다. IMF 시대, 남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인데도 그 집만은 문전성시다. 내막을 들어보니 수긍이 간다. 두 내외가 몇 달을 두고 밤낮 없이 한 트럭 분의 밀가루로 만들고, 맛보고 버리는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국수발의 쫀득거림과 색깔, 그리고 국물 맛의 신비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건축 계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었다. 잔뜩 부풀은 거품 경제 속에서 질이야 어떻든 내 놓기만 하면 팔리는 아파트며, 사무실이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모방하여 짓고 나서 10년만 지나면 어차피 지상 건축물 가격은 “0”으로 전락하고 땅값만 남는다. 건물의 수명은 길어야 20년인데 무슨 정교성, 내구성이 필요하겠는가? 이제는 건축물도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이다.

어찌다 이상스럽게도 튼튼하게 잘못(?) 지은 집이면 오히려 헐어버릴 때 고생만 할 뿐이고, 재건축 진단에서 재수 없게 “안전” 판정을 받는 날이면 오히려 돈벌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고 마는 아이러니도 겪기 마련이다.

나도 그 범인중의 하나다. 그렇게 얼버무릴게 아니라 주역이며 괴수다. 그 동안 매년 100~200개의 크고 작은 건물의 구조설계 계산을 해 치웠으니 얼마나 거칠고 무성의했겠는가? 그걸 구조계산서, 도면이라고 보고 시공한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는가?

여기 저기서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아픈데 없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듯이, 발뻗고 자도 될 만큼 안전을 담당하는 구조물도 많지 않은 듯 싶다. 속도를 줄여보자. 19세기로 돌아가자.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래 전 일이다. 미 8군 영내의 엔지니어링 파트에 들른 적이 있다. 한국 사람이지만 백발의 기술자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제도판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화장실 문짝 한쪽에 부착할 옻걸이로 1:1 축척이었다. 그 당시 월급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에게 그따위 사소한 일을 시키는 미국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 방법이 오히려 정상적이었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어찌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마음놓고 소지품이나 외투를 걸어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된 데가 많지 않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이고 어우러져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자. 겉으로는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외벽에 화강석이나 이태리 대리석을 붙이지는 않았어도, 그 내부 구조구설에는 건축기의 정성이 들어있다. 그들의 집과 우리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하나하나 뜯어보고 모방을 하든지 창작을 해야 하겠다.

작년 말 서울 한 구석에서는 거대한 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 사무실에서 구조설계를 한 것이다. 관례대로 시공도는 다른 데서 그렸고 현장 감리는 구조를 전공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몫이었다. 미국사람이 기본설계를 했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조방식인데, 구조설계 과정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것이므로 불안한 나머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사 감리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기술자가 구조 감리를 겸하게 된 것이다.

연말이 되어 어수선한 사무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만사 제쳐놓고 현장에 나오라는 전갈이다. 새벽 2시경 “꽝!!” 하는 소리에 놀라 조사해 보니 주 트러스 하현재의 이음 부위가 찢어져서 벌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는 눈이 온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즉시 구조계산서를 뒤적거리 보았으나,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초점이 맞지 않는다.

그 부재는 무려 350ton이나 되는 인장력을 받고 있어서 어렵더라도 이음을 현장 맞댄 용접으로 하도록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도에는 두 부재에 이론 바 플렌지를 붙여서 볼트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검토 결과 그 이음 내력은 필요한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이다. 또 다시 부끄러운 사진이 해외로 전송되기 직전 상황이었다.

안전 불감증이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장 용접이 불편하면 원 설계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될 터인데 무슨 이유로 안전 검증도 없이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철골구조물에서 부재의 이음과 접합 설계는 어떤 면에서 주 부재의 선정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볼트 이음이나 접합일 때는 모재의 단면을 손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선정

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부재도 이음·접합 설계 도중 주 부재를 재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른 바 디테일 엔지니어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것이다. 한 템포 늦춰보기로 하자. 19세기로 돌아가자.

이태리나 프랑스에 가보면 그 옛날에 지은 집이나 다리들이 지금도 그야말로 고색 창연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왜 그렇게 좋아 보일까? 물론 주변 경치와 전체 모습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구석구석 접합부위의 상세 처리가 예술작품 같다. 그들이 오늘날 자랑하는 하이테크 구조물도 자세히 뜯어보면 묘한 상세 처리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두나 기방, 주머니칼이나 만년필은 너무나 정교해서, 사용상으로는 기능을 다 했어도 어쩐지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나도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멋있는 접합 상세를 채택하려고 노력중이나, 알고 보니 그 일을 담당할 엔지니어나 제작할 수 있는 공장, 기술자가 전무하다는데 놀라고 밀었다. 철골부재를 싹둑 잘라서 용접을 하거나, 볼트를 채우는 일 말고 조금만 까다로운 일을 시키려 하면 단계마다 추가로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무엇 좀 해 보려면 초장부터 저항이 온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린 건축도면을 살펴 보면 그야말로 예술작품이다. 또 다시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19세기로 귀환할 각오를 갖자.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 줄 안다. 그래서 조금씩, 한 단계씩이나마 시도해 본다. 우선 주강 제품(보통 주물이 아닌 강철을 부어서 만드는 것)을 구조에 활용하는 일이다. 철골구조라면 당연히 같은 단면의 직선 부재를 잘라 맞추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곡면과 곡선을 자유 자재로 구사하는 방법을 연습중이다. 또한 보강 방법이 간결하고 별로 훈련받지 않은 단순 노동자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라고 자처하는 기술자들이 너무나 오만 방자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말단에서 제작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의 사정을 너무나 몰랐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저 과거 선배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전용하고 이른 바 표준 상세라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오는 불경제성과 어려움을 강요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특히 구조물 보강 현장 작업의 어려움을 눈여겨볼 기회가 있었다. 작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애로 사항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구조 보강공사가 현재 입주

해서 사용중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의 많은 저항 요인과 부딪친다. 때로는 천장을 전부 뜯어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천장 위에 설치된 냉난방 덕트나 전기 배선 등을 전부 철거했다가 보강공사가 끝난 후 다시 부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탄소섬유나 강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 부착물을 제거한 후에도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고 청소하는 번거로운 일을 감수해야 한다. 소리가 시끄럽고 냄새와 먼지도 난다. 이 같은 어려운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강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랜 연구 끝에 제법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신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설계해서 적용하려 했으나,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처음 하는 일의 실습장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더 어려운 일은 새로운 공법을 소화할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껏 용감한 시공자가 있어서 고치고자 때려 보면 돈키호테 식으로 의욕만 앞서고 믿을만한 구석이 없는, 그래서 나 역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딪치는 문제점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과거 하던 식으로 해도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사서 고생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일에 투신할 엔지니어가 없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웠던 IMF 이전 얘기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제 위기가 닥쳤고 이렇게 말하면 육 먹을 것이지만 길게 보면 지금의 고생은 앞날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일 자리가 모자라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시비 아까운 줄도 알게 된 것이다. 외국사람과 협동하는 것을 현상설계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는 공공건물 발주자도 있었으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마음놓고 제안해 보는 것이다. 19세기로 돌아가자.

뜨개질을 하고 수를 놓는 것과도 같은 정성을 들이는 설계도서가 필요한 때이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뱉어내는 구조자들의 조합을 자랑하는 무책임과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자.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란 무엇인가

What is ARCASIA?

제10회 아카시아 토론회(Tenth ARCASIA Forum)가 본 협회(KIRA)주최로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의 기술, 전통 그리고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16개 회원국 대표단과 행사관계자, 그리고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들 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제 토론을 통한 기술교류 및 건축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토론회와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아시아건축상 시상식과 각종 전시회, 건축답방, 한국건축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ARCASIA Forum 행사에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를테 한국에서의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첨제돼 있는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88년 아카시아대회를 제외하고는 국제관련 행사가 주로 외국에서 열렸던 관계로 직접적으로 행사에 관계했던 인사나 일부 관심있는 국내 건축사 이외에는 아카시아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만큼 관련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관련부분은 민간 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설계 또한 시장개방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는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건축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장보를 토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카시아는 회원국의 현안에 대해 서로의 정보교환과 토론이 있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방세계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ARCASIA Forum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ARCASIA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돋우자 아카시아의 연혁과 성격 그리고 관련행사 및 회의구성 등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또한 지난 85년이후 우리 협회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활동한 내용 등을 정리해 이번호부터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주)

용어 및 학술행사와 주요회의들의 의미

▣ 아카시아(ARCAS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는 아시아지역의 각국이 자국내 건축사들의 모임인 협회차원에서 회원이 되어 아시아국간의 건축활동의 교류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 모임으로 해마다 모이며 공식언어는 영어다. 동아시아 3개국과 타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영연방국가(Commonwealth)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어는 모국어나 다름이 없다.

▣ 주요학술행사 (해마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아시아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며 각각 격년제로 열린다.)

아시아건축사대회(ACA,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짹수 년도에 열리는 학술대회로 회원국들간의 학술 및 작품 발표와 토론을 통한 교류의 장이다. 1998년 제8차 대회까지 여덟번 치루었다.

아카시아학술토론회(ARCASIA Forum): 짹수 년도에 열리는 학술대회로 회원국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 또는 유명건축가들의 학술 및 작품발표와 토론의 장이다. Forum은 1999년 올해 열번째를 맞으며 우리 협회가 주최국이다. 이번 제10차 학술토론회 주제는 Technology, Tradition and Architecture in ASIA(아시아의 기술과 전통 그리고 건축)이다.

▣ 주요 회의

행사들을 원만히 치루어내게 할 뿐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학술행사 시작 전에 회원국 협회의 공식대표들이 모여서 약 이틀에 걸쳐서 미리 각국에 보내진 전년도 회의록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항들을 논의한다.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 이사회(ARCASIA)는 의결기구로 회원자격 및 차기대회 개최지 등을

결정하고 회장단(Office Bearers, ARCSIA Board)을 구성한다. 이사회는 격년제로 시상하는 아카시아상을 결정한다. 공식대표는 회원국 협회의 회장이나 대개는 국제위원장이 대행한다.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ARC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교육위원회(ACAE)는 회원국 위원회 대표들이 자국건축교육에 대한 년간 활동보고를 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협의, 회의 결과를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교육위원회는 격년제로 열리는 건축학도 캠버리 및 아시아 학생 건축상을 주관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건축교육이라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 졸업 후 전문화된 훈련과 개발, 건축사로 등록한 후의 지속적인 전문화의 개발 등을 다룬는데 특히 전문화 훈련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 그리고 학점상호 인증제도로 학생 및 교수들의 상호교환에 관한 항목들도 협의한다. 최근에 들어 아시아지역 건축대학 학장단 회의(CODHASIA)을 결성하여 교육위원회와 연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관련행사 및 회의

□ 학생잼버리

건축학도 캠버리대회(ARCSIA Student Jamboree): 학생잼버리는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짹수 해에 함께 열리며 회원국의 건축과 재학생들이 모여서 작품발표 등을 통한 교류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공모전 수상자를 두명씩 파견해왔다. 캠버리대회가 없는 홀수 해에 선발된 학생들은 대표단과 함께 가서 개최국에서 제공하는 관광 및 학술토론회에 참석한다. 우리협회는 1988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함께 제2차 건축학도 캠버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ARCSIA Award): 여러번에 걸친 이사회 의 결의 끝에 회원국의 우수작품들을 분야별로 수상하기로 하여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짹수 해에 시행해 왔다. 1992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시 제1회 아카시아건축상을 시상했다. 지역성이 우수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정대상 작품은 크게 네 개의 분야로 주거시설(Residential), 공공시설(Public Amenity), 산업시설(Industrial Building), 문화재보전 및 보수(Conservation)이다. 주거시설분야는 단독주거와 공동주거 부분으로 나뉜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ARCSIA Student Award): 최근들어 어렵게 회원국이 된 신일본건축가협회(JIA)가 발의하여

1996년부터 내는 기금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짹수 해에 건축과 학생들을 위한 작품상을 시상하고 있다. 미리 테마가 주어지며 행사시 전시회를 한다. 기금은 일본화 30만 엔씩이다.

□ 관련 회의

아시아건축대학학장단협의회(CODHASIA, Council Of Deans and Heads ASIA): 건축학교(School of Architecture)체제를 갖춘 나라들끼리 발의한 모임으로 지난 1994년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시 필리핀이 주제하여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평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Council'일 수는 없고 아시아의 하나의 기구(Arm)일 뿐이다'라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교육위원회(ACAE) 대표자들이 교수이다 보니 이 모임도 참석자가 겹치게 되어 한정된 시간 내에 회의를 하다보니 서로 회의실을 나누어 쓰는 해프닝도 가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건축학교체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학점인증의 문제 등에 따라 차츰 변하고 있다.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소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설계학점 등의 인증제도에 관해 협의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대로라면 WTO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설계학점과 너무도 차이가 나서 국제사회에서 인증하는 건축사로는 자격이 안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시장은 곧 개방이 될 예정이므로 우리협회의 회원들은 국제사회의 추이를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시아는 이를 대변하여 국제건축가연맹과 계속 협의중이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영연방 국가들에 의해서 발족이 되다 보니 국제적인 회의를 자주할 수 없으므로 한번 모였을 때 효율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대개는 다음의 모임을 가진다.

영연방 건축사협회이사회(CAA Council Meeting):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란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과거 영연방국가들의 건축사협회를 말하며 우리 협회는 회원이 아니므로 대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가를 협회에 보고할 뿐 공식적인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국제건축가연맹 제4지역회의(UIA Region IV): 이들은 또한 국제건축가연맹 제4지역에 모두 속하므로 대개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시 제4지역회의를 한다. 제4지역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대부분이 속하며 북한도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IA는 건축가협회(KIA)가 회원 협회다. 건축가협회가 이 회의 만을 위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리 협회가 참관인으로 참석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준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오래

전부터 양쪽 협회의 국제위원회는 통일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대부분은 통일되어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국내에서는 어찌되었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협회인 신일본건축가협회(JIA)를 약 10여년 전에 만들었다.

친교행사와 관광

▣ 친교행사

개막식(Opening Ceremony): 건축사대회나 토론회의 전야제이다. 개막식에서는 대체로 주최국의 전통적인 것이나 내놓을 만한 공연들을 제공해 멀리에서 온 손님들을 환대한다.

우정의 밤(Friendship Night): 각국의 우의를 다지는 친교의 밤은 각국이 장기자랑을 하며 서로 교류한다.

폐회만찬(Closing Dinner): 폐회를 알리는 저녁식사로 이듬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비교적 조용한 공연 속에서 만찬을 한다.

▣ 관광행사

일일관광(Day Tour): 주최국의 전통건축이나 현대건축들을 중심으로 건축적으로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탐방하는 행사로 네다섯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가자전원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배우자관광(Spouse Tour): 부부동반 방문회원이나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참관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의참석중의 공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볼거리나 쇼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전관광(Pre Congress/Forum Tour) 및 행사후 관광(Post Congress/Forum Tour): 행사전이나 후에 시간이 있는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약 일주일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건축적으로 우수한 곳 및 마을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박 3일~5박 6일에 걸쳐 주제별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개는 모든 회의가 끝나고 가벼운 기분으로 주최국의 풍광을 둘러보며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아카시아의 설립목적과 의의

1984년 제1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우리 협회가 참관단체자격으로 다녀온 후 국제위원회의 김지덕회원이 쓴 보고서(건축사 1984. 11.)를 참조하여 중요한 항목만을 소개한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아시아지역의 건축사들은 자국의 지역적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식민지 영향의 껌질을 벗고자 하는 와중에서 심각한 고민거리들로 궁지에 직면하여 있

었다. 대다수 아시아지역들은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그들은 세계적인 차관단체나 공업선진국이 자신들 나라 취향에 맞추는 초점과 규정을 감수해야 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요구항목이나 개발국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선진산업국의 경제정책전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 경제원조나 차관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는 각양각색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와 유산을 연결시키려는 공동 열망의 이해를 통한 어떤 팔연의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어 아시아지역의 건축사들이 지역의 공동문제와 요구사항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나간 것이다. 연혁에 대해서는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1967년 최초의 6개국이 모여 창설위원회를 열고 1970년 명칭을 정하고 그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1984년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현재 회원국은 16개국이며 1개국이 입회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과거의 일본은 이러한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라고 거절되었으나 지금은 회원국이 되었고 대만은 처음에는 참여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회원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Architect(건축가/건축사)를 지칭할 때에는 당연히 실무건축가 즉 건축사를 말한다.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실무건축가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가 실무를 하기도 한다. 명예를 떠나서 실질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건축가들이 학생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점인증제도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가가 참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건축사가 참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는 우리 협회가 공식회원협회이므로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는 8천여 건축사를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대표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아시아건축사대회(ACA)나 아카시아학술토론회(Forum)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어왔다. 개발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아시아의 도시들을 안타까워 하며, 영혼을 간직한 도시라든가 아시아건축사들의 주체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토의를 해왔다. 금번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제10차 토론회에서 아시아의 기술과 전통에 관하여 아시아국가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회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카시아를 소개한다. 우리협회의 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동시통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글/조인숙, 본협회 국제위원·다리건축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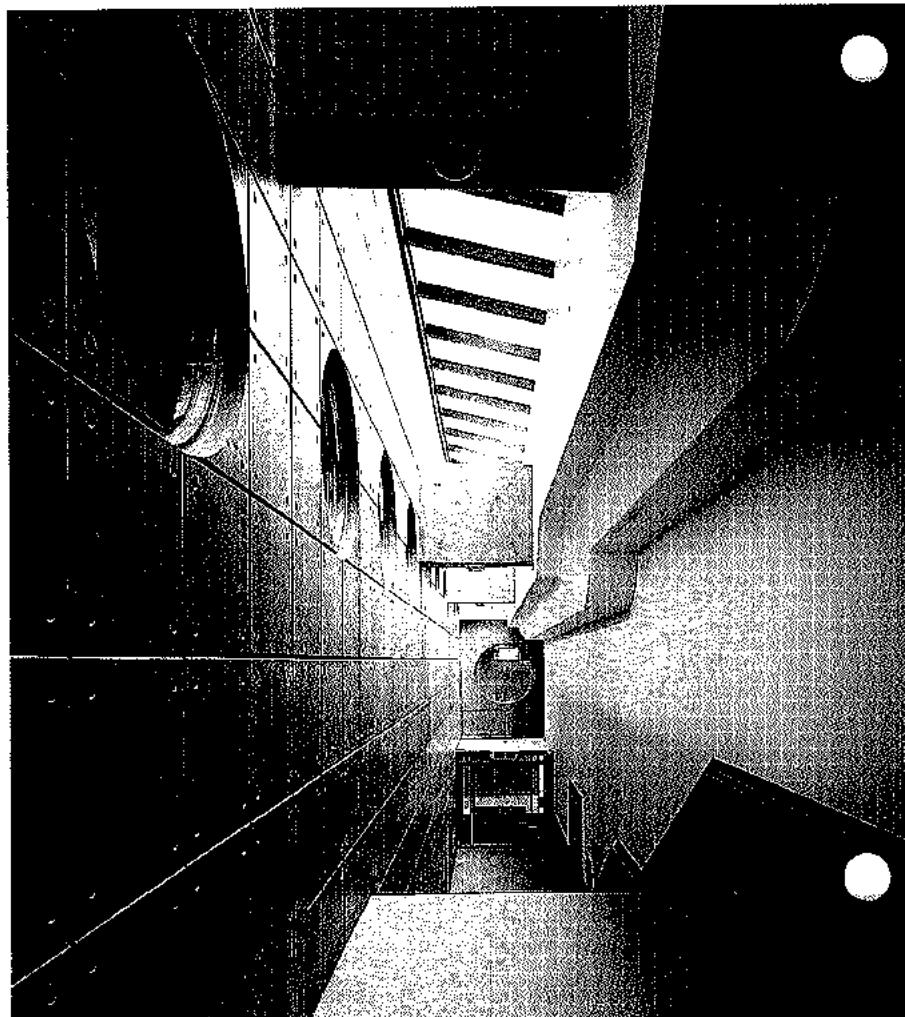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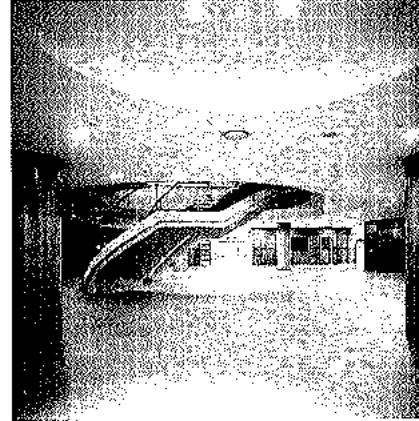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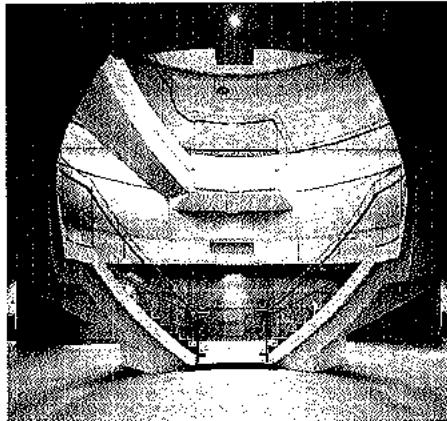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7 연구동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주) 헤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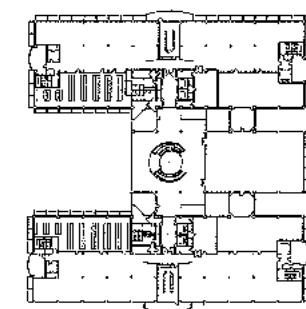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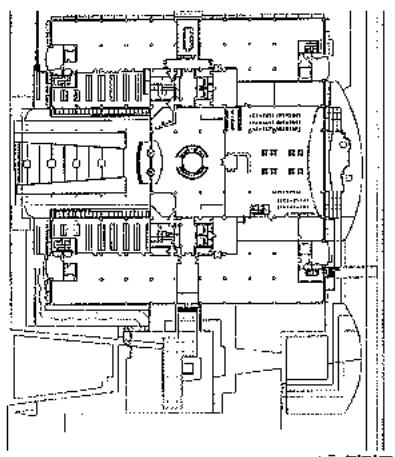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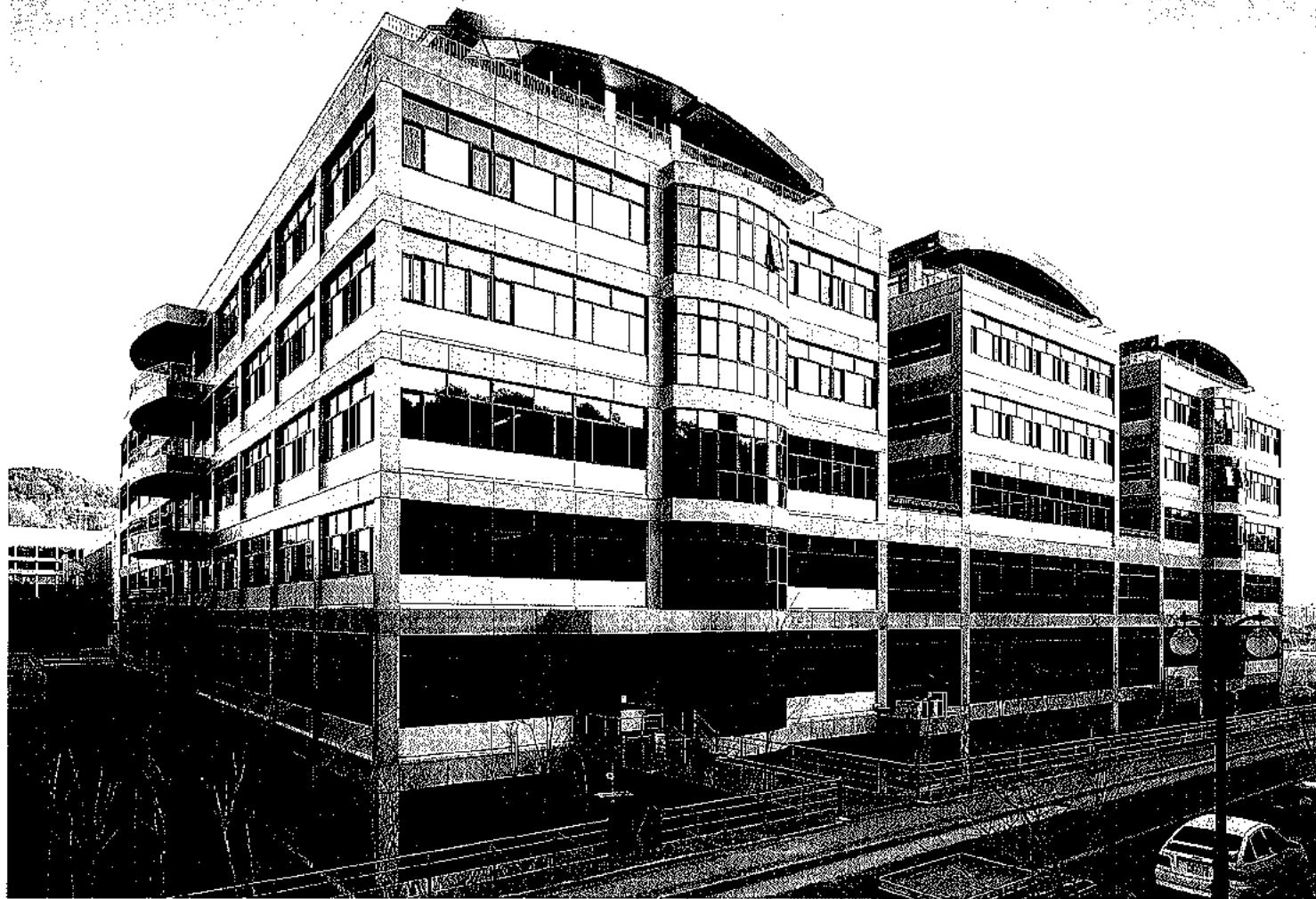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시대의 구현을 위한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계획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개발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연구개발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부족한 연구 실험실과 연구 지원시설을 수용하여 연구환경을 향상시키고 기존 건물 군과의 조화 및 정보통신 연구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다.

메인 로비를 중심으로 3면의 연구 실험실을 두었다. 저층부에 연구 지원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연구 실험실을 둘으로써 수직적으로 기능을 분리하였고, 능률적인 동선처리와 쾌적한 공간창출로 연구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실을 하나의 모듈로 Unit화 하여 Unit로서의 가변성을 부여하였다. 홀 중앙에 원형의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연구 실험실에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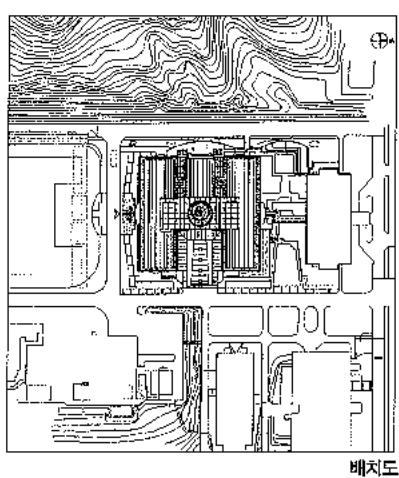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대지면적	339,416.20m ²
건축면적	18,817.20m ²
연면적	88,931.96m ²
건폐율	5.54%
용적률	20.06%
규모	지상 5층, 지하 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Access FL/전도성타일 벽: SGP 마감 천장: 암연흡음텍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고광택면)+알루미늄 쉬트
준공년도	1998.5
사진	김용관



5층 평면도



배치도



퇴촌오리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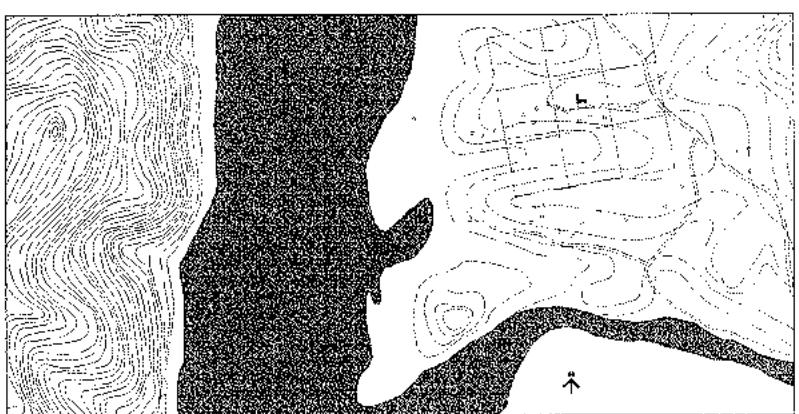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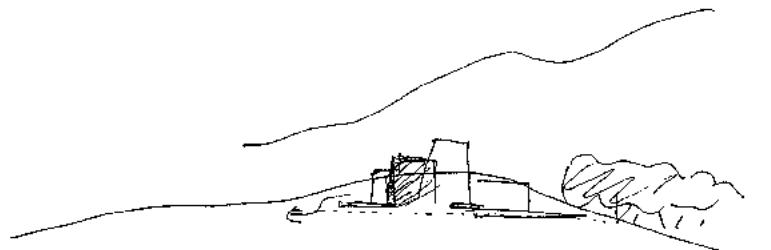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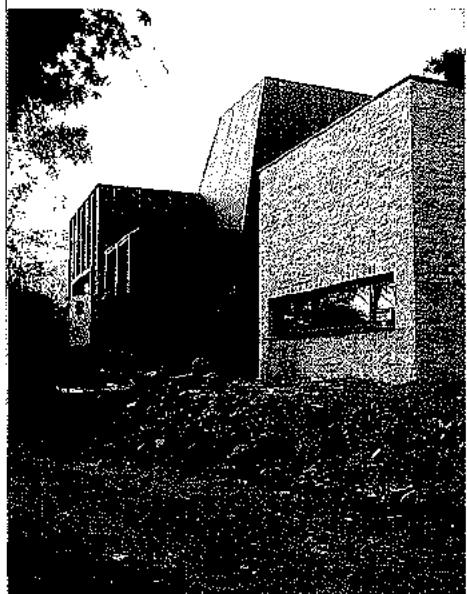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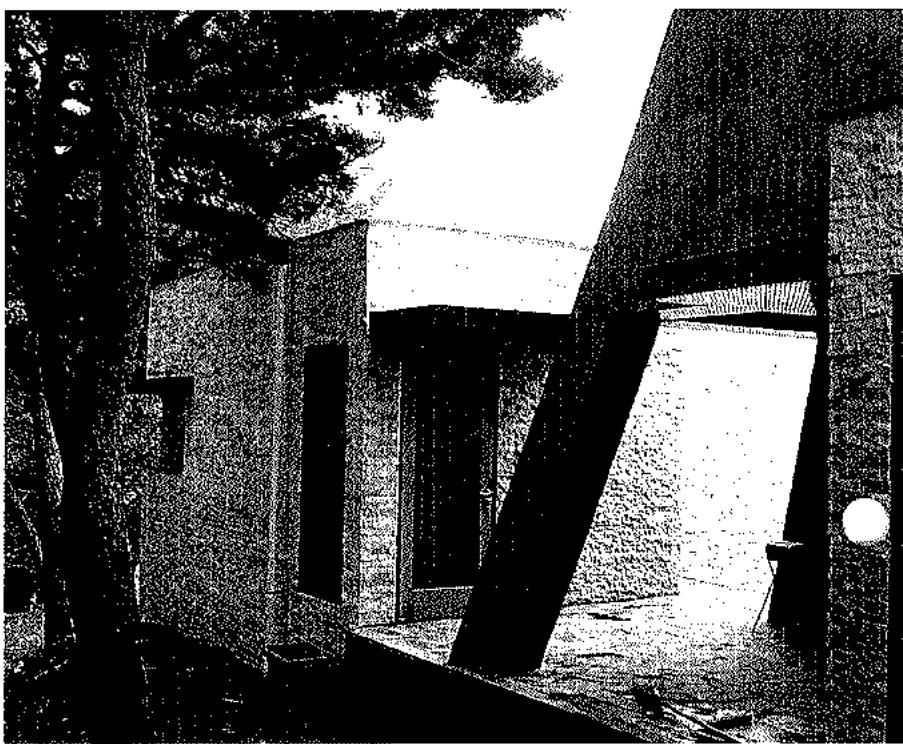
Ori Residence

최수익/건축사사무소 TEAM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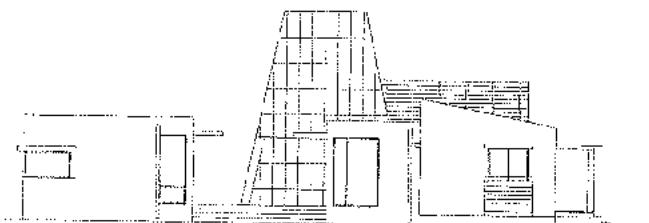
Designed by Choi Soo-i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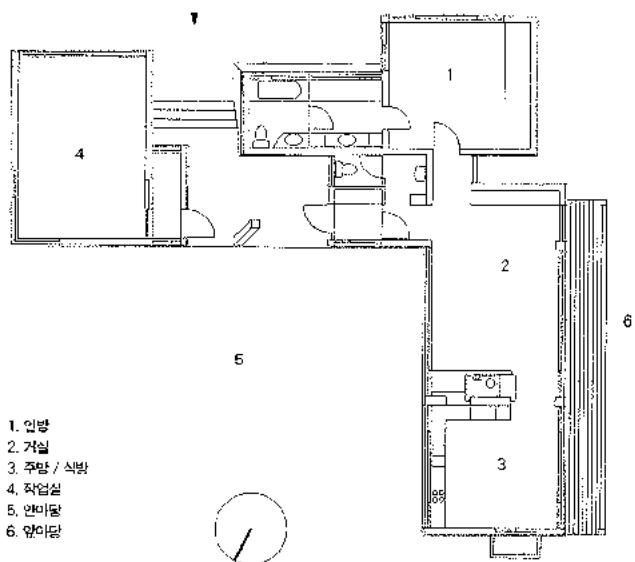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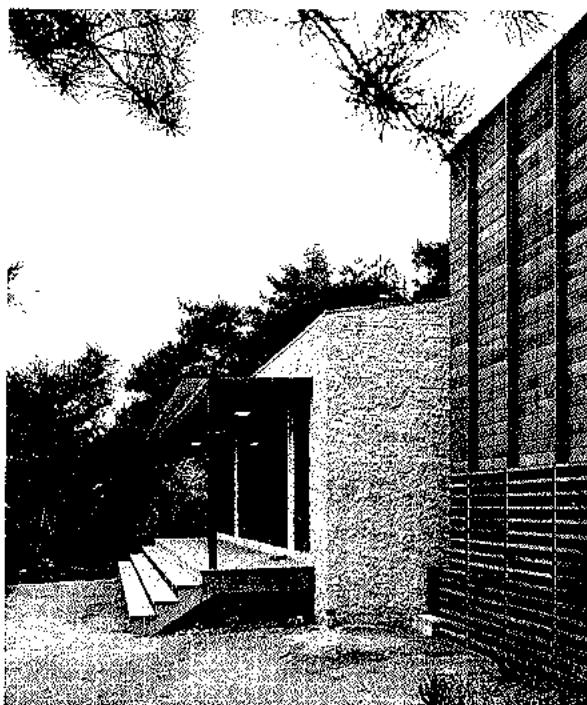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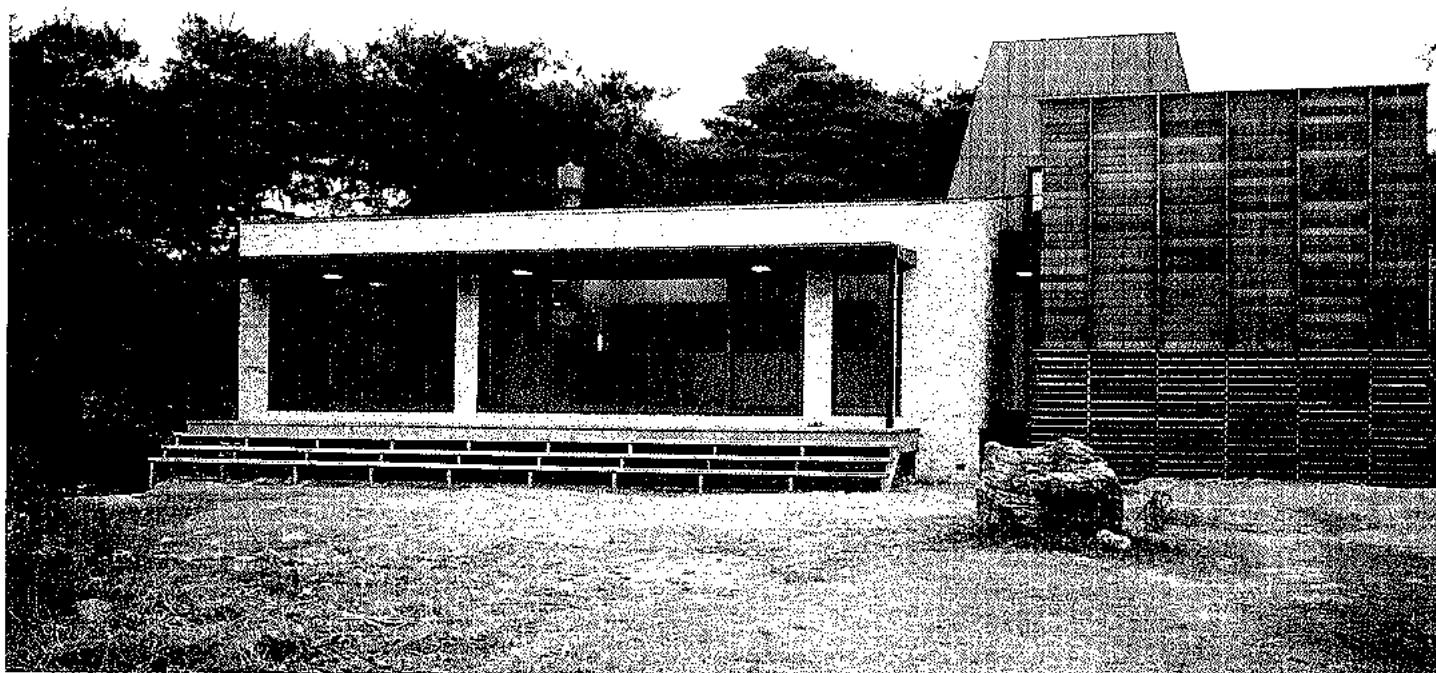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퇴촌면 오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대지면적	262㎡
건축면적	142.86㎡
연면적	131㎡
건폐율	54.53%
용적률	50%
규모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비단-온돌마루, 리노륨 벽-페인트 천정-페인트
외부마감	비단-천연슬레이트 벽-마천석, 대리석, 적삼목 지붕-아스팔트형글
설계담당	김용진, 이현정, 윤철
시공	(주)중앙디자인 최원관
설계기간	1996. 4. - 1997. 9
공사기간	1997. 9. - 1998. 11



매치도



북서측 입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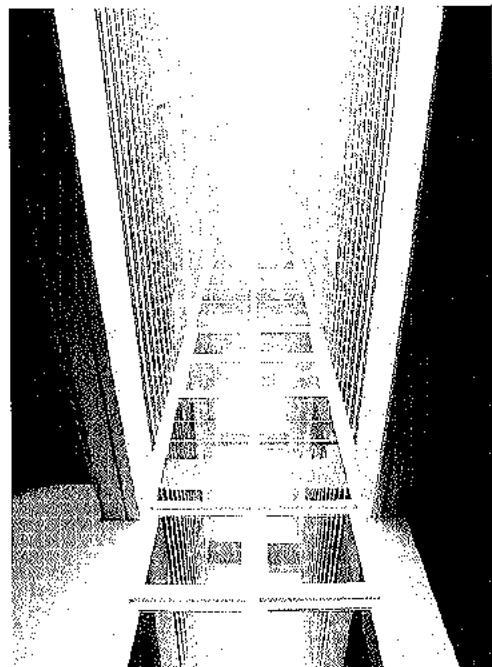
염리동 시티빌 201

Cityville 201, Yumli-dong

손기찬/ 동이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hn Kee-Ch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7번지 100호, 102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연립주택
대지면적	714.00m ² (216.04평)
건축면적	310.11m ² (93.08평)
연면적	1584.03m ² (479.16평)
건폐율	43.43%
용적률	147.39%
조경면적	125.59m ² (38.06평)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사이딩 마감
세대수	15세대
주차대수	10대
설계담당	손관호, 주용운, 신현철, 김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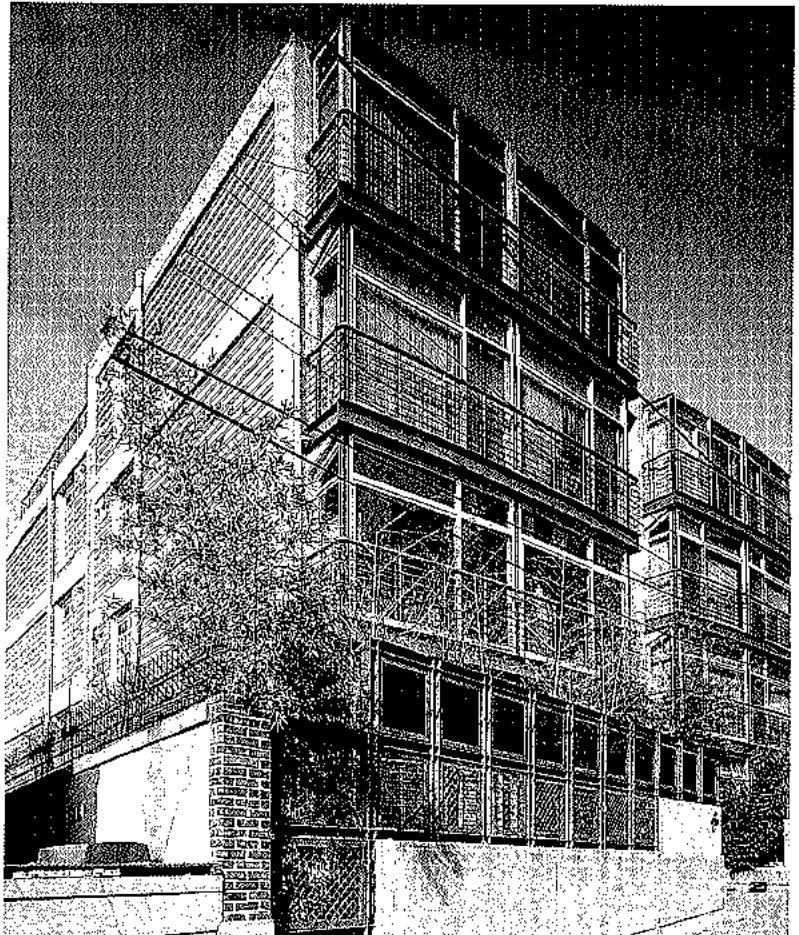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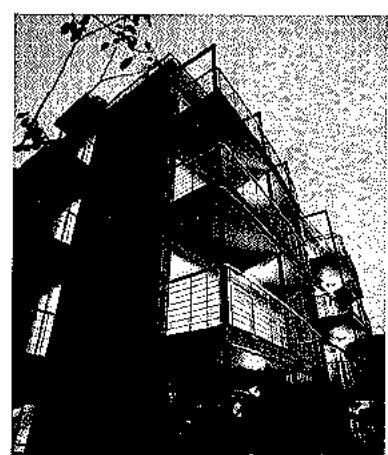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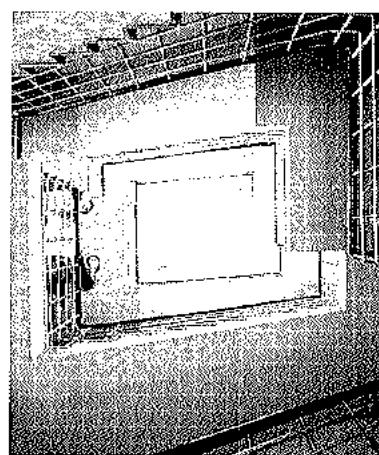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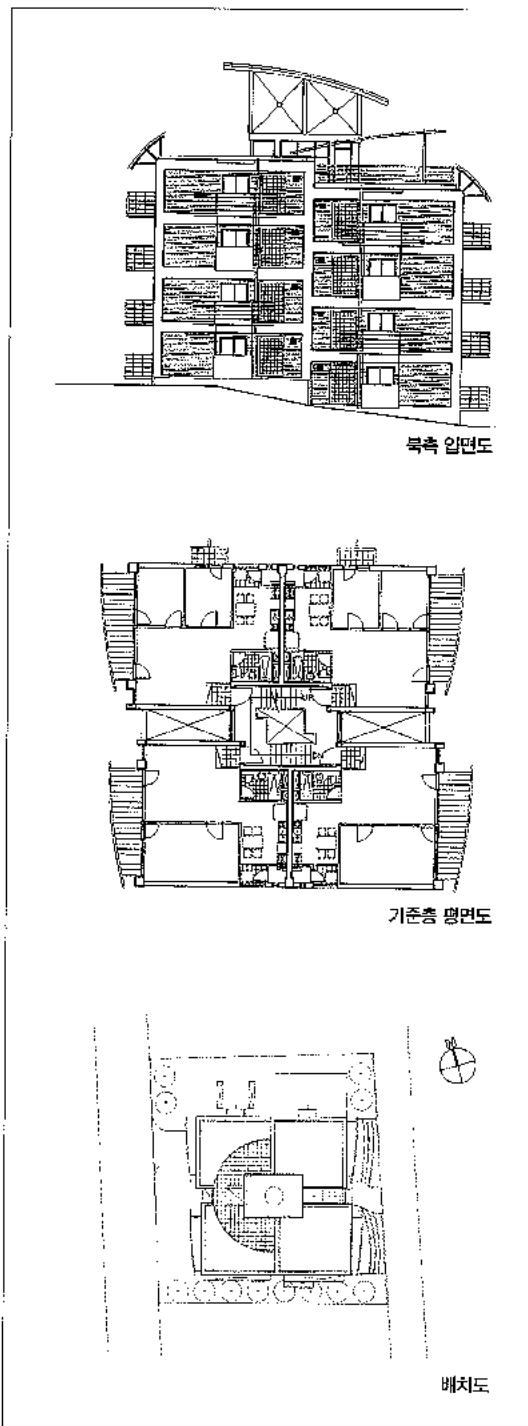
“기로의 미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영역에 대하여 확실한 영역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집 바깥까지도 ‘내부화’ 하여 생각할 것, 자신의 집안까지도 ‘외부화’ 하여 생각할 것, 2개의 영역에 대하여 공간을 동일화하여 생각할 것, 또는 공간을 통일하여 생각할 것이 요구된다.

우선 자신의 집을 ‘내부’의 공간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도로는 ‘외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공간영역을 얼마나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 전면도로와 같은, 자신의 집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내부화하여 ‘내부’로 생각해 본다. 다시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둘리 안까지를 내부화하여 ‘내부’로 생각한다. 이렇게 차례로 내부화하여 생각할 때, 어디까지를 내부화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외부공간의 미학』 중에서 -요시노부 아시하라-

내외부 전이공간으로써 계단이라는 것도 두개의 레벨을 연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평면상의 움직임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상당히 특이한 공간적 요소가 된다. 계단에 들어 서면 공간의 입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계단이라는 요소를 감춰두는 것보다 중요한 흐름위에 둘으로써 공간변화의 특징적인 요소를 갖게하여 집 전체의 열림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계단은 무한히 전개되는 외부공간(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어떤 질서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일정한 목적을 지닌 인위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일부로 의미심장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한계설정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지만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고자 한다. 앞뒤, 상하의 도로로 나눠진 지형에 순응하여 반층씩 레벨차이를 두고 넓다란 선큰을 둔 지하 다목적실로, 무한히 펼쳐진 옥상 테라스로 번져 나가고자 한다. 진정한 외부공간이란 덮개가 없이 열린 공간만이 아니라 개구부를 통해서 공간의 관통(Penetration) 또는 투과(Permeation)되어서 연속된 공간도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집할주거에는 방 하나의 폭만큼의 스판을 기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경제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움직일 수 없는 경계가 주거안에 생기게 된다. 의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주택에서는 개인마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설계상의 문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편협하기만 한 공간에 연속과 분리라는 융통성을 반영하여 고정화된 평면유형의 질서감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개체화, 다양성, 환경성으로 대변되는 개구식구조를 이용하여 융통성(또는 복합성) 있는 가변 벽의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주자는 그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명제로 덮혀있지만 설계작업의 연장으로서 예의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코오롱 모터스(BMW) 서울 서비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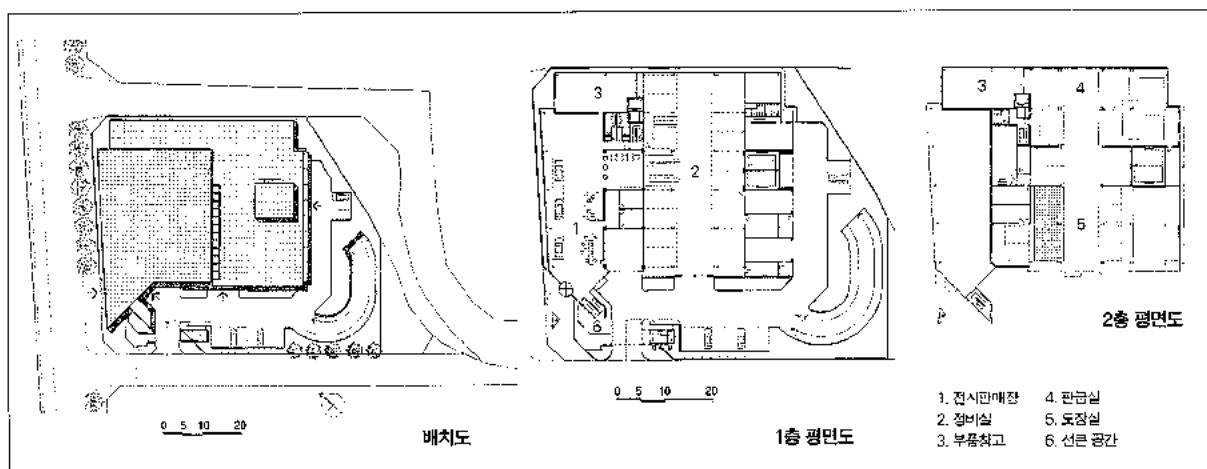
Kolon Motors(BMW) Seoul Servi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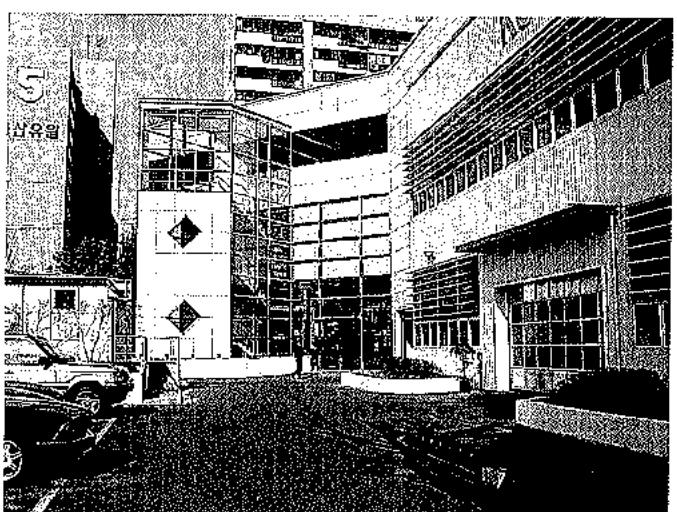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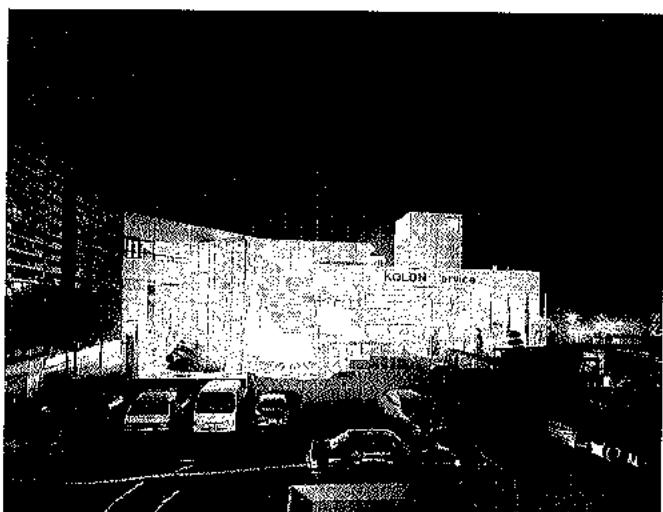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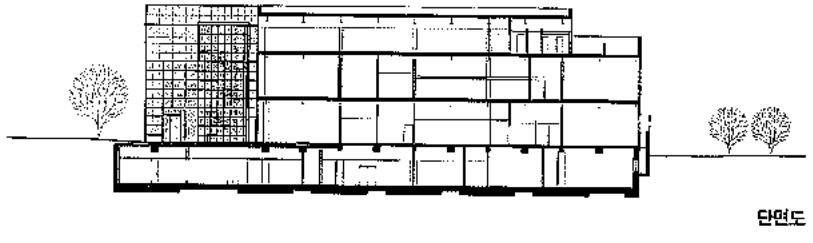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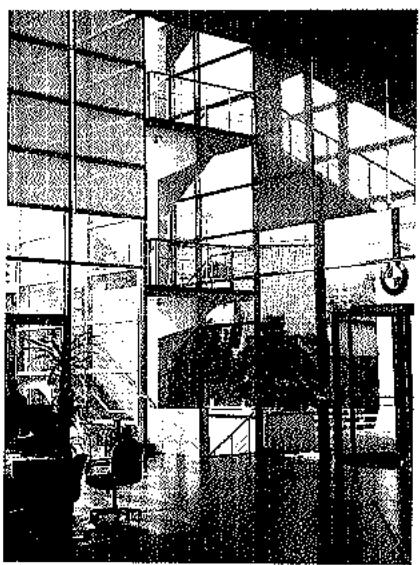
최관영 + 정동명 / (주)일간씨엔씨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Cheong Dong-Mye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89
지역지구	유동상업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4,083.5m ²
건축면적	2,247.41m ²
연면적	8,554.76m ²
건폐율	55.04%
용적률	128.3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벽 - 세리믹페널, 샌드위치페널, 투명복층유리, 파스텔복층유리 지붕 - 우레탄페인트
내부마감	바닥 - 비닐계타일, 코링크타일 벽 - 아크릴수지페인트, 벽체타일 천장 - 임연흡음텍스, 노출
주요설비방식	냉방 - 팩기지 난방 - 콘크리트팩기지, Unit Heater
주차대수	옥내 39대, 옥외 36대(총75대)
설계담당	김용균, 정재호, 이경아, 강남재, 어윤하
구조	CS구조
전기	(주)우립컨설턴트
기계	(주)한일 MEC
시공	(주)코오롱 건설





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Deungchon-dong Ace Techno Tower Apartment-Type Factory

오근석 / 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 Kun-Sok

이 프로젝트는 직사각형 형태의 대지로 30m 전면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이 우수한 관계로 건물의 정면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는데 디자인의 주안점을 두었다. 건물 Mass를 고려할 때 도로의 정면성 및 인지성을 강조함으로써 첨단형 아파트형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도심형 오피스 분위기로 유도하는데 외부디자인의 전제가 되었다. 건물의 정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도로에서 건물의 Mass를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누어 전체적인 안정감을 꾀하고 저층기단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화강석으로 처리하여 진입을 유도하고 상층부의 건축적 이미지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통일감을 이루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72.2%라는 전용률이 말해주듯 효율적인 기능구성 및 유기적 내부동선체계로 간결하고 집약적인 평면을 구축하였으며 경제성 및 가변성이 우수한 기본모듈축(6m)을 선정하여 분양에 적극적인 융통성을 꾀하는 전면 주현관에 장애인램프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1

대지면적 2,285.50m²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아파트형 공장용지)

건축면적 1,288.35m²

연면적 16,719.21m²

건폐율 56.37%

용적률 59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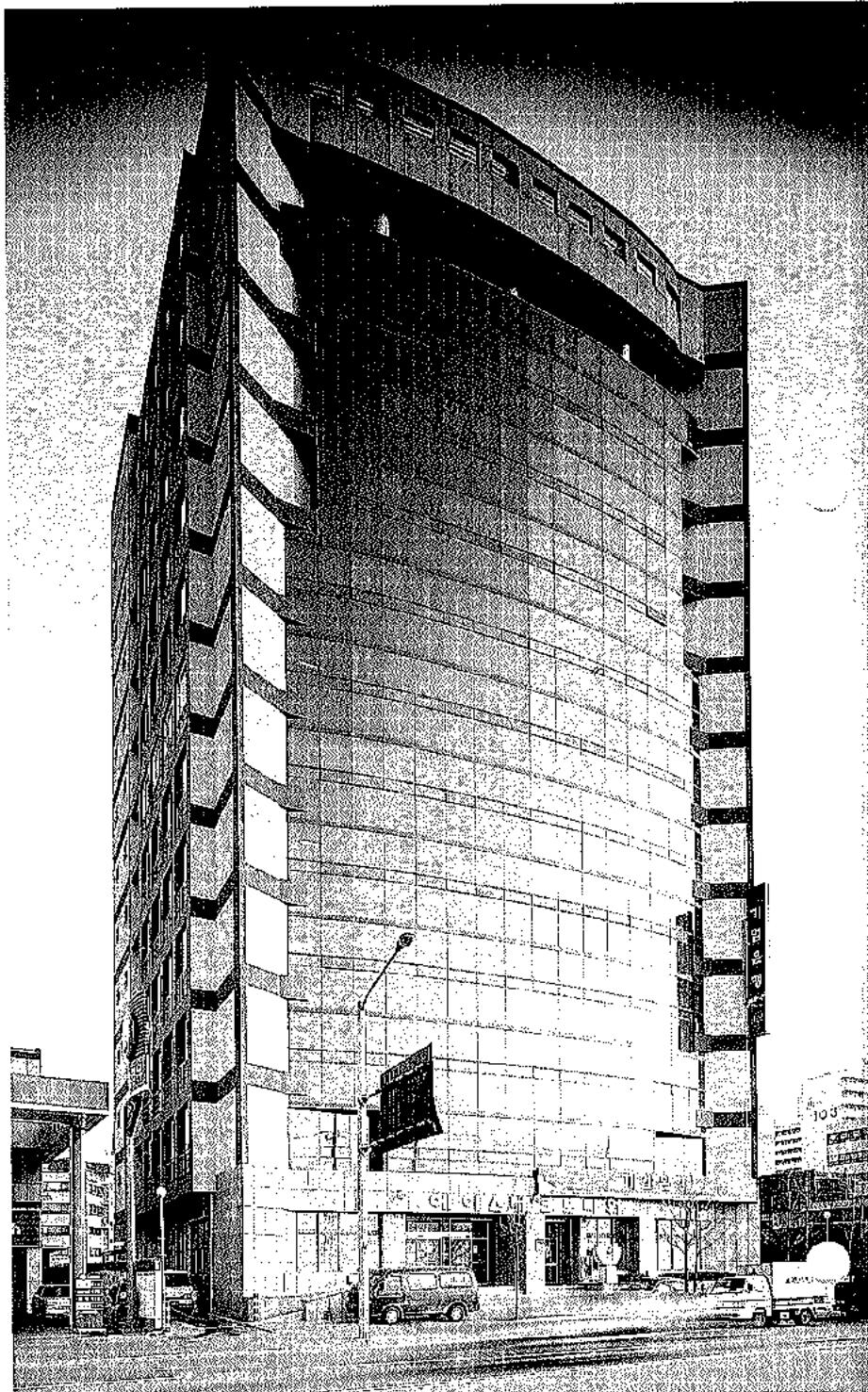
규모 지하2층, 지상1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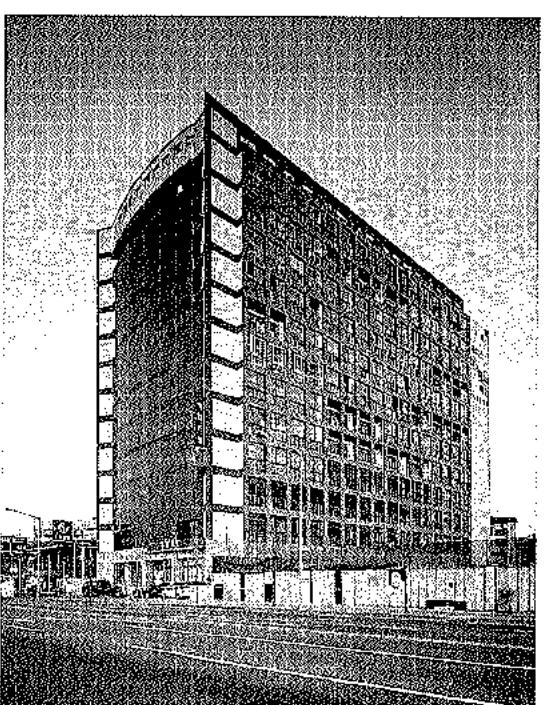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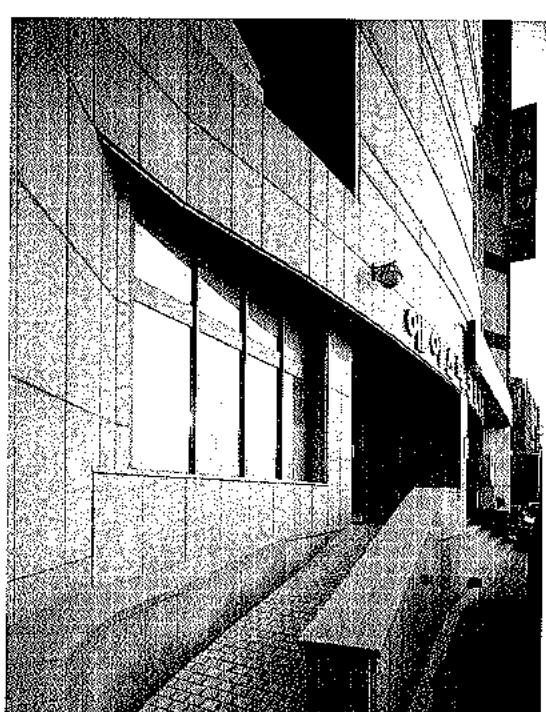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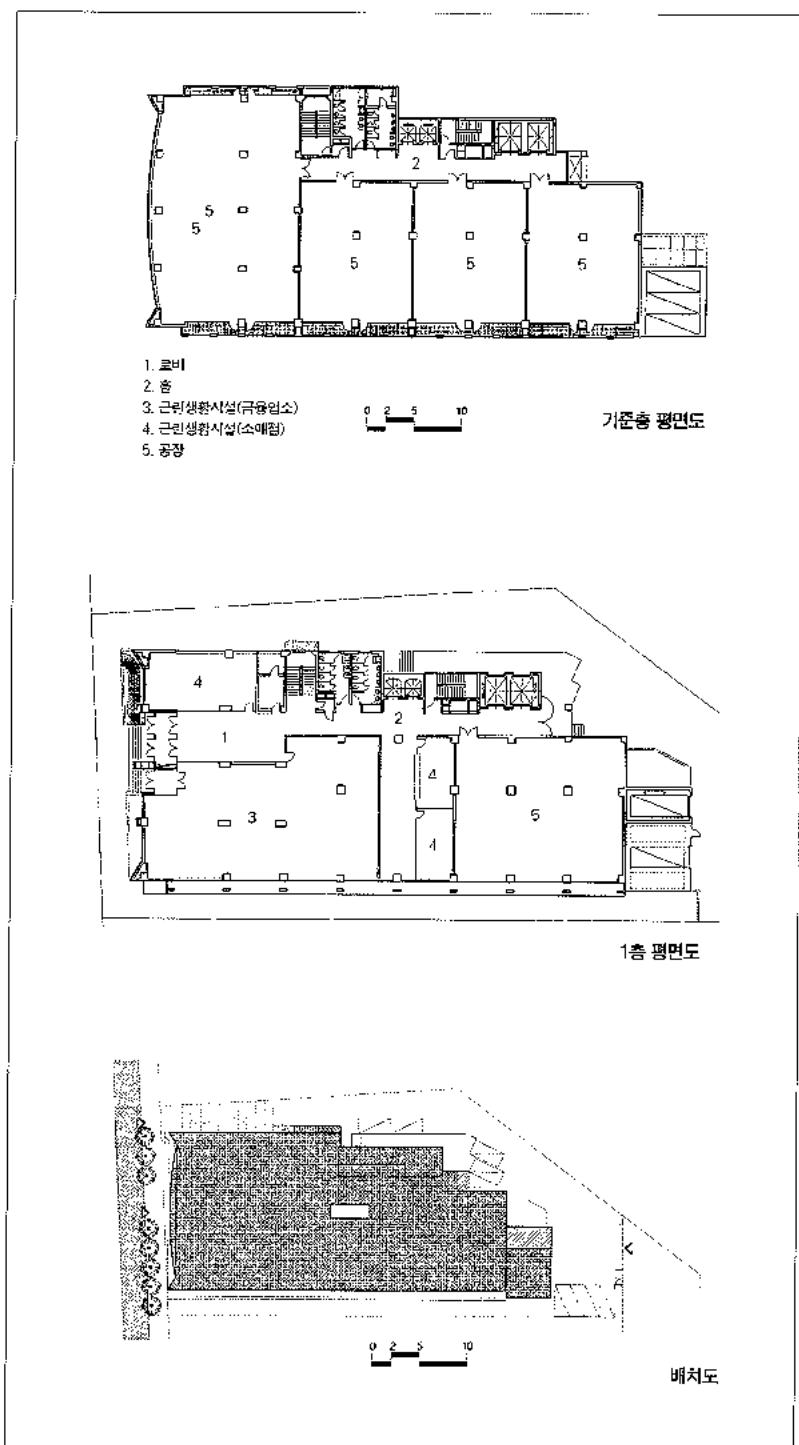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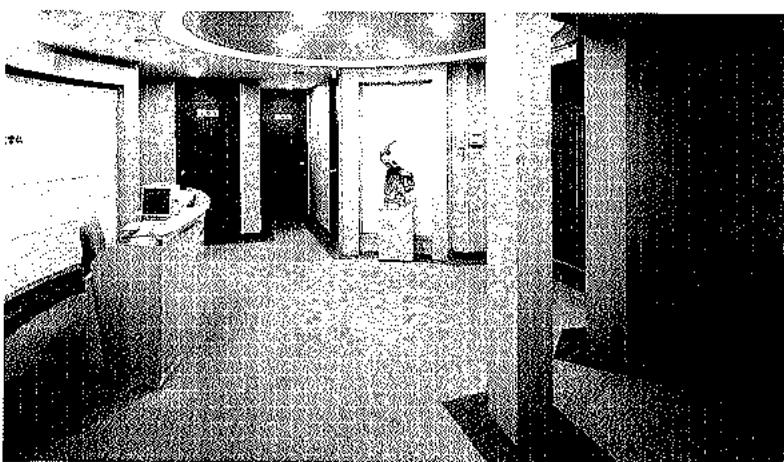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아파트형 공장

외부마감 화강석, 드라이버트, 복층유리

시공 에이스 종합건설(주)





태창철강사옥

Taechang Steels Co.

박종석/ 대상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Jong-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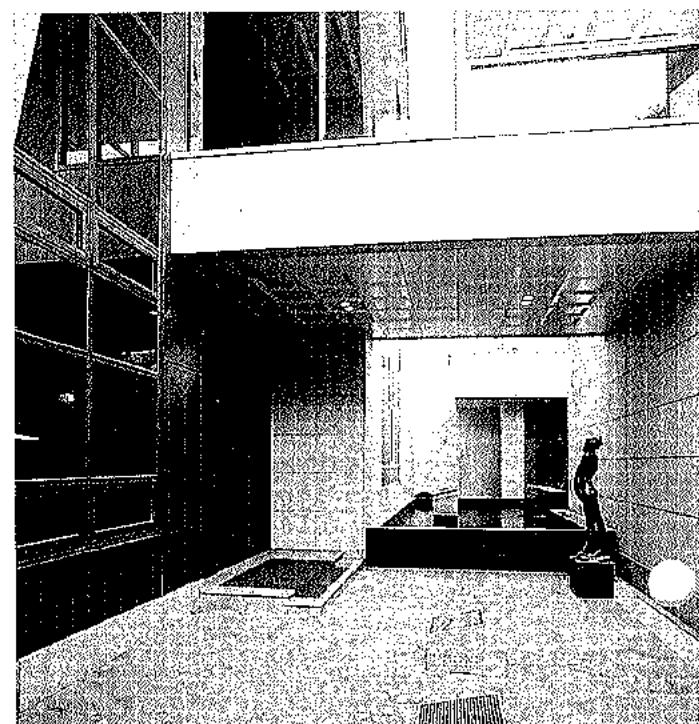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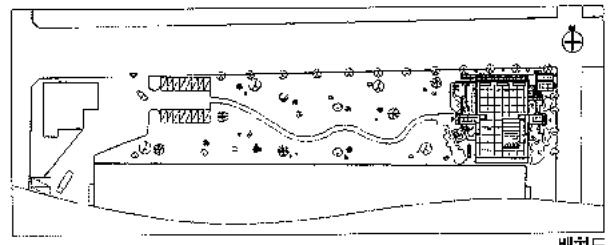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된 성서공단내 대구시 4차 순환도로선과 접하여 위치한 (주) 태창철강의 대지는 동측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내리막 경지를 이루며, 사옥 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조성시킨 넓은 정원과 기존 공장동, 산재된 사무동 및 부대시설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험축하고 있었다. 계획은 주변이나 기존 시설물들과의 유기조화 건축에서 벗어나 각각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철강사로서의 강력한 에너지 도출을 공간으로 전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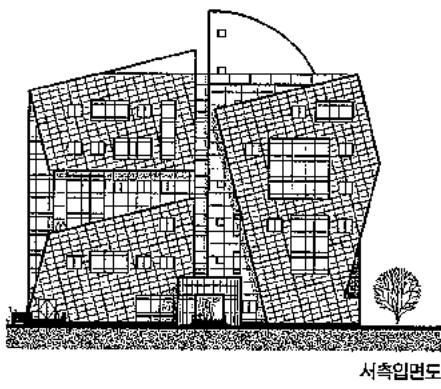
본부동(사옥건물)을 중추적 핵심시설로 이용하여 동선의 연속 및 분할을 제공하는 집중식 배치형태에 의해 기존 시설물들은 기능적으로 총괄되며, 건물 내·외부를 상호관입하는 대지 동서의 주축을 통해 녹지, 원층공간(선큰, 진입구역), 돌출된 극선형 출입부, 연결브릿지, 중앙홀 경복도 등이 형성되어 사용자, 관리자, 방문객들이 겪을 수 있는 공간 체험의 변화를 기하였고 이를 위해 도학적이고 공간적인 여백과 충만함을 조화시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매스를 분리하고, 돌출 또는 후퇴부를 따라 알루미늄 복합페널과 화강석을, 그리고 내부공간의 필요한 기능에 따라 자유규격의 창호를 조합하였으며, 옥상층의 온실과 엘리베이트 기계실, 물탱크실, 피뢰침 등의 설비공간을 건축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당간지 주 형상) 상징성을 지닌 매스구성요소로 부각시켰다.

'불규칙적이고 변화있는 형태 속에 감싸진 규칙적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적인 것보다 역동적이고 융통적인 공간이 형성되었고 평면, 입면, 단면계획과 분석을 병행함으로서 초기에 제시된 내·외부 층별, 구역별 기능분화, 공간비례에 따른 이미지 창출과 상호연계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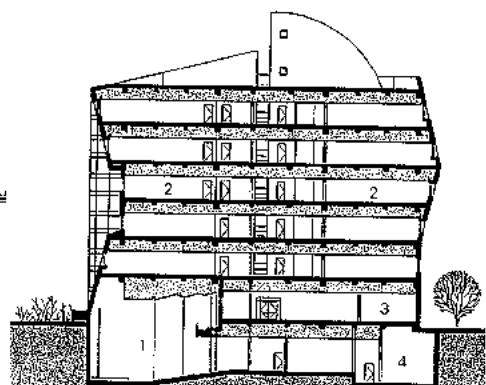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95-14번지
대지면적	18,184㎡
건축면적	803㎡
연면적	4,587㎡
건폐율	55.13%
용적률	25.23%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포천석비너구이
설계담당	성기흠
구조담당	이홍규
시공	청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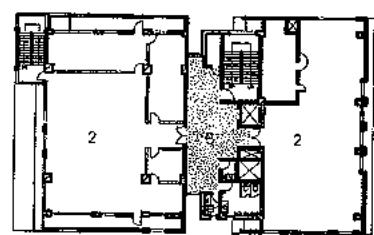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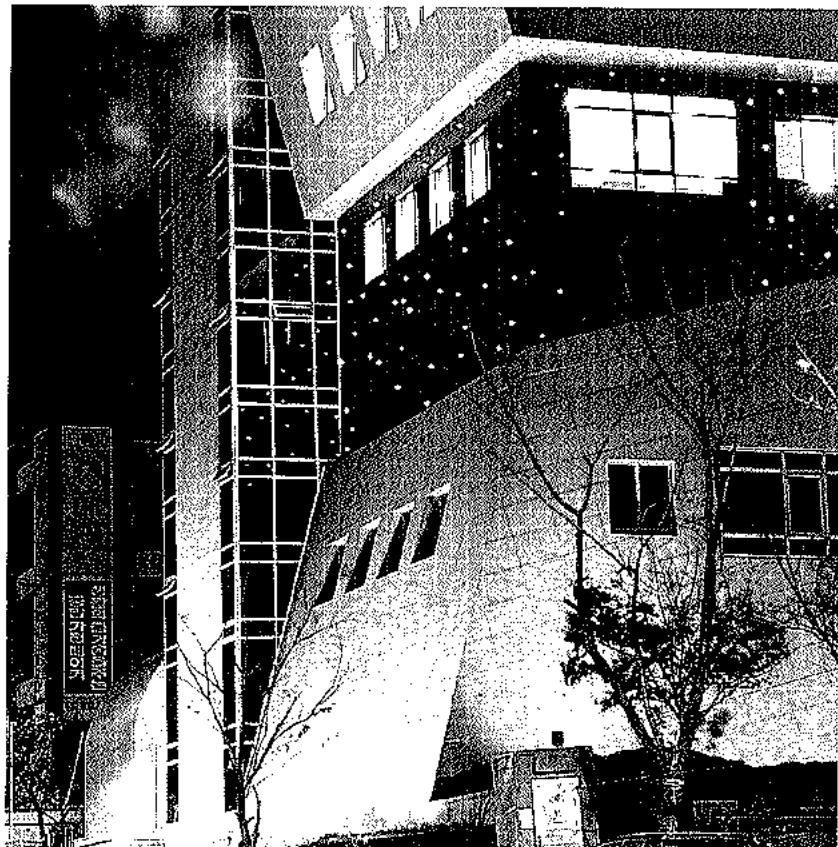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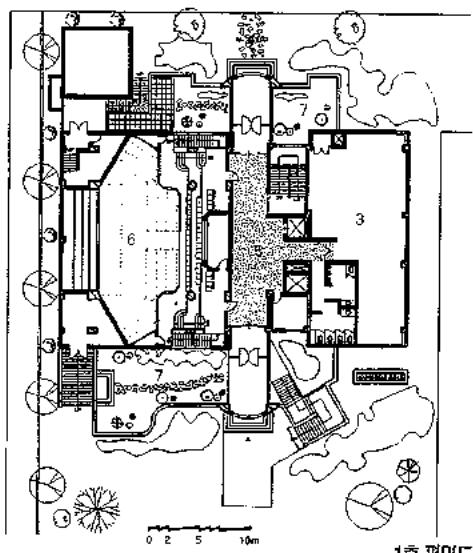
서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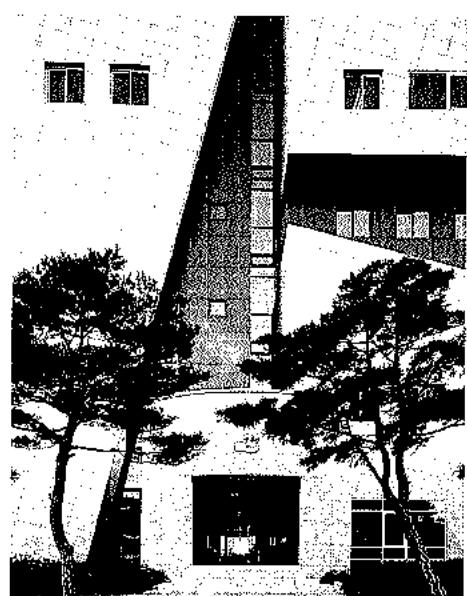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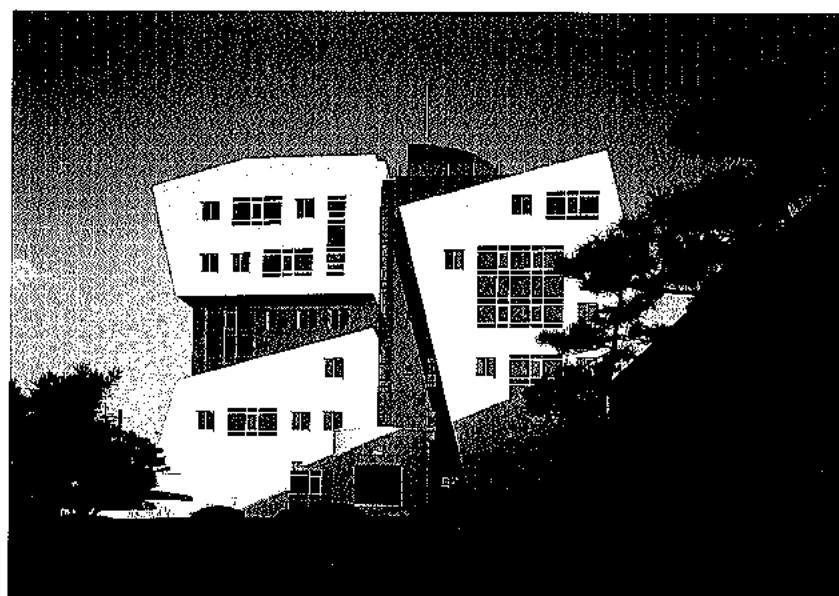
주단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2)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배치(*la Distribution*)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도시저택(Hôtel)과 시골저택(Maison de Plaisance)

Jacques-François Blondel(1705-1774)은 실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명성을 얻은 건축가는 아니지만 건축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는 건축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자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건축논문은 건축 이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743년이 되어 그는 Académie D' Architecture(건축원)에 대항하여 사립 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비록 재정적으로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팔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학교의 소속되었던 건축가들로 Boullée, Ledoux, de Wailly 등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다. 1755년 Blondel은 Académie의 회원이 되었고 1762년부터 건축교수가 되었다.

Jacques-François Blondel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저술에 있어서 광범위한 유산을 남겼다. Briseux(브리쉐)의 책이 출간되기 수 년 전에 Blondel은 교외저택

1) 직역을 하자면 '폐작' 또는 '증거용의 집의 배치 및 일반 건축의 강식에 관하여'라는 뜻이다. Blondel은 비롯한 18세기 이론가들은 '증거운 집(Maison de Plaisance)'을 전원 혹은 시골의 저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프랑스어에서 '호텔(Hôtel)'은 일반적으로 대저택 또는 관저, 관용 건물 등을 가리킨다. Blondel의 책에서 Hôtel은 도시의 대저택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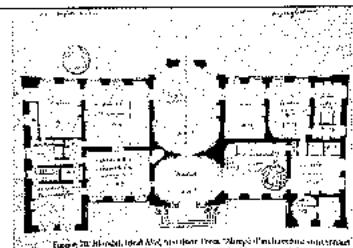


그림 1) J.-F. Blondel: 이상적 Hôtel 1층 평면, Abrégé로부터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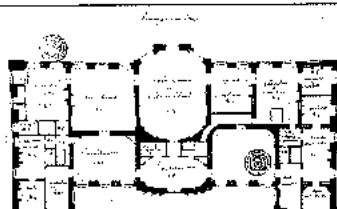


그림 2) J.-F. Blondel: 이상적 Hôtel 2층 평면, Abrégé로부터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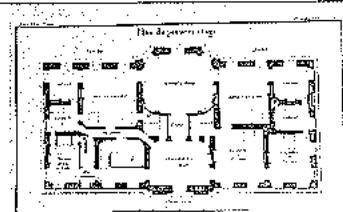


그림 3)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1층 평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Maison de Plaisance)¹⁾에 관한 2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Blondel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외부의 Decoration(장식)은 내부의 Distribution(배치)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은 도시와 전원 또는 시골의 것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명칭을 갖는데 도시의 Hotel²⁾과 전원의 Maison de Plaisance로 대별되는 프랑스의 개인 주거는 1730년경 체계화되어 이어 내려와 그 전통과 평면구성방법은 20세기의 건축에도 존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프랑스의 Hotel은 영속적인 유산으로서 모던 및 현대의 서양건축에 참가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주거 양식, 즉 Hotel은 명확한 분절(Articulation)과 위계로써 공간을 분류(Classify)하고 배치하려 하는 프랑스 고유의 특유한 시각, 정신적 성향 또는 사고방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otel에서 구현된 사회적, 건축적 시스템은 모던건축의 기능적 디자인의 기원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분류학적인 정신 및 공간의 상징적 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개인의 생활과 Privacy를 갈구하던 경향이 이어져 내려와 Louis 14세 말기에는 일반화되었고 드디어 1715년의 Louis 14세의 서거 바로 직전에는 궁정생활에 있어서의 자루하고 딥답한 의식에 반하여 시적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의식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건축계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고도로 압축된 평면구성을 하게 되어 Louis 14세 이후의 로코코식 저택(Hôtel Rococo)은 Louis 14세시대의 주거에 비하여 같은 공간 내에 두배나 많은 실을 배치하게 되었고 각 실(室)마다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여 지정하는 평면구성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평면구성의 방법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la Distribution'을 들 수 있다. 18세기의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전대 17세기 선배 프랑스 건축가들, 그리고 Italy의 Renaissance 건축가들에 비하여 훨씬 더 조직적이며 합리적,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건축을 하고 있다고 긍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긍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Design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la Distribution'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la Distribution'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어 Blondel 또는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londel 자신은 '쥘 아르두앙 망사르(Jules Hardouin-Mansart)'가 '끌리니' 성(Château de Clagny: 1676)에서 'la Distribution'의 모범이 되는 계획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la Distribution'이 Briseux의 'L'Art de Bâtir des Maisons de Campagne

(시골의 저택을 건축하는 기술)' 또는 '르 카뮈(Le Camus)'의 'Génie de L' Architecture (건축공학)'³⁾와 같은 아주 다른 내용의 저작을 등에 의하여 고취되어 이론적 전통의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이다. 이에 따르면 각 실은 분화되고 각 실이 지니는 실 고유의 성격이 강조되었는데 Blondel은 적어도 6개 종류의 침실(室)을 구분한 반면,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la Distribution의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각 실의 상호관계 및 복도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유행하였다.

'la Distribution'의 디자인 방법론을 채용하는 건축은 파시(Display)와 은거(Retreat)의 2가지 상극적(相極的) 측면이다. 이것은 선대(先代) 바로크와 로코코에서 요구되던 전통적인 장려함 및 화려함의 필요성과 아울러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은밀함과 안락함의 새로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로코코에서의 경험이 내부 배치 방법의 발전과 결합되어 표면엔 화려하고 장려한 Façade, 후면의 내부 배치는 밖의 세상과 격리된 조용한 은거의 공간을 배치하게 되었다.

Blondel의 'De la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 et la Décoration des Édifices en Général'과 C.-E. Briseux의 'L'Art de Bâtir des Maisons de Campagne(시골집의 건축술)'은 18세기 중반의 Hotel의 개념을 악설하고 있으며 1760년대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Hotel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Appartement de Parade, Appartement de Société, Appartement de Commodité로 구분되는 3가지 유형의 주거양태 또는 주거의 유형(Type)으로 분류된다. '파시의 주거(공간)'이라는 뜻의 Appartement de Parade는 규모가 비교적 작긴 하지만 외부의 타인을 향한 파시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는 곳, '고제의 주거(공간)'인 Appartement de Société는 가족과 친구들을 맞고 담소하며 생활하는 단란의 공간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곳, '쾌적의 주거(공간)'인 Appartement de Commodité는 주인 또는 주부가 겨울, 기분이 언짢거나 내키지 않을 때 물러나는 곳, 또는 잡안 일을 위해 의논하는 장소로 프라이버시가 가장 보장되는 곳으로 재충전과 명상 등을 위한 공간이다.

3) 본 프랑스어판은 1992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de Mézière, Nicolas Le Camus (Britt, David 역): *The Genius of Architecture; or The Analogy of that Art with our Sensation*, the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2.

평면 및 공간의 분석을 위하여 Blondel의 *Hôtel Idéal*(이상적 오벨)과 *Maison de Plaisance*(시골 집)의 예를 들어보자. 두 평면 모두에서 식당은 원충실들로써 공간이 구별된다. 이 방들은 다각형, 계란형, 원형 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에서는 출연실과 당구실 등의 오락공간이 배치된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상 건축가는 이런 여가의 공간보다는 주로 Service와 Convenience(편의성)의 안배에 더욱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Blondel과 Briseux의 시골집을 비교하면 Blondel의 의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평면에서 극도로 다른 두 건축가의 견해 즉 Briseux는 복도와 통로의 사용을 옹호한 반면 Blondel은 *Déagement*과 계단의 사용을 주장함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건축가는 건물에서의 편의성(Convenience)을 보장하기 위하여 Service에 관한 모든 System들을 연구하였다는 공통점에서는 당시의 기능적 건축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건축에서 실(室)들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평면에 있어서 그것들은 '데기쥬망(Déagement)'⁴⁾을 형성하는 임여공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다각형의 형태가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건축사가 Hautecoeur는 la Distribution의 방법으로 인한 다각형의 실을 평면에 채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1769년 Pierre Patte의 걱정을 자기의 저술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난 40년간에 걸쳐 완전하게 된 la Distribution의 방법은 구조적으로 볼 때 Appartement들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든다는 구실하에 거의 모든 평면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만드는, 많은 수의 방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 이상의 문제였다. 그 결과로 각 층마다 각기 다른 구조적 조건들이 생겼고 하나의 Appartement가 다른 것 위에 어

떻게 배치되는지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⁵⁾

Blondel의 'Cours'는 선배 D'Aviler의 모델을 명확히 따르는데 그의 책과 마찬가지로 Site Plan으로부터 육실 및 회장실을 포함한 다양한 실들의 Detail에 이르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Briseux를 Blondel에 비교한다면 L'Art de Bâtir는 무미건조하고 Site Plans과 Detail을 제시하지 않아서 단지 고도로 합리화된 고립된 한 덩어리의 건축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로코코 건축의 요약으로 간주되는 이 두 건축논문은 로코코 건축과 그것의 새로운 대체물, 즉 신고전주의의 건축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750년대에 시작된 로코코의 과다함에 대한 일반적으로 심했던 반동은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까지 이전시대의 대부분의 건축가들 즉 Courtonne (1793), Aubert (1741), Oppendorf, Jacques Gabriel, 그리고 Moller (1742), Meissonier (1750), Boffrand (1754), 그리고 Cartaud (1758) 등의 건축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1752년과 1756년 사이의 Architecture Françoise에 실린 Blondel의 논문은 로코코 *Hôtel*의 시대로부터 출발하여 고전적 모델을 재확인하고 '스릴 로까이(Style Rocaille)'⁶⁾를 거부함으로써 이전의 논문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정도는 신고전주의의 등극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방법론상 la Distribution은 Salon을 중심으로 거실이나 연회실 등의 공적인 방들을 십자로 교차되는 축위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사적인 실들은 공적인 용도의 실

4) Déagement은 방 사이의 통로, 출입구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주로 벽체가 두꺼운 전통 조작식 건물에서 실과 실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 짧은 길이의 통로를 말한다.

5) Hautecoeur, *Architecture Classique*, 3권 p. 200. Dennis, Michael: *Court and Garden*, MIT Press, Cambridge(Massachusetts), 1986, p. 118 재인용

6) Louis 15세 시대의 로코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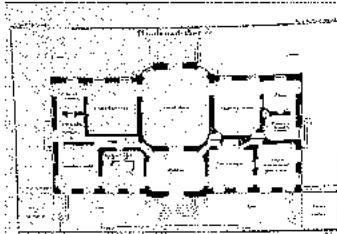


그림 4)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2층 평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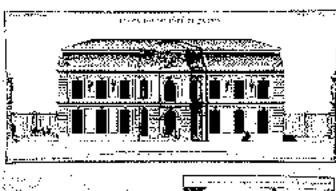


그림 5)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입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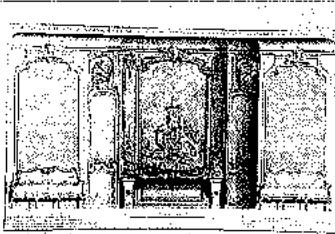


그림 6)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실내 내부 입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들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십자축 배치의 규칙에서 벗어나며 자주 드나드는 방들로부터 되도록 먼 곳에 배치된다. *la Distribution* 가운데 세부규칙으로서 '엔필라드(Enfilade)⁷⁾'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용도의 실을 통로 없이 잇닿도록 배치하여 각 실의 방문(Door)을 일직선의 축상에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Enfilade는 건물의 길이를 관통하고 벽이나 계단실 등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Enfilade를 축으로 하는 View가 막힘없이 한 단부로부터 다른쪽의 단부로 이어지게 된다. 각 실 사이에는 회랑이나 통로가 없이 곧바로 방과 방이 연이어 배치되므로 이런 방들의 구성은 '엉 스윗트(en Suite)⁸⁾'라고 명명되었다. Blondel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듯 Enfilade는 *la Distribution*의 법칙을 구성하고 있다;

'la Distribution의 일반법칙은 건물의 길이를 관통하여 주(主) Enfilade를 유지토록 하는 데 있다.'⁹⁾

(그림 3)과 (그림 4)에 있어서 1개의 수직방향 Enfilade, 2개의 수평방향 Enfilade로 구성되는 3개의 Enfilade가 있다. 수직방향 Enfilade는 Grand Salon과 Vestibule를 통과하므로 1층의 가운데 축을 통하여 정원으로 연결된다. 상부 Enfilade는 Cabinet à Écrire(집필실)로부터 시작하여 Cabinet D' Assemblée(모임실), Grand Salon(대실룸), Chambre à Coucher(침실)을 지나 작은 Cabinet를 통과하며 양측면의 창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된다. 각 실마다 Door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수평의 Enfilade를 만들으로 평면의 장축방향을 꿰뚫고 있으며, 건물의 척추쪽으로 정원의 Façade를 틈으로써 일련의 창문들이 배치되어서 충분한 채광조건과 시각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Enfilade의 조건 중 하나는 가능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주거일 경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가 흔히 있다. 즉 측면에 면한 타건들과 공유하는 Party Wall 등에 의하여 측면의 Enfilade가 중단될 경우에는 인공대체물인 거울로써 이 조건을 연출한다. 당시 en Suite방식에 따라 일렬로 배치된 모든 방들을 가로지르는 Enfilade에 의한 내부 경치의 연출은 중요한 미적 출처의 원인이었다.

여기서 수평축 방향으로는 2개의 Enfilade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수직 Enfilade로서는 중앙의 Grand Salon과 Vestibule를 관통하는 것만이 유일하여 다른 부분에서는 Enfilade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Grdroobe(의상실), Dégagement들이 수직방향 Enfilade의 조성을 방해하고 있

기 때문인데 이 공간들이 두 수평 Enfilade 사이에 배치되어 공간을 상하, 즉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수평 Enfilade는 Salon의 중앙을 통과하는 이상적인 축의 교차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Salon이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Enfilade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앙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Blondel 자신의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Blondel은 1층의 Grand Salon과 2층의 Grand Cabinet의 벽난로를 중앙에 배치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방의 창들을 외벽에 바짝 배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Enfilade가 한편으로 치우쳐 Distribution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대신 Grand Salon에서는 정원 쪽에 면한 벽을 밖으로 약간 돌출시킴으로써 실의 방향성을 중진시키고 Grand Salon으로부터 외부 정원으로의 공간성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방의 배치는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Enfilade의 규칙에 따라서 엄격히 배치되어야 한다. 현관(Vestibule)은 정확히 출입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출입구는 후위의 Salon과 연결되어야 하며 측면으로는 Grand Escalier(대계단)와도 연결되어야 한다. 석조계단으로 구성된 이 실(Grand Escalier)은 의도적으로 현관에 통하여도록 계획되어 출입구의 연장공간으로 구상되었다. Grand Escalier는 공공영역의 일부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감추어진 작은 서비스 계단에 의하여 이르는 중이층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지층으로부터 2층까지 직접 연결된다. 서비스 계단은 편리를 위한 계단이며 Grand Escalier는 파시를 위한 주요 오브제로서 석조세공이 되었으며 및 천장은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Grand Escalier는 사교의 공간인 Salon을 Grand Cabinet(大私室)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lon으로부터 2층의 Antichambre Commun(공적 용도의 결방) 및 담구대 등을 놓게 되는 Grand Cabinet에 연결하는 Grand Escalier는 두 사람이 대화를 중단함이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평면에서 Blondel이 주장한 Appartement의 3가지 유형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계단을 제외한 파시의 공간에 속하는 Appartement de Société 및 Appartement de

7) Enfilade는 밀련(一連), 한 풀기', 연속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18세기 프랑스의 건축에서는 공적인 용도의 방을 일렬로 배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8) 프랑스어의 en Suite는 영어로 적역하면 en Suite가 되겠다. Suite는 디자텍, 궁전 등에서 병 아령이 잇따르는 목자갈을 한 벌의 병을 말한다 참고로 프랑스어 en Suite는 '같이', '다음'에 리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9) Blondel Abrége, (그림 5)

'The general laws of la distribution consists in maintaining the principal enfilades throughout the length of the building.' in Etlin, Symbolic Spa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London, 1994. p.

Parade의 두 가지 유형은 Salon의 좌우양쪽에 배치되어야 한다. Blondel은 모후에 친지의 방문을 받는 Cabinet D' Assemblée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Appartement de Société의 공간을 원편, 그리고 오전에 사업방문자 등을 맞는 Appartement de Parade를 오른편에 배치하였다. 평면의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Cabinet Pour se Etirer Après le Repas(식사 후 물러나 쉬기 위한 작은 방)는 활기 넘치는 장소로부터 식사를 끝나고 난 후 가족 및 손님들과 담소와 차를 즐기는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격리된 장소로서 소유자의 사적 생활공간으로서 Appartement de Commodité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평면에서 각 실의 중요성 및 크기에 따른 어느 정도 느슨한 위계질서를 읽을 수 있다. 공공실(公共室)로는 Salon(살롱), Salle(방) 및 Cabinet(작은 방); 서비스 공간으로는 Antichambre(곁방)와 Garderobe(의상실); 그리고 침실을 구성하는 방들로서 Chambre à Coucher(침실), Cabinet à Coucher(소침실), Chambre Avec Lit en Niche(벽감에 침대가 놓여진 방) 등이 그것으로 대공간과 소공간, 공적인 용도의 공간과 사적인 용도의 공간, 사교의 공간과 비사교의 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주택을 위한 단일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 공간들은 각 Suite¹⁰가 번집함이나 소음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쾌적함(Commodity)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다. 이처럼 용도 및 중요성에 따라 공간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방을 조합하는 시골의 Maison de Plaisance 또는 도시의 Hôtel은 그것을 디자인한 18세기 건축가에게는 긍지가 되었으며 소유자에게는 자랑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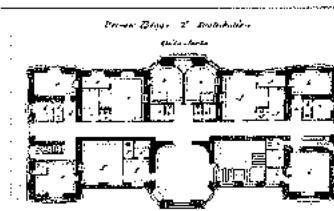
Blondel은 이론상 방이 지닐 수 있는 상이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Salle D' Assemblée(모임방), Salle du Dais(천개가 있는 방), Salle de Conseil(회의실), Salle de Bal(무도실), Salle de Concert(연주회실), Salle de

Festin(연회실), Salle à Manger(식당) 및 Salle de Compagnie(용접실)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예시되고 있는 주택에서는 단지 기본적인 기능만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Blondel은 Appartement을 구성하는 여러 실 즉 Vestibule, Salon, Antichambre, Salle de Compagnie, Salle D' Assemblée, Gallerie 등을 연구하였다. Blondel은 각 실의 용도와 인락성(Commodit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수많이 하였는데 여기서 인락성(Commodité)은 적합성(Bienveillance)의 법칙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주택에서 Salon의 천장고는 식당 천장고의 2배가 되며 Party실로 써도 쓰였다. Abrégé에 예시된 Hôtel Idéal(이상적 Hôtel)의 평면에서 Appartement de Sociét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Salle de Compagnie가 주어졌으나 상대 요소인 Appartement de Parade에 속하는 Salle D' Assemblée를 찾을 수 없다. 단지 좀 더 작은 Cabinet(B-10)이 그러한 기능을 대신하도록 지정되었다. 반면 Maison de Plaisance에서는 Cabinet D' Assemblée가 주어졌으나 Salle de Compagnie(또는 Cabinet de Compagnie)는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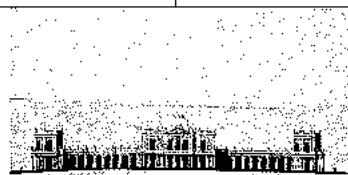
Appartement de Compagnie는 낮은 천장을 하고 있으며 중층에 보이지 않도록 갑추듯이 배치되어 Appartement de Société의 즐거운 분위기로부터 떠나 조용한 내밀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아늑한 분위기의 것이다. 따라서 과시와 은둔의 양극성으로 대변되는 Hôtel의 성격은 이 중층의 배치로 인하여 한층 더 극대화된다.

층에 따른 내부 Zoning 역시 간파할 수 있는데 관습적으로 1층은 사교, 단란과 공적인 공간이 주로 배치된 반면 2층엔 사적인 Suite들의 배치에 집중되었다. Abrégé에 예시된 Hôtel과는 다르게 Maison de Plaisance에서는 복도(Couloir 또는 Passage)없이 평면을 꾸미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에 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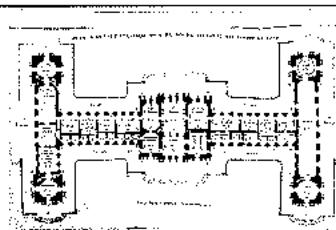
10) 일반적으로 대저택 또는 호텔 등에서 방 어항이 짓따른 통제를 일컬지만 18세기의 Hôtel들은 서는 문(Door)으로 살이 서로 연결, 통하여 들어지는 일련의 공간단위를 말한다.



〈그림7〉 Ch.-E. Briseux: Maison de Plaisance
2층 평면, L' Art de Bâtir에서 발췌



〈그림8〉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입면, Cours에서 발췌



〈그림9〉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 H자형 1층 평면, Cours에서 발췌

여 각 실 사이에 긴 통로가 생긴 것이 발견되는데 굳이 Garderobe(의상실) 또는 숨겨진 서비스 공간인 Dégagement 등으로 명명한 것은 평면에서 발생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듯하다. Blondel의 생각에 의하면 주택건축의 복도는 그 용도의 관점에서 볼 때 건축의 질과 품위를 실격시키는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고 평면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복도를 반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복도에 면한 방에서는 하인들의 통행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안락한 분위기와 휴식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당대에 복도의 사용을 가장 뛰어나게 구사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 Briseux는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공간을 낭비하는 헛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Brisuex의 주장에 의하면 복도는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측면에 서비스 계단을 둠으로써 시끄러운 통로를 침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으며 Blondel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별도 층계 및 결방보다도 오히려 훨씬 적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 부분이 오히려 음향상 원충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시기의 평면, 특히 1층의 평면을 비교하면 건축가는 Salon을 중심으로 마치 나무가 발육하여 나오듯 밖으로 향하여 위계적 배치를 하였으며 전체 실배치에서는 각 실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상호 교통하는 유기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각 하에서 건축이 검토된다면 성공적인 Distribution은 각 실에 상이한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있어서 밀접하게 모든 방을 배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alais, 그리고 건축 유형론적 방법으로서의 Distribution

18세기 건축이론의 선배격인 D'Aviler가 아직도 그의 저서 Cours에서 이상적인 Hôtel의 평면을 제시하는 것에 만족한 반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주로 내부배치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았다. 이런 이론들의 변천에 따라 건축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각 실(室)들은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이전의 비로크와 로코코에서 보여지던 화려함과 호사성의 중요성을 제외되고, 친밀성과 안락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건축이념이 발달한 결과 Distribution의 내용은 점점 더 복잡해져서 외부와 내부의 관계를 조화,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강박관념이 되었다. Blondel에게 있어서 합목적성(Convenance)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제거할 수 없지만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항목들을 조정, 화해하는 방법

을 가리키곤 한다. 자신이 집필한 Cours D' Architecture에서 Blondel이 집착한 문젯거리는 건물과 내부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와 Architecture Françoise에서는 이미 체득한 Distribution에 관한 지식을 예증과 설명을 통하여 체계화하여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Cours에서는 합목적성, 대칭 또는 비례와 같은 배치(Ordonnance)를 지배하는 주요 개념들을 건물 내부에 구현함으로 원리원칙의 입안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Distribution에 적용되는 비례에 관한 항목으로서 '각 기 상이한 직경과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실들에 각기 다른 높이를 부여하여 그것들의 길이와 폭의 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Blondel에게 있어서 Distribution은 평면을 다루는 기술은 이전에 벽, 장식의 요소가 되는 Façade 등을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Cours에서 Enfilade와 대칭의 실배치를 각별히 취급하고 17세기에 애호되었던 Galerie들을 Hôtel의 일부에 배치함으로써 Distribution은 고전주의의 시대 건축과 Bourgeoisie 시대의 안락한 건축 사이에 위치한 전통적인 성질의 건축요소가 되었는데 Hôtel이나 Maison de Plaisance와 같은 일반 저택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Palais(궁전, 대저택)에 관한 기술 역시 흥미를 끈다. 그의 건축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Blondel은 Palais des Soixante-Six Toise¹¹⁾ de Face(전면이 66뜨와즈인 궁전)의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이 계획안은 대규모 건물을 위한 것으로 전통적 디자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Distribution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案)은 아주 단순한 방식의 이태리풍으로 계획되었다. 전면에 Vestibule이 배치되고 그 후면에 커다란 Salon, Salon 좌우로 커다란 방 2개, 전면 좌측엔 '에스칼리에 도보르(Escalier D'Honneur)'¹²⁾등이 중앙부에 위치된 반면 Galerie들은 건물의 일부에 배치되었다. Cours에서 Blondel은 과거의 건축개념인 장식(Décoration)을 Distribution과 양립,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계획안은 H형태의 평면으로서 주로 외부의 형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U자 형태의 계획안은 그와는 상반되게 Appartement의 배치에 더 많은 무게를 실는다. Décoration과 Distribution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에 있어서 Blondel은 때때로 내부를 회생할 줄 알

11) 뜨와즈(Toise)는 옛 측정단위로 1 Toise는 1.949m이다.

12) 문자 그대로는 '영예의 계단' 또는 '영예의 계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궁전이나 대저택 등에서 발견되는 호화롭게 장식된 대계단을 말함.

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외부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Décoration은 때때로 Distribution보다 우세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다.

함목적성(Convenance), 대청, 그리고 비례와 같은 전통적 개념이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 해석됨은 이와 같은 생각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Décoration과 Distribution 사이의 관계 그리고 Distribution의 개념이 Décoration에 종속됨은 건물의 Façade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에까지 이어짐이 발견된다. 위계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Façade는 Enfilade의 연출에 있어서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점중적 배치 및 구성으로 해석되었고, Façade의 수평 및 수직 연출은 내부공간에 있어서 염격한 분할구획(Partition)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Cours의 Palais는 필요한 실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평면계획으로 구현함으로 주거건축에 필요한 모범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Palais의 평면계획은 마치 주거건축을 위한 모범 Catalogue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작은 규모의 일반 주택은 본 궁전 계획안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 부분만을 조합함으로 완성할 수 있다. 즉 Palais로부터 가장 단순한 주거에까지 하나의 정답이 있게 되며 스케일에 따른 변주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아마도 18세기의 유럽 건축계가 발명한 것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의 건축에서 보이던 스케일의 불연속성을 동일한 단일 위계로써 대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Blondel의 건축사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나 그 기관의 거대 규모의 생활을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 개인의 생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빈자들의 주거는 어떠한 것이 되었든 궁전이나 대저택의 한 조각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Laugier의 Cabane Primitive¹³⁾(원시주거)에 건축요소를 첨

가하는 것으로 왕족의 주거를 만들기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후술할 Ledoux는 Laugier가 그리하였듯이 Doric양식의 보호처를 세우는 대신 가난한 사람을 단지 나무 밑에 있도록 묘사함으로써 Laugier의 환상을 좁기를 포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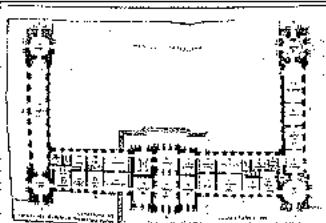


그림 10)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U자형 1층 평면, Cours에서 발췌



그림 11) M.-A. Laugier: Cabane Primitive, L'Essai sur L'Architecture에서 발췌



그림 12) C.-N. Ledoux: 빈자의 피난소, L'Architecture Considerée에서 발췌

13) Cabane Primitive는 '태고의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문명의 뒤가 전혀 묻지 않은 민족 초기의 주거로서 불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기둥과 대들보, 벽골으로 구현된 근본주의적 사상의 오두막을 가리킴. 본문에서는 Laugier의 건축수상집(L'Essai sur L'Architecture)의 속 표지 그림을 지칭함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angnung and its Modern Accommodation

정재국 /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ung Jae-Kook

강릉은 해안, 산지, 호수를 함께 한 자연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구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의 많은 주거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방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의 시초가 강릉 북부, 예국, 토성에서 종주어골문, 격자문 등이 있는 즐목문토기편을 1917년 조거용장(鳥居龍藏)이 찾은 데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구석기 유물은 삼곡리에서 해안 유물이, 홍제동 유물 산포지에서는 봄돌조각이 채집되었으며 신석기 유적은 지변동, 교동, 안현동, 안인리, 영진리, 금진리 등의 많은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지는 석호의 발생, 이로도구의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해안을 따라 부산의 동삼동까지 해안문화의 연속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즉 바다를 기끼아하고 있는 해안문화에 대한 건축적 삶의 형태는 석기시대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동일한 성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강과 평야와 낮은 구릉지를 갖춘 지역에서 농경 정착문화가 발달하므로 강릉에서도 강과 구릉지를 갖춘 방내리, 포남동, 유천동, 교동, 난곡동, 내곡동, 홍제동, 저동, 장현동, 안현동 등지에서 청동기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때의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이며 공통점은 동북한계통의 공열토기(孔列土器)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함북 무산, 원산 영흥, 속초 조양동, 강릉 방내리와 함께 춘천 내평,

중도, 인제, 양구에서도 시대가 조금 늦은 형태의 것이 발굴되어 공열토기가 북에서 남으로 전파되면서 강원영동지방에서 강원영서 지방으로 무문토기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수 천년전 청동기시대에 이미 영동과 영서가 동일한 문화를 갖추었으며 영동문화가 영서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노혁진, 강원도 청동기시대,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13회, p. 42)

이때의 태백산맥종단은 양양, 간성, 고성의 진부령을 넘어 북한강 상류로 진출하는 것과 태백산맥을 횡단하여 정선 등의 남한강자류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한 대관령을 넘어 평창, 오대산으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석기문화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발달하였다면 청동기 문화는 등에서 서로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는 병산동, 강문동, 초당동 등 해안을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초기 형태는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 집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며 저장용 토기는 화덕의 주변 좌, 우벽체에 인접하게 있다. 중기에는 화덕이 중앙에서 북편으로 치우치고 화덕과 북벽 사이에 저장용 토기가 있으며 집의 형태는 럼자, 凸자를 만들고 있다.

후기는 중기의 형태와 비슷하나 화덕은 중앙 북편으로 치우치고 출입구 반대에 아궁이와 연도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릉지방의 선사시대 주거문화는 해안을 따라서 발달하면서 남북과 영서지방에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적 역할을 일찍부터 하여 왔으며 지정학적인 요소와 자연적 환경에 의한 변천과 발달을 계속하였음을 발굴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강릉의 전통건축은 객사문에서 출발한다. 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폐를 모시고 있으면서 의식을 행하거나 중앙에서 오는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낮은 구릉이나 주위 환경이 뛰어난 곳에 건축되고 있다.



방내리 출토 공열토기



지경리 신석기시대 4호 주거지



강릉 교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경

국보51호 강릉 객사문은 정면3칸 측면2칸에 주심도리높이 13.6척 척마길이 7.3척, 건물높이 22.75척의 주 심포 양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루건축의 대표 작으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수덕사 대웅 전과 함께 고려말의 목조건축물로서 현존하고 있다. 또한 주심 포양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둥의 배흘림이 평주 밑부분에서 1척 간격으로 직경이 1.84, 1.85, 1.87, 1.89, 1.87, 1.85, 1.80, 1.74, 1.64, 1.5, 1.38, 1.18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배흘림을 보여주고 있다. 객사문을 들어서면 맞배지붕의 중심건물을 두고 팔작지붕의 양익형에 부속건축물을 배치하는 양식의 객사는 일제시대 공립보통학교를 건축하기 위해 (1929년 2월) 비록 사라지게 되었으나 현재 강릉의 시내 중심 가에 위치하여 복원을 앞두고 있다. 객사문과 이웃하여 칠시당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관공서 건축물로 인조10년(1962년)에 중건하였고 현재의 건물은 고종4년(1867년)에 부사 조명하가 불탄 것을 중수한 것이다. 'ㄱ'자 배치형태의 정면에 누마루가 있는 전면 4칸, 측면 4칸의 건축물로써 천장고가 높고 건실한 두리기둥을 사용한 팔작지붕 형식의 건축물이다.

객사문과 칠시당은 강릉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건축물 사이에 시청과 우체국이 있어 칠시당 벽체는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객사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릉의 전통건축을 논하면서 제일 처음 이야 기할 수 있는 객사문은 중심가에 위치하고 강릉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릉의 전통건축과 지역주의 건축은 그곳을 대변하고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때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고 도심을 대표할 수 있다.

전통건축의 상징화와 강릉건축물의 상징으로 객사문의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공포를 응용한 현대화된 건축을 제안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출구, 내 외부 공간의 전이지대 등으로 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건축을 계승한 현대화가 우리가 진부하게 논의되어온 외부형태, 혹은 좀더 발전한 공간개념의 응용에 머물러 있는 것에 반하여 보다 진정한 계승은 현대화된 삶 자체를 수백 년을

지나온 우리의 전통 건축물에서 함께 담아내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강릉에서 시청의 이전과 함께 객사문, 칠시당의 공간을 도심공원으로 만들어 강릉시민의 문화의 장으로 제공함은 지역의 전통건축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 건축의 도시화, 현대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릉의 자연환경은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대관령과 남대천이 흐르는 동해바다와 경포호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에는 강원도 특유의 산간문화가 이루어져 귀틀집 형식의 너와집, 굴피집이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형태의 평면으로 몇 해전까지 볼 수 있었다. 즉 산지의 자연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건축물로서 우리나라의 산간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을 구조들이 있었다.

또한 강릉의 동해바다와 대관령은 경포호수를 갖게 하였으며 그 주위에 경포대, 금관정, 호해정 등의 수많은 정자건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호수주변의 경관은 타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정철, 심언광 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이 많은 시구들을 편액으로 정자에 걸어놓고 있다. 즉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어느 한 요소는 호수와 정자가 어울려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에 와서만 볼 수 있는 풍광을 만들어 그들을 이 지역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다. 지역주의 건축은 강릉도시의 성격과 일치할 수도 있다. 관광과 교육의 도시, 해변과 호수, 송림과 호수에 비친 대관령 자락들, 철새들의 낙원 등이 생각나는 경포호수는 호안과 해변, 송림을 두고 이 지역의 정자건축에 어울리는 현대화된 또 다른 건축물들이 자리를 함께 할 때 강릉의 도시를 상징하는 명소가 될 수 있다.

강릉의 도심에서도 어느 거리를 걸으면서 그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적 이미지는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물들이 모여서 자리를 할 때 훌륭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또다시 강릉을 찾게 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부산·대구, 광주, 이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형태의 외관과 색채를 갖춘 건축물들은 결코 그 지역의 독창적 요소를 만들 수 없고 중앙건축의 모방과 예속화라는 불명예만



병산동 철기시대 4호 주거지



칠시당



전통 건축물은 도시의 뒷길에서 부조화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갖게 될 것이다.

한편 해안가는 바다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대비하여 집의 높이를 낮게 하고 처마는 조금 길게 내어 밀면서 창호는 이중창호를 사용하고 있다. 지붕은 무거운 기와를 얹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으면 지붕구조체와 기둥으로 사용할 재목이 풍부하여 초가지붕을 대신 하여 기와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한양 만석군 집과 강릉 천석군 집이 같은 집을 짓는다'고 민가에서 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산간지방과 해안지방은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강릉지방의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모든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건축재료와 역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릉지역에서도 산간, 해안 어디에서나 지역 자연환경에 적응한 특징적 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보다는 건축물의 기능과 상업성을 고려한 획일적 형태의 것들이 근래에까지 해안, 산간지방에 자리하고 있었다. 형태, 색상, 질감 등의 외부적 요소와 공간의 진입부, 전이부, 내부공간 등에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자의 고심한 디자인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40대의 이 고장출신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지역건축에 관한 향토적 건축시관이 형성되면서 경포와 소금강입구 등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지역에 실험적 건축물들이 건축되고 있으며 또한 도심지에는 주거건축을 떠난 상업건축이 재료의 사용, 외부공간의 노출 등에 괴감한 현대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강릉 지역의 독창적 건축문화의 나이갈 바를 제시하고 있어 장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주의 건축의 활성화는 그 지역의 건축디자이너가 건축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임할 때 타지역 건축문화의 도입을 막을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 건축문화를 육성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즉 그 지역의 건축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곳의 사람과 문화와 풍속과 자연환경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

본 건축물 뒤에 강릉의 자랑 객사문이 있다.



객사의 위치에서 문 쪽으로 바라볼 때 현대화된 국적없는 건축물만 보인다.



객사문의 출연구조

객사문의 기둥

림만이 그 지역사람과 문화에 최적의 가장 좋은 건축공간과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비록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먼 장래를 보면 확실하고 가장 바람직한 지역건축 활성화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도시 건축의 모방,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의 개념, 행정편의를 위한 건축행위들은 지역의 뿌리없는 건축적 사고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경포대와 호수
(경포호수 주변 자연과 함께 한 전통건축)



경포호 주변의 강한 색상을 지닌 건축물
(자연과의 부조화)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없는 건축물들

강릉 - 도시 · 건축 읽기

A Look of Urban Aspect & Modern Architecture in Kangnung

김효남 /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Hyo-Nam.

강릉의 도시적 특성

도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모습이 서서히 달라지며, 그 속에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 흔적은 고향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며, 그 지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상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강릉은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왔으며,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로 유명하다. 경제개발의 기치아래 짧은 시간 내에 건설된 계획된 도시와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발전하였으며,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오랜 세월을 뿌리를 내리고 생활해오고 있는 보수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강릉이란 지명에서 연상되는 것은 객사문, 선교장, 향교 등의 고건축과 경포대 해수욕장과 정동진, 소금강 등의 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는 도시이다.

강릉은 관광지를 위한 도시적 기능과 영동지역의 중심 역할과 대학이 4개나 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강릉은 도시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다. 서쪽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연속되며, 동쪽에는 바닷가 있어 도시의 경계가 자연 조건에 의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의 발전 축이 남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를 남북으로 분절시키는 남대천에 의해 지역이 구분된다.



대관령에서 바라본 강릉 전경

도시는 지형적인 특징과 경제적 배경(관광 배후도시)에 의해 모습이 결정된다. 또한 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의 형성과 지역 특유의 강한 바람 방향은 건축물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도로가 산맥과 직교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물을 동남향으로 배치).

서쪽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대관령을 향한 동서의 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7번 국도에 의해서 십자형의 단순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5거리와 6거리 같은 복잡한 도로가 생겨나게 되어 교통체계가 혼란스럽다.

강릉의 지역적 구분

대관령이 시작되는 성산은 강원도의 내륙과 연결되는 곳으로 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모습을 바꾸어 버렸다. 각자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기존의 건축물과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모여들고 이를 상대로 하는 상업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빠른 속도로 지워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의 경우는 한옥주택 모양으로 건축을 권장한 지역으로 예전의 집단 거주지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리한 한옥형태만의 모방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도시내의 건축은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형태의 다양화와 재료의 선택에서 획일성을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며 도시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특히 단순한 육면체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붕 씩우기, 창문 형상의 다양화, 형태 구성을 위한 의도적 첨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의 가로는 새로운 건축물들과 기존의 건축물들이 정리되지 않은 도시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새로운 건축물들로 치환될 경우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가로공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가로의 성격상 대중과 접촉이 많은 상업 시설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단일 건축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Propagandisiv이나 Sensualism의 확산이 우려된다.



강릉의 번화가 명동



강릉 종합운동장 주변



포남동 신 주거지



포남동 택지개발지

정동진은 새로운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과거의 흔적이 빠른 속도로 지워지고 있으며, 건축물들은 상업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며 무질서하게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소금강지역은 좋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제각각의 모습과 치장을 한 건물들의 도열은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도권의 외곽지역에 만들어 진 인위적인 경관의 재판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경포대는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과 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며, 숙박지구는 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국적불명의 형태와 도로망의 불규칙성은 부지의 형상에도 영향을 주며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된다. 경포에서 사천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새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새로운 상가들이 건설되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이 결여되어 있다.

관광지역들은 천연의 경관을 삼업적인 발상에 의한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 건축의 변천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던 도시는 80년대 말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90년대의 대단위 세대 고층아파트 건설은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단일 중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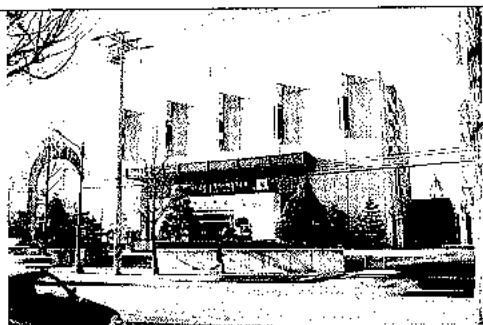
에서 부도심지역을 형성하며,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새로운 택지조성은 도시구조 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단독거주 주택 없이 다세대로 건설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단조로운 형태를 가진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형태의 다양화와 외장 재료의 다양화 등을 통한 가로의 변화를 준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획일적인 건물의 규모와 주차장의 부족 및 형식적 녹지공간의 구성 등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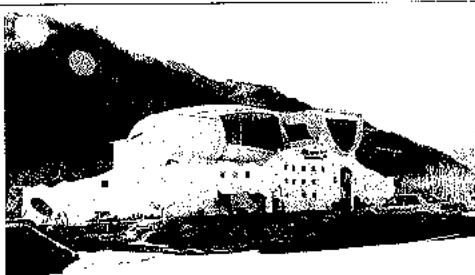
시대별 건축물 기행

건축을 읽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작가의 의도는 배제되는 것으로 독자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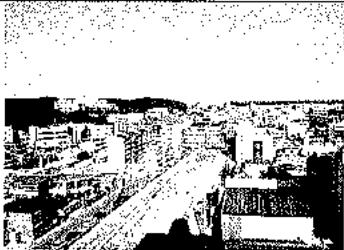
한국은행 강릉지점은 70년대 세워진 건축물로 강릉시내가 시작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형태의 완성도를 위한 커다란 아치는 부출입구로 주출입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 비례감이나 통일성을 주는 부분적인 디테일의 처리가 매우 우수하다.



한국은행 강릉지점



가로변의 상업건물



강릉역 뒤의 도시모습



도시외곽의 전원주택



도시외곽의 상업건물

아래 사진의 병원은 80년대 건축된 건축물로 비대칭적인 형태의 구성을 통한 조형성이 돋보인다. 점진적 변화감을 주는 계단실 매스와 중심축을 갖는 몸체와의 결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릉의 관문인 대관령을 내려오면 보이는 박물관은 90년대에 건축됐다. 고인돌의 형상을 보여주는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주며 도로보다 낮은 부지에 묻혀있는 모습으로 크지 않은 매스로 처리되어 있어 이흔 아름 구비를 어지럽게 내려온 방문객에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부지의 높이 차를 이용한 배치와 입구의 계단은 지역 특유의 산악의 계곡을 연상하게 한다.

소금강에서 진고개를 향하는 6번 국도변에는 새로운 시도의 건축들이 행해지고 있다.

눈에 띠는 초가집 형상의 3부분으로 구성된 지붕과 흙으로 벽을 구성하며, 경사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이 상이한 입면을 가지고 있다. 실내는 바닥의 높이가 다른 3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천장 높이를 가진 변화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어두운 산을 배경으로 땅에 엎드려 있는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이 건축물은 흰색으로 마감한 것이 산이 배경이 되어 강렬한 느낌을 준다. 신선한 흥미를 유발하며, 형태구성을 위한 빈 공간의 연못을 만든 것이 매우 재미있는 시도이다. 경사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한 것은 좋으나, 전면에 비해 후

면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쉽다.

80년대 말부터 강릉건축에 변화가 있었다. 형태의 변화, 외장재료의 변화 등을 보였다. 이는 경제력의 축적과 수요자들의 요구의 변화가 이루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의 어느 한 부분에 오랜 세월에 걸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간직하는 이미지는 기억과 흔적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오래오래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정서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감정으로 많은 사람이 간직한 고향이라 느낌일 것이다.

소도시의 경우는 이러한 흔적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병원



종합운동장 주변의 체육시설

좌담: 강원도 건축의 현재와 미래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angwon-do Architecture



박경립____ 오늘 이 좌담회가 우리 스스로 강원도 건축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건축을 직접 담당하시는

건축사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된 정부교 소장께서 건축을 만드는 입장과 시민입장에서 건축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이병상 과장께서는 관에서는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읽고, 건축사들이 이 건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뒷받침을 해 주는가? 또 관 나름대로 강원도 가꾸기라고 할까요, 강원도의 건축문화를 수용하고 정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축가들에게 바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로 전통건축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정재국 교수께서는 강릉의 지역적 건축성이라고 할까요. 토착성을 갖고 발전해온 강릉의 건축문화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무리한 점은 없는가?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남 교수께서는 강릉의 현대건축을 부탁드렸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건축이야기를 하다보면 건축가들끼리만 가족 잔치를 하는데 오늘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의견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기 어려웠던 조경학자인 박봉우 교수와, 인류학자이신 한경구 교수를 모셨습니다.

박봉우 교수께서는 제가 강제로 '건축을 닦는 그릇, 조경 그리고 춘천'이라는 어려운 제목의 글을 청탁해 광장히 근혹스럽게 했습니다. 오늘은 건축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의 상태와 앞으로 그 그릇이 어떻게 가야지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 건축가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경구 교수께서는 인류학자십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다루게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분이 우리들의 논의가 인간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자연과 도시, 건축, 인간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강릉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주시지요.

정재국____ 제가 받은 테마가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입니다. 강릉의 전통건축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적인 건축

일 시 / 1998. 12. 23. 14:00~
장 소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디자인 자료실
참석자 / 박경립(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사회)
 박봉우(강원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한경구(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효남(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재국(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병상(강원도 주거환경개선과 과장)
 정부교(정부교 건축사사무소 소장, 강릉시의원)



좌담광경

으로 들어가서 현대적인 수용이라는 단어를 밟았을 때는 난해하고 소화하기 벅차지 않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뿌리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라는 것부터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전통건축은 자연환경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전통건축이 결국 자연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현대건축에서는 자연에 대한 수용보다는 좀 더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미래에 바라는 건축은 자연과 인공이 함께 하는 건축이 강릉에 많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에 있어서의 자연환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어서 전통건축은 바다와 산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졌는가? 그렇습니다. 대관령이라는 그 산자락 안에는 너와집, 굴피집이 있었고, 이러한 자연에 적응하는 건축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해안의 문화가 있습니다. 영동지방에서 선사시대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보면 동북아 계통에 흐르는 공열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문화의 흐름을 대략 가늠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다는 것은 거의 자명합니다. 이것이 합경도 지방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 공열토기가 대관령, 혹은 고성, 간성으로 해서 진부령쪽으로 해서 영서지방으로 갑니다. 대관령에서 가고 또 조금 더 밀로 내려와서 삼척, 동해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것들은 북한강 상류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선지방 쪽으로 가는 것은 남한강 상류쪽으로 갑니다. 또 대관령을 통하여서는 평창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문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영동지방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해안을 따라오면서 이 문화가 흘러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거문화의 하나의 패턴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선사문화를 거쳐서 근래의 목조건축에 나타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의 건축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향부터가 동향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집이 배치됩니다.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라시대 무덤도 이 지역에서는 동향입니다.

그 외에 우리 전통건축에 나타난 바다에 의한 자연적인 영향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집의 천정고, 즉 다시 말해 집의 층고가 낮습니다. 보통 낮은 것은 1.8m까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도리 밀까지입니다. 1.8m라고 하면 거의 우리 머리가 부딪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간지방으로 가면 어느 정도인가? 훨씬 높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면 2.7m가 보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바람의 영향일 것입

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돌아치므로 처마가 같게 빠집니다.

또 구조에 있어서도 해풍에 견딜 수 있게 목구조나 기단부의 마루나 바닥이라든지,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다릅니다. 창호도 전부 이중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 가옥에도 이중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자연에 적응한 형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 강릉지방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강릉의 천석꾼 집이 서울의 만석꾼 집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혹자는 강릉 사람들이 사치스러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기가 넉넉하고 좋은 동네였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목재가 일단 풍부했고, 그 정도의 재력도 있었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 지역은 원래부터 초기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디시피 강릉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니다. 대관령 바람이 불고, 바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와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와집을 지으려면 기와를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 기와를 얹으려면 하부의 목재가 굽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집들이라도 작은 민가인데도 기와를 다 잇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건축에 반영된 자연적인 영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문적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릉은 유교를 숭상하고, 상당히 내외적인 법도가 엄격합니다. 그것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담장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특징과도 관계가 있지만, 영동지방은 담장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최대석씨 가옥이나 이진기씨 가옥들을 보면 담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적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막는 자연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엄격한 내외 법도에 의한 독특한 하나의 분류입니다. 이것들이 전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의 건축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강릉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참석한 정소장과 같은 40대가 주축이 되어, 보다 나은 건축을 추구하는 세대가 등장하였으며, 이념을 가진 건축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면 산간문화가 있고, 해안문화가 있는 전통을 수용한 형태의 건축물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소금강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건축물들, 이것들은 확실히 산간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간문화도 지금은 조금씩 그 기능이 바뀌어갑니다. 현재는 주로 지어지는 건물이 카페 등의 것으로 건축의 외부적인 이름다움을 따지는 용도이고, 이러한 경향은 바닷가 쪽에서도 위락공간을 응용한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립 다음 말씀을 김효남 교수께서 이어가 주실까요. 지금 정재국 선생께서 강릉에는 분명히 지역의 풍토성이 있고, 그것에 잘 조화되어 만들어져 온 좋은 건축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현대건축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지역을 본 입장에서 '파연 그것만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이해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가?, 질적 전환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좀 해주시지요.

김효남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릉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광활 배후도시라는 상반되는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시 자체를 보면 정동진이라든지 소금강, 경포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의 빠른 기간 내에 계획되고 건설된 신흥도시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백두대간이 막아서 도시발전이 안 되고, 동쪽은 바다가 있어서 발전할 수 없고, 도시의 경계를 자연적 조건이 명확하게 구획시켜 줍니다. 봄이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기 때문에 가로계획을 살펴보면 방향이 대관령과 직교되는 도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아파트들은 동남향으로 선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 강릉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현대건축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것은 상업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설계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설계경기에 심사를 들어가 보면 많은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보수성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들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소유주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어지는 지역은 강릉인데 소유주에 의해 설계의도라든지 또는 방향설정을 하는 데 있어 중앙집권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시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기구가 사는 단독주택은 전혀 안 생기고, 대부분 다가구주택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가로변도 저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되고, 상층부는 다가구가 밀

집합니다. 아까 정재국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건축가들이 의욕을 갖고 하다보니 과거의 다가구, 다세대에서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형태나 외장재의 선택, 공간의 해석 등이 진보한 것은 틀림없으나 획일적인 규모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도시가 전부 그렇겠지만 80년대로 들어와 고층아파트 붐이 일면서 도시 스카이라인은 전부 깨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고도를 제한해 어떤 지구는 고층, 중층, 저층의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들이 행해지면서 스카이라인이 깨져버렸습니다.

더욱이 강릉지역의 경우 다른 도시에 없는 '비행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피하면서 채산성을 맞추려면 산을 다 파헤쳐야 하고 응벽 사이에도 건물을 세워야 하는 무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전체적인 강릉 현대건축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상업성에 너무 치중하면, 가로 자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전체적 맥락없이 단일건물만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는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재국 김교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이야기하려면 도시 스카이라인, 주거지가 도심에 진출한 문제 등을 포함한 도시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 몇 년 전만 해도 강릉이라는 도시를 대관령에서 보았을 때 고층건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낮으면서 아주 아담하고 송림이 우거져서 정말로 아득하고 때문지 않은 도시구나! 이런 곳에 건축물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도심에 들어온 것이 불행하기도 아파트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서 전체가 흐트러졌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흐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무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전통건축을 이야기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객사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객사문은 강릉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것에 면하여 시청이 있고, 또 그 인근에 칠사당이 있습니다. 이런 흐트러지고 전통과 융화되지 않는 강릉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시청에 가리어 객사문이 안 보입니다만, 옮겨지는 시청 자리에 칠사당과 객사문을 엮어 가지고 그야말로 전통적인 도시건축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하나의 정해진 길이지만, 우리 강릉의 도시경관에



있어 대단히 인상적인 이미지를 떠리라 봅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대건축 속에 전통의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민족주의적인 건축물들에서 외부적인 형태에 대한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일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 있던 그 전통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용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공간에 현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도심지의 한 공간을 할애하여 전통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전통적인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수용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것이겠지요. 외국에 가보면 지어진 지 400~500년 된 건물에서 지금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사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릉의 상징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객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말에 지어진 몇 개 남지 않은 건축물 중 우리나라에서 엔타시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건축물이며, 가장 오래된 문루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현재 강릉의 지역건축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외부공간이라든지, 출입공간이라든지 혹은 내부의 한 요소에 이런 것이 좀 치출하지만 적극적으로 본떠 활용해 주십사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효남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것을 쓰면서 저는 제목을『도시건축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읽기’라는 자체를 “작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독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읽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건축이 지어지고 나면 건축가라는 사람은 완전히 배제되고, 그 다음은 사용자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흔자 생각하며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녀 보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 기억, 흔적 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건축물들이 강릉만은 아니지만 강릉의 경우에도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한 기와지붕을 사각형 형태에다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서는 전통의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교

수께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은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만히 놔두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앞으로 건축 행위를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도움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국보 1호라는 남대문을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립 두 분이 심도있는 의견을 가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교 소장께서도 두 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건축사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든지 어느 면에 주로 주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 강릉 건축사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 중심 테마로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건축의 경향을 건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부교 우리가 항상 건축을 이야기하면 중앙의 건축만 이야기했지 지역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강릉에서



태어났고 잠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서 머물다가 다시 고향에 와 있지만, 아직도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강원도에서도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건축이라는 면에서도 상당한 특색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가라든가, 사대부집,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리면 요즘 강릉의 현대건축에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 제가 10여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관령이라든가 하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축문화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이 발달됐고, 또 서울에 있는 실무 건축사들이 직접 강릉의 건물을 설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강릉에 있는 건축가들도 정보는 주로 중앙에서 받아오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보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건축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1세기, 2세기가 지나면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을 의뢰받아서 집을 지을 때도 도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설계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주를 받아서 설계하기에 급급하고 그 건물 하나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생각하고, 그 옆 건물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나 하는 것은 사실 의욕은 있으면 서도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건축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 건축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인 행정과 학계, 그리고 우리 건축가들 세 쪽이 잘 화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건축문화가 독자성을 갖출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더 정착되어가고 그에 따라 지역적인 건축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박경립 예. 실제 현장에 임하는 분께서 간략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토론이 되어야 할 시항은 나름대로 1980년 이후에 강릉지역에 정착을 해서 설계를 시작한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전통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도시와 건축의 연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혹시 건축주들이 건축이라는 것이 문학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무언가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호남 교수께서 말씀한 1980년 이후에 변화가 된 가장 큰 것들 중 하나가 주택건설이 택지개발과 더불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 커졌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도심주거 형식이 이유없이 지방의 소도시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아무 대비없이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서울에도 그렇게 지었다는 이유로 강원도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밀고 들어오면서 강원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도시경관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건축사들이 책임이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건축사의 이름을 걸고 지어진 아파트가 강원도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사가 배제된 건설회사들이 많이 만들어냈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이름있는 건축, '그 건축을 누가 했는가?' 앞으로는 건축가의 이름이 밝혀지는 건축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건축사의 이름이 배제된 건물들이 전 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언젠가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생각은 강릉에서는 강릉 나름대로 건축위원회에서 노력해 고도제한을 엄격하게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하는 것과 이병상 과장께서 그런 문제를 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는지 먼저 김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고 받아서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호남 우리 정소장께서 너무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지역건축을 말하는 첫단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라나서 활동하는 사람의 건축은 지역건축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료를 많이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설계를 해 놓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쭉 자라나서 한 설계는 그 지역의 정서가 무엇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국 저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건축이라 하는 것이 미국처럼 큰 나라라면 기후가 틀리고 해서 지역건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역건축이라는 것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위치에 맞는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그 자연과 맞는 이러한 건물들이 제가 볼 때는 지역건축이라고 봅니다.

김호남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서 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릉시의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용적률이 200%로 둑여 있던 곳이 강릉, 경주, 제주도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강릉의 경우 이 200%가 고수되고 있을 때는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이 선이 무너지고 밟았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200%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한 50%만 늘리자. 그래서 250%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4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고도제한 말씀을 하니까, 한 번은 심의에 들어갔다가 심의에 올라온 것의 총수를 줄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강릉역 뒤에 보면 강릉에서 의미가 상당히 큰 화부산이 있는데 그 앞에 세워지는 것을 산 높이보다는 낮추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심의장소에서 물어보고 3개 층인가 4개 층인가를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 세워지고 나서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 박스를 그렇게 크게 올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이 너무 뾰족하게 올라가 버렸더군요.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것을 더 줄이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릉에는 선교장이라는 홀륭한 주거가 있는데, 그 주거의 경우를 보면 지붕선 자체가 뒤에 있는 조그만 동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무조건 몇 층은 안되고, 몇 층은 되고 이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자연적인 산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으면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론적인 측면만을 앞세워 가지고 몇 층은 되고, 몇 층은 안되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국 오늘 지역주의 건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대상을 주거문화, 특히 아파트문화로 논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나라의 아파트문화는 그 자체가 건축가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개발론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건축물이란 건축가들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건축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건축가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용적률을 딱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의식있는 건축가들은 아파트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담담한 것이 정선 골짜기에 서울에서나 있음 직한 2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왜 들어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주의 건축을 논하면서 주거건축에 있어서 아파트문화가 대한민국 전체를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있겠으나 우리는 강릉에서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용적률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주차장에 관해서도 저희들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강화된 주차장법을 강릉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심의하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건설업자들은 당장 건축법규만 맞추면 됐지 왜 더 많이 요구를 하느냐? 하지만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주거문화와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가령 지역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면 아파트를 이야기하지 말고, 단독주택이나 아까 김호남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평면형태의 변화라든가 세월에 따른 변화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경립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접을 수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들에 의하여 지어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건축사와 나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합작품 대부분을 건축사가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지 강릉의 건축을 깎거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정재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경립 제가 그 말씀을 어쭙어 보는 것은 춘천도 똑같은 현상인데, 강릉이 조금 더 강력히 제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재국 조례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박경립 용적률과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오픈스페이스를 늘리고 고도제한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화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릉이 갖는 지형을 잘 살려서 그것들이 건물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혜택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강릉의 고도제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하고 이병상과장께서 말씀을 이어 주시지요.

이병상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남, 정재국교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스카이라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에서는 “경관 형성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춘천만 하여도 도심의 핵인 중심부에는 고층빌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양강변이라든가 이런 변두리에는 고층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서 그것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해나가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와 부딪치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18개 시, 도의 관광지나 해변, 하천, 산, 호수, 국립공원 등

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거기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역계획파에서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스카이라인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스카이라인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건축에서 설계자가 미와 기능만을 따지고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심의시에 건축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주로 하지만 그 외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배치, 각종 시설물들의 기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강릉이나 춘천이나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박스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건축을 지양하자. 그것을 탈 근대건축이라 할까요. 우리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려 합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이중코어를 만들어 한쪽은 현대적으로 또 한쪽은 고전적으로… 또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토속건축을 존중해서 설계하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이미지로 공동주택을 떠나서 오피스나 호텔, 상가 등 대부분 건축물들이 이미지가 없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에 건축사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인위적인 형태미가 아닌 내부공간의 기능을 외부에서 굳이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들을 외부로 노출해 하나의 조형물로 만드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러한 내용을 도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시, 군 건축위원회에서 권장해 주시면 내년부터 이러한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강원도 세상 만들기' 위한 건축민원에 관련되어 18개 시, 도의 도민의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 입주, 그 다음에 생활하기까지 무작위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50%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의 규제가 좀 많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 부실공사, 부실감리, 그 외에 이웃과의 분쟁이 좀 많습니다. 또 건축위원회를 수시로 안 열어 불편하다는 문제도 나오고,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비전문가분들도 건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야 할텐데, 우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설계도라든가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00년부터 건교부와 협의 하에 국고를 50%정도 지원 받아 CAD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18개 시, 도가 CAD시스템을 갖추어 청사진이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건축허가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E-mail이나 디스크만으로 하려 합니다.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200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강릉, 춘천, 원주를 시작으로 2001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고____ 강릉지역의 고도제한, 주차장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릉지역은 춘천이나 다른 대도시와 달리 미관지역 설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바뀌었고, 개인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다보니 미관지구라든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규제 등 강릉에서는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카이라인의 문제도 결국은 관의 규제로 주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강릉도 지역도시로서 짧은 건축가들이 정착해서 많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를 보았을 때는 꽤 실험을 기울여서 했지만 주변의 가로 컨텍스트와는 부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가장 큰 문제는 강릉이 지역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건축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최근에 와서 너무 단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외국처럼 수리하고 보수해서 그 건물을 살려가면서 쓰려는 생각이 없고, 전체를 다 부수어 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동이라든가 남문동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지역들이 과거에는 강릉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였는데, 현재는 이런 지역들이 80~90% 이상 다 재개발이 되어 원래 강릉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릉을 생각하면 경포지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포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높여야 할 것인가? 그대로 4층, 5층으로 규제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강릉의 지역건축을 생각하는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건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립____ 이제 춘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박봉우 교수께서 '건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조경, 그리고 춘천'이라는 글을 쓰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춘천의 그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 접목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박봉우 우선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접분야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건축을 이야기하고 조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갖는 정체성, 또는 그 지역이 갖는 이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결국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자연성과 인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의 모습, 하천의 모습, 그 지형이 담고 있는 생물들 크게 봐서 식물의 모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성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인공이 하나가 될 때 그 지역이 갖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체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이미 그 지역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 근대에 들어와서 전용되고 있는 이러한 인공물들, 인간 스케일을 넘는 거대한 인공물들이 들어와서 서로 충돌이 되고 겹쳐지면서 또 다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후자, 인공물이 기준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를 덮어쓰는 상태에 있어서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이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에 있어왔던 정체성, 자연성 등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축면과 관련지어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이라는 부분은 앞서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개개의 건축으로서의 우수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주변과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또 건물과 지형조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지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은 기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 봅니다.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상과 생각을 표출해내기 위해서는 의뢰자로 하여금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는 건축과 건축,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역성,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천



이 되었던 강릉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춘천과 강릉이 제각각 특징있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성 중에 건축을 담는 그릇으로써의 지역성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형이 분지성 지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춘천도 예외 없이 분지성. 더욱이 분지성 내부에 들어있는 잔잔한 구릉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러한 구릉지가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릉쪽에 있어서는 전통도 많이 남겨져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부에 자연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통성과 자연성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강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립 예. 다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릉에서 온 선생님들도 춘천을 여러 번 오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강릉하고 춘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실 겁니다. 우선 주위가 호수로 둘러싸여 물이 많습니다. 과연 그 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물이 춘천의 그릇을 한정시키는 근원으로 작용을 했고,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갖고 있던 지형이 담들의 건설로 인하여 도시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우리를 건축뿐만 아니라 삶을 한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먹고살게 없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건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춘천은 교육도시, 행정도시, 관광도시라 불립니다. 교육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소비도시죠. 생산적 기반이 없고, 인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한 여건속에서 건축물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춘천은 강원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생각지 못한 혜택을 작은 인구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기관과 관계되는 많은 건축물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하나 많은 교육기관의 건물들이 지어져서 일반 건축물을 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 이전 것은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다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강릉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건축물이 춘천에는 거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남겨져 있지 않고 그런 문화가 부재했다고 오히려하시겠지만 춘천이 나름대로 상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은 선사주거지도 있고, 교동 헐거도 있고, 나름대로 그 옛날에 이 땅이 우리 문화를 일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 흔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가지 근대건축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소양로 기와집골의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입니다. 그것도 도청 아

래에 위치해 지금은 다 밀어 제치고 고층아파트들이 둘레를 다
둘러쌓게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만들었던 건축, 그것
이 강요됐거나 굉장히 어설프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일본식
기록들이 춘천에는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조사해야지 하
던 차에 갑자기 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평면을 떠날 수 없는 지
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본기록을 조사하던 연구팀에서 조금
남겨놓은 자료가 있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건너가면서 1970년대 말에 강원
대학교에 건축과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배우는 풍토들이 생겨났고, 여러 분이 건축과 교수로 춘천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지역에서 공부를 한 몇
분이 내려오셔서 활약을 했고, 영동지방 출신 분들이 활약을
했는데, 춘천을 연고로 하고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건축사를
따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지역
건축가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서울에서 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
에 지역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었
지만,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지역의 풍토를 이해하고 애착을
갖는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좋은 건축물들을 지어내게 됐
습니다.

이 향토건축가의 출현이 지방건축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제대로 반영시켜 주기도 하지만 꼭 지
역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소장께서도 강릉서 태어나서 서울로 공부를 하려
갔다 오셨는데, 공부를 배운 데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에서는 건축을 통한 필터가 서울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전
에 갖고 있는 것은 자랄 때의 기억으로 동결되어 있지 않는
가? 지역건축가건 외부에서 온 건축가건 이제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 컨텍스트와 지금 현재 삶의 이해의 바탕 위에서 건축
을 하는 태도 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
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80년대로 넘어
서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좁다는 이유로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
거나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춘천경찰서 자리인가요? 그런 것
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도심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보행자
도로, 시민을 위한 장소로 그 자리를 공원으로 쓰려나 했더니,
그걸 산 것이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경찰서보다도 더 시민들과
관계없는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앉아서 오히려 주차할 곳
도 막고, 누가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폐쇄적인 공
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소성이라는 문제로 도
시맥락적으로 건축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검토되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한경구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전공이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은 대개 체계적으로 한
군데서 오래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춘천



에 쭉 있으면서도 춘천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좌충수립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고 가면서 본 인상 몇 가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
고 싶은 것은 춘천에 있어서 이 호수

라는 것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춘천을 들
러싸고 있는 자연경관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 수 있는 가능
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도 않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아주 어수선합
니다. 그리고 시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아득하다거나 푸근하다
거나 정겹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더욱이
춘천에 놀러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남춘천역이나 춘천역, 시외
버스터미널과 같은 곳을 보면, 뭐 지방도시들이 대부분 그렇게
깔끔한 곳이 많지 않지만 춘천처럼 시설이 안 좋고, 지저분한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청소재지이고,
관광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까? 물론 시나 도에서 노
력을 하기는 하지만 교통안내판이건, 관광안내판이건 사람들이
왔을 때 반겨주고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게
하고, 결국은 돈도 벌고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명동이나 중앙로 어디를 가
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물 각각은 품이 나는데 서로 연결이
안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중의
하나는 은행이나 관공서, 대학들 전부 외부에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전부 각개약
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
은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랄까,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사 수준에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지 건축사 자신의 문제
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다 나 짚났다고 각개약진들을
하고 있을 뿐 옆에 건물이나 주변관계라든지 시민에 대한 배려
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지
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저력이 너무 약한 것이 아
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시내를 다녀보고 어디를 가보건 간에 춘천다
음이 느껴지는 게 부족한데, 춘천이 어디 있는가? 의암호라든
지, 소양강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야지만 호수다움이랄지 춘천
스럽디랄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제가 둔감

하고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건축물에서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명동도 그렇고 강원대 후문 후평동 일대 중앙로 등을 걸어다녀봐도, 걸으면서 뭔가 재밌고, 즐겁고, 자꾸 걷고 싶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런지 보도블록은 왜그리 잘 깨지는지? 이것이 불량품이라서 그런지, 기운 때 문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건축물에서 건축물로 이동하는데 아주 잘 깨집니다.

지저분하고, 그리고 호반의 도시고 교육도시다 말하지만 보도도 굉장히 좁은 데가 많고, 턱이 있어 한 눈 팔면서 한가롭게 걸을 수 있는 여유될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도 너무 달리고, 너무 많고, 호반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붙일 만한 곳이 사실 시내에 많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 물가에나 서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가 역시 큰 것도 아니고 언덕이 좀 많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걸어서도 웬만한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데,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들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사람들이 워낙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 앉을 스케줄이 안되고, 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일 데가 없습니다. 박경립 선생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중앙로도 그렇고 팔호광장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거리가 불친절합니다. 그나마 사람이 조금 모이는 데가 명동의 가장자리하고 시청 앞의 광장인데, 거기도 피카디리극장 앞의 일부를 오픈스페이스로 내놓아 밝게 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조금 모이고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거리지요. 도청 앞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광장이고 로터리인 광장이 전혀 광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를 하고 그럴만한 장소가 시장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길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건축물들이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이 더구나 이걸 도시라고도 할 수 없고, 마을이라고도 할 수 없고 공동체를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춘천의 인구를 20만, 어떻게 보면 24만까지 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계속 사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머무르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의 기관들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아름답게 여기를 가꾸고 투자를 하 고 장기적으로 예쁘게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의식이 발달하여,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춘천의 토박이로 있는 분들이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대하여 무관심해서 그런지?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의식, 건축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뺐을 때는 자기네 입장에서 건물을 그냥 지어놓자 그 건물이 춘천에서 다른 건물들하고 어떻게 건물들의 사회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춘천에서 과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괜찮은 건물이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철근콘크리트로 짓기에 최소한 100년은 갈텐데, 30년 후의 춘천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 그 때도 이 건물이 좋은 건물로 남을까? 지금 후평동이나 석사동을 개발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50년이나 100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당장 앞으로 몇 년만 쓸 건물을 짓는 것 같습니다. 길을 내는 것도 그렇고 시내에 녹지공간 같은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바깥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숨막하게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성의 단절 같은 것도 결국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릉의 경우는 비교적 규제를 잘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선 춘천보다 강릉이 뜨내기가 훨씬 적고 뿌리박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릉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강릉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힘이 강릉에 더 많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춘천이 외관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춘천이 굉장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 이런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인위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건물들을 짓고 있는가? 학교건물 같은 것이 대표적일텐데, 일년에 4개월은 춥고 또 4개월은 더워서 찔찔매고, 편안한 게 일년에 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참으로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춘천의 건축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과는 너무 상관없이 건물들을 쭉 지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축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와 관련된 문제이고 권력적인 문제이며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춘천에서 특히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경립 춘천다운 게 있는가? 그리고 춘천답지 못하더라도 기본은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건축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그 도시를 만드는 주체기관, 그리고 시민의식들이 합해져서 전체적인 아티클레이션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나?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나온 이야기 중에서 보충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재국 지역주의 건축이 결국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나? 저는 그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교수께서는 춘천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건축이 왜 다르나? 우리가 서울에서 보는 것이 부산에도 있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본 것이 강릉에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주의 주관점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강릉에 왔을 때 강릉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좀 더 나이가면 강릉사람이 강릉지역을 떠나 서울에 있을 적에 강릉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리, 건축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주으로 하나의 의미겠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의 형태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색상이나 질감에서도 올 수 있고, 외부적인 면에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지면서 갖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이겠죠. '나는 그 길을 걷고 싶다. 이 건축물을 웃고 있고, 옆에 건축물을 웃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주듯이, 우리가 웃고 있는 건축물이 많은 그 길을 걷고 싶은 것 그것이겠죠. 저는 충분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이 테마니까요.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건축은 국토는 굉장히 좁지만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민가는 것도 강원도 타입이 있고 충청도 타입이 있고, 남부 타입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좁지만 산악지대가 있고 기후가 급변하는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적응하는 건축물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다니다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건축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주의 건축이 지역적인 특징을 갖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 살아갈 길이 그 지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건축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인간적인 삶, 행위자체를 서울에 있는 사람, 혹은 어느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왔을 적에 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까지 속

속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즉 지역주의란 결국 지역건축가에게 그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저는 그 지역을 이해하는 건축가들이 결국 이것을 선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은 지역건축가를 살릴 수 있고, 서울에서 모방해 와서 그냥 짓는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주의 건축으로 가는 젊은 건축가들에 대해서 주도된 태동이면서 과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몇 강릉적인 특징을 갖는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특한 것은 돌을 많이 사용한다는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의 느낌자체로서 지역적인 특징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강릉의 지역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의 태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경립 정소장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건축과 교수들이나 우리 토론자들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관에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해서 이해를 같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교 춘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가 저는 지금 강릉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수께서 강릉건축의 방향을 좋게 평가해 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역성이란건 건축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건축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건축주가 있고, 또 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요사이 건축사들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너무 실험적인 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포호 주변의 건축물들이 유치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보수주의적인 건축가라고 말을 하지만 건축은 여성들의 웃하고는 틀립니다. 한 번 지어지면 그냥 치워질 수 없는 것이 건축의 색깔인데 강릉 경포호 지역으로 요사이 지어지는 숙박건물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들출시켰던 설악동 지역의 어관촌을 다시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한편으로 저도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사실 저도 그런 지역에 그런 여관을 설계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의 건축물들을 보면 두 개의 힘, 즉 종교적인 힘과 통치권력의 힘, 이 두 가지 힘으로 인하여 건축이 발달되어 왔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방자치제라고는 하지만 통치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건축물이 주도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춘천에서도 관에서 주도한 건물들이 전체 건물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였듯이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건축물을 볼 것 같으면 관가라든지 객사문같은 것들도 관청건물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지역 건축물을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의 철학이 어떠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단체장을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로 뽑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의원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계된 학자들, 교수들은 또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경립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쭉 들어보셨으니까. 니름대로 아파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이병상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행정에 참고될 만한 정보를 많이 듣고 갑니다. 우선 대부분 말씀하시는 스카이라인, 경관형성, 그리고 도시의 특색, 이러한 사항인데 우선 문제점으로 규제나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법으로 묶으면 여러 가지 수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지금 시, 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건축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을 비롯한 심의위원회들이 일관된 원칙과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1차적으로 경관형성이나 스카이라인, 건물형태를 걸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봉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하는 심의규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위원회에는 적어도 몇 개의 일정한 기아드라인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제가 건축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해 보았지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참석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가 한번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이런 방향을 보는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앞의 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춘천 외곽지역 같은 경우도 건물을 1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하였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춘천의 근교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라고 해도 일정한 기아드라인 몇 개는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언제나 이야기되어야 하며,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그때그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립 아까 한선생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것에 대한 노력과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과 건물사이, 즉 인도의 처리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분 부분으로 찔리고 공중에 떠버리는 그 부분이 건축적으로는 전이공간, 연결공간, 유통공간 등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속상해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그런 것을 구속력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경직화되고, 그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선생께서 춘천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그 엉망이라는 춘천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뽑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나마 2위로 뽑힌 춘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중소도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전주라는 도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도시였는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그 모든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도로에 차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걸어다니면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경구 춘천보다 차들이 훨씬 빨리 달리죠.

박경립 그런 면에서 춘천은 니름대로 아직도 가꿀 여지가 있고, 강릉은 훨씬 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강릉은 건축 이전에 역사문화가 강원도의 한 축을 이루어 온 문화 중심지였고, 그 문화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건축문화 또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수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수적인 것뿐만 아니고 자기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

력이 있다고 봅니다. 역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향이 아니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노력하고 건축을 일구어 왔던 두분 교수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같은 동료 건축인들로서 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가서 활약을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큰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축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들 건축인들이 건축인의 입장에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라는 신념과 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한경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도도 만족시켜 주고, 조경과 환경을 잘 고려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켜주고, 전통을 그대로 답습은 안 하지만 그것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50년 후에는 참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상을 준다든지 하는 노력은 안 하는지요? 규제로 묶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발굴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모여서 거리를 이루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관광자원도 되고, 정을 붙이는 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윤이 따르게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경립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어진 것을 가지고 상을 주는 제도가 생겨 났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것이 큰 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건축문화를 위한 모임이 있다든지 그래서 상금이 없더라도 진짜 건축가와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좋다고 아주 진정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선정을 해서 명예롭게 주는 그런 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런 모임들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해 봅니다.

관에서 전에는 상 받으면 인센티브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상들을 개발해 봄직합니다.

박봉우 박교수님께서 건축과 건축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조경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건물들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우수한 가치가 상승효과를 내지 못한다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조경 처리, 특히 수목을 가지고 연결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로 자연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관입해 들어오는 것,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

다고 저는 봅니다.

강릉이 지금 강릉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가려 한다면 그 소나무 밭을 어떻게 도심지 속으로 관입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심각하게 개진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훼손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박경립 예. 그 이외의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글로 쓰거나 토론회를 갖거나 해서 확산시키기로 하고, 우리의 건축, 도시가 진짜 아름답고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원지역 건축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지역건축가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좌담회가 지방화시대에 지방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서로 협조해서 모두 같이 강원도의 건축문화를 창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Ⅲ) – 교육위원회

Report on the ACA-8(Ⅲ)

김지덕 / 본 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아카시아포럼10 집행위원장
by Kim Chi-Tok

■ 머리말

금년(1998년 11월 11일부터 12일)의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회의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아카시아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하는 ACAE 회의에 15개국이 참가했고, 참가 대표는 대부분 각 국가의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였다. 건축교육에 관련한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하였고, 미래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는 각국의 건축교육에 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은 물론 잘못된 정책의 변화와 UNESCO 교육관련사항 특히 WTO, GATT, UIA에서 요구하는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항목과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ation(건축교육인증)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ACAE의 역사

ARCASIA 국제 조직 건축사 협의회내에 ACAE의 교육위원회 조직은 1967년에 CAA회의시 조직되었던 것으로 1969년에서 1974년 사이에 ARCASIA 국제협의회 조직과 동시에

1969년 12월 8일 홍콩에서 제1차 소회의

1970년 9월 12일 싱가폴에서 제2차 소회의

1971년 5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Canberra 제3차 소회의

1972년 7월 4일 Singapore 제4차 소회의

1973년 2월 24일 인도 Ahmedabad에서 제5차 소회의

1974년 7월 22일 싱가폴에서 제6차 소회의를 거쳐

1974년 아카시아 실행위원회가 탄생되면서부터 75년 10월 10일 Colombo에서 첫번째 Regional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의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 Malaysia Kuala Lumpur, 79년 3월 2일 싱가폴, 1979년 9월 17일 Jakarta에서 공식 ARCASIA의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ABAE)의 탄생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서 1981년 ARCASIA의 정관이 확정되면서부터 80년 8월 Bangkok에서 ABAE의 첫 이사회가 열렸고, 이때부터 매년 건축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협약한 바 있다. 참가국 숫자는 10개국이었고, 81년 8월 6일 Hongkong에서 Sim Hong Boon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축과 학생을 위한 여행 Scholarship기금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1982년 10월 Colombo에서 제3차 ARCASIA이사회에서 ABAE회의가 있었고, 1983년 8월 Pakistan Lahore에서 제4차 ARCASIA이사회가 있었으며 이때 ARCASIA 포럼이 처음 시행되었다.

1984년 제5차 이사회, 제2차 Forum이 Manila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 건축사협회 공식대표단의 참가가 시작됐던 해이라 1984년 ARCASIA 제1차 회의에 김지태 회장외 22명의 공식대표단이 참가했었다. 1985년 인도

Bombay 제6차 이사회에 오웅석 건축사협회 회장, 송기덕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지덕위원 3인이 참석해서 KIRA가 ARCSIA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이때 ABAE가 ACAE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이후 86년 10월 9일 Malaysia Kuala Lumpur ACAE 회의에서 Lochi Gunaratna교수가 ACAE 회장으로 선출 1986년부터 학생 Jamboree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학생 2명씩을 격년제로 초청 대회를 하고 있으며, 1987년 10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8차 아카시아 이사회와 Forum을 개최하여 아래 <별표1>과 같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금번 Colombo-Srilanka에서 논의되었던 ACAE 회의는

1. 건축과 학생 교육 System의 문제
2. UNESCO 교육문서의 검증
3. 교육인증 관련 각국의 현황과 그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ARCSIA 내에 ARCSIA Accreditation Board를 두자는 제안이 나와 상당시간 이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 특히 University Accreditation Procedure에 대한 제안 등도 있었고, 논의의 대상에서 여러국가가 Architecture Accreditation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우리나라처럼 KIRA, AIK, KIA 건축 3단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CPD(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새로운 인증기관을 새로 탄생시켜야하는 현황에서 인증위원회를 이제부터 만든다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으리라는 예측이다.

늦었으나 WTO, GATT, UIA의 CPD, PPC의 제반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건축사 면허제도의 분명한 인증을 위해서는 Licence문제, Practice Architects 문제, University Educational Accreditation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이 어렵다. 다른나라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이미 Accreditation위원회가 실존하고 그 방안을 이미 갖고 있기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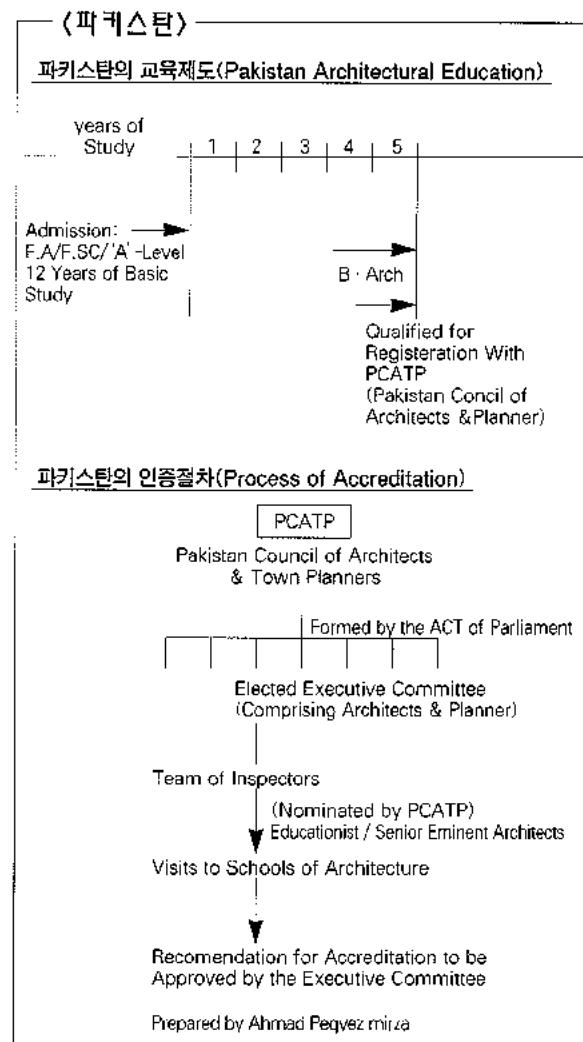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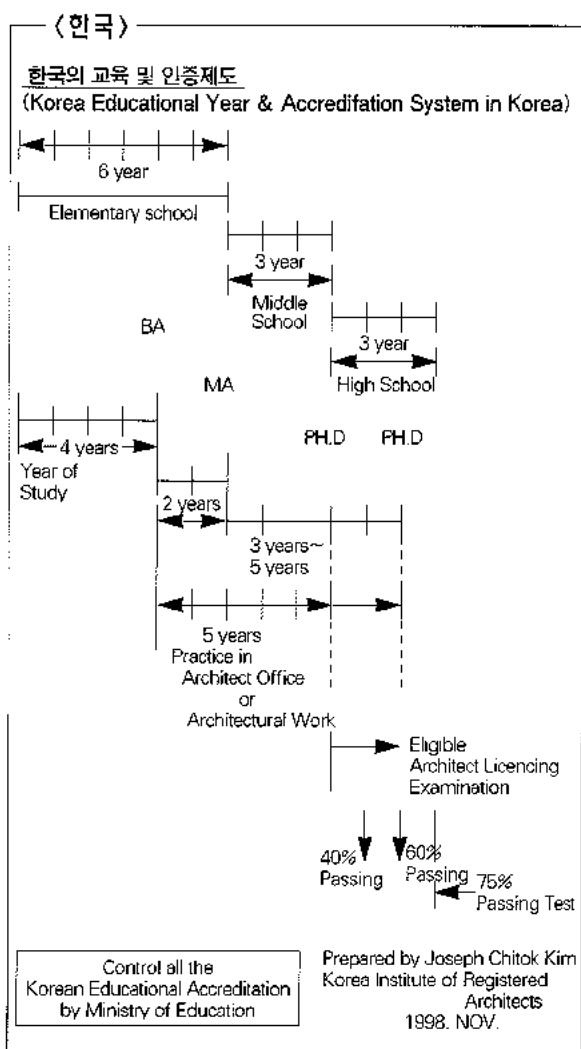
금번 회의에서 말레이시아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Parid Wardi씨가 ACAE의 회장으로 재선되었고 향후 2년 간 건축과 학생 교육관련 16개국의 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Mr. Parid Wardi 교수의 Web Site 주소: www.arch.nus.sg).

더욱이 금번 ACAE에서는 (1) Accreditation Board Of Education뿐 아니라 RIBA(영국)의 Accreditation의 검토 및 ARCSIA Accreditation Board 설립에 상당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고, 각국 교육제도의 비교검토가 큰 논제였다. 이 ACAE의 각국 교육제도, 면허제도, Accreditation제도등의 비교검토표(별표2 참조)를 각국 대표가 제출한 그대로를 표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별표1> List of Meeting Held and Chairman(교육위원회 회의 개최지역 및 관련자료 연도별 정리)

Date	Meeting	Venue	Body	Chairman
August, 1980	1st ABAE Meeting	Bangkok	ABAE	Sim Hong Boon(SIA)
August, 1981	2nd ABAE Meeting	Hongkong	ABAE	Sim Hong Boon(SIA)
1982	Informal Meeting	Colombo	ABAE	
1985				Prof Vandal(IAP) (Pro-tem) Lochi Gunaratna(SIA) (Pro-tem)
1986	1st ACAE Meeting	Kuala Lumpur	ACAE	Lochi Gunaratna(SIA)
1988	2nd ACAE Meeting	Seoul	ACAE	Lochi Gunaratna(SIA)
1989	3rd ACAE Meeting	Bangkok	ACAE	Prof Shiresh Deshpande (IIA) 1989~1990
1990	4th ACAE Meeting	Agra, India	ACAE	Prof Shiresh Deshpande (IIA)
1991	5th ACAE Meeting	Beijing, China	ACAE	P. Kasi (PAM) 1991~1994
1992	6th ACAE Meeting	Lahore, Pakistan	ACAE	P. Kasi (PAM)
1993	7th ACAE Meeting	Hongkong	ACAE	P. Kasi (PAM)

〈별표2〉 각국 교육, 건축, 면허, 인증제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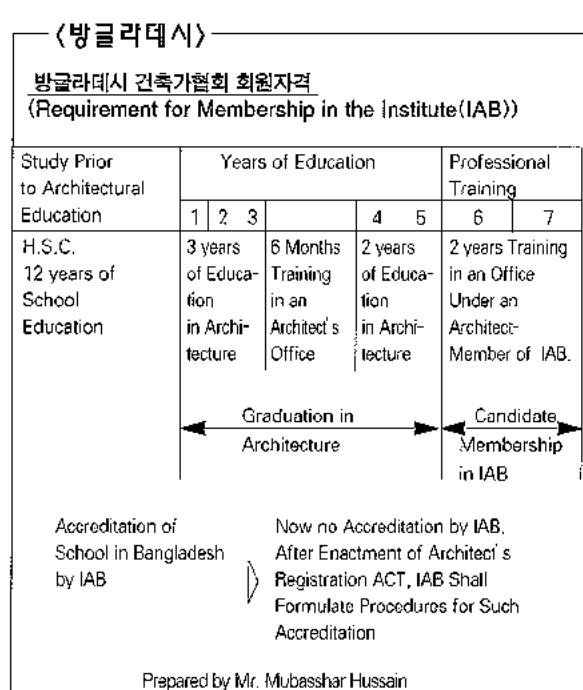
〈중국〉

I. Architecture Educations System in China

Under Graduate				
Mode1	4 years	Unprofessional Degree (Tech.B.D)	5 years Practice	
Mode2	5 years	Professional Degree (Arch.Degree)	3 years Practice	
Graduate Student	Mode1	2.5 years	Professional Master Degree	2 years Practice

II. Accreditation Structure+Architecture in China

National Government	Ministry of Construction Education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 (NBAA)	NBAE CAEAC ASC University	21 Persons
Visiting Team	Architects Professor Student	2 Persons 2 Persons 1 Person



〈홍콩〉

홍콩의 건축 교육제도 (Current System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Hongkong)

(Leading up to Architect's Registration)

	Pre-University	Part 1		Part 2				
Local Graduates (no year-Out Option)	6yrs(Primary Education) S yrs(O-Level + 2yrs(A Level))	BA(AS)1 3 years	BA(AS)2	BA(AS)3	Year-out 1 year	M Arch 1 2 years	M Arch 2	Professional Practice 18 Months
Local Graduates (no year-Out Option)	6yrs(primary education)+ 5yrs(O-Level) + 2 yrs(A Level)	BA(AS)1 3 years	BA(AS)2	BA(AS)3	M ARCH	MARCH 2 2 years		
Non-local Graduates	Varies		5-year Nationally Accredited Programmes(Full-Time Course)					24 Months
								24 Months

Note: A 12-Month Period of Year-Out Training is Counted as 6-Month Practical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the HKIA Professional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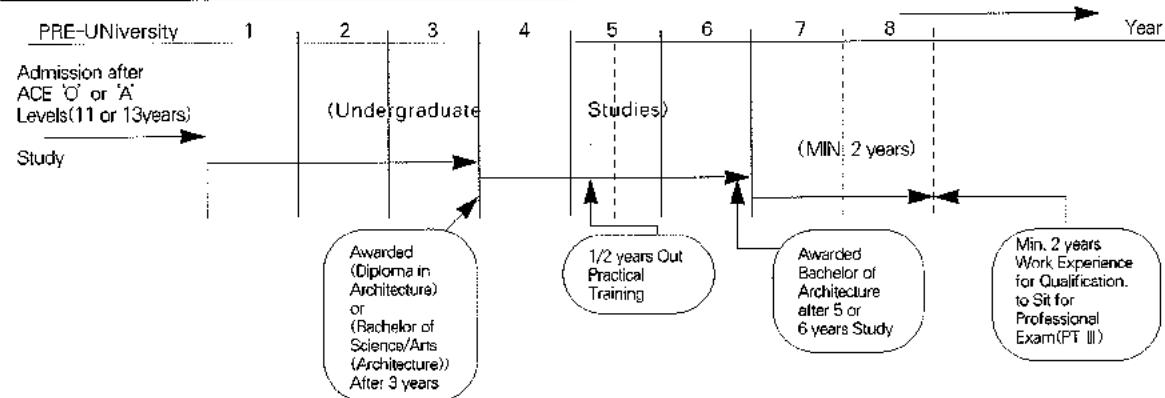
홍콩의 건축 인증제도

- 승인된 학교의 명단이 1995년에 유기되었고 현재 건축에 관한 공인된 학교 명단은 없다.
건축분야에서 5년의 전문 교육을 받은자는 최소한의 실무 과정을 거쳐야 홍콩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그러나 홍콩에서 두개의 건축학교는 홍콩건축가협회(HKIA)와 건축등록 기관(ARB)에 의해 승인된다. 두 학교를 졸업한 자는 건축설계 시험 면제 가 된다.
졸업생의 연합시험기구는 건축교육 자격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홍콩건축가협회는 최근 1999년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고자 인증제도를 검토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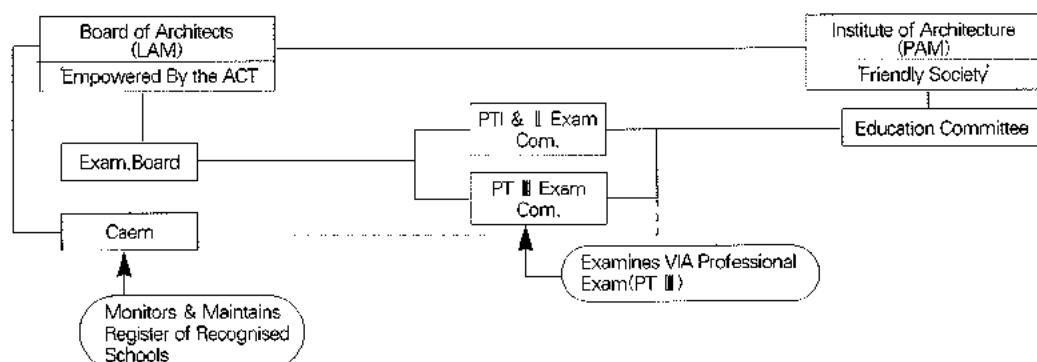
Prepared by Wonz - ying Fai HKIA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 교육제도(General System of Education-Malay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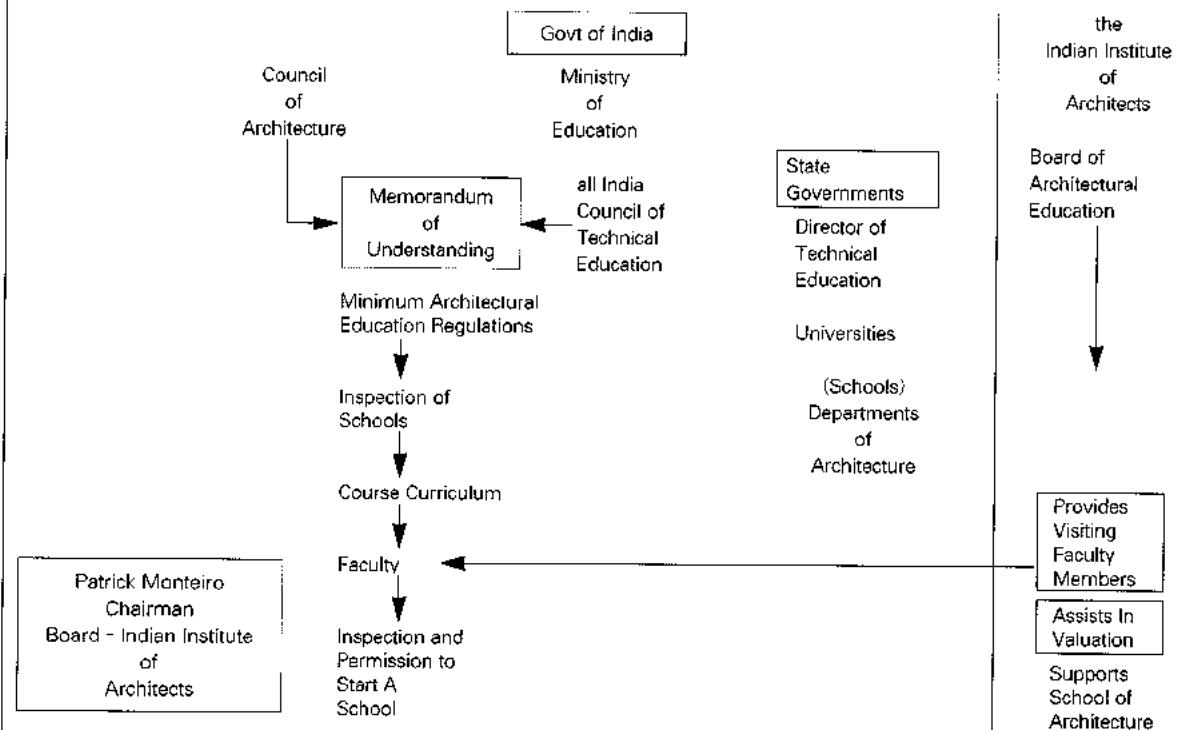


인증제도(Country Framework For Accreditation)



· <인도>

Architecture Education – Structure



Formal Education

No of years of Study	School	Pr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Part I	Part II	
	10	2	8 Semesters (4 years)	1Semesters (14 weeks)	Thesis Grad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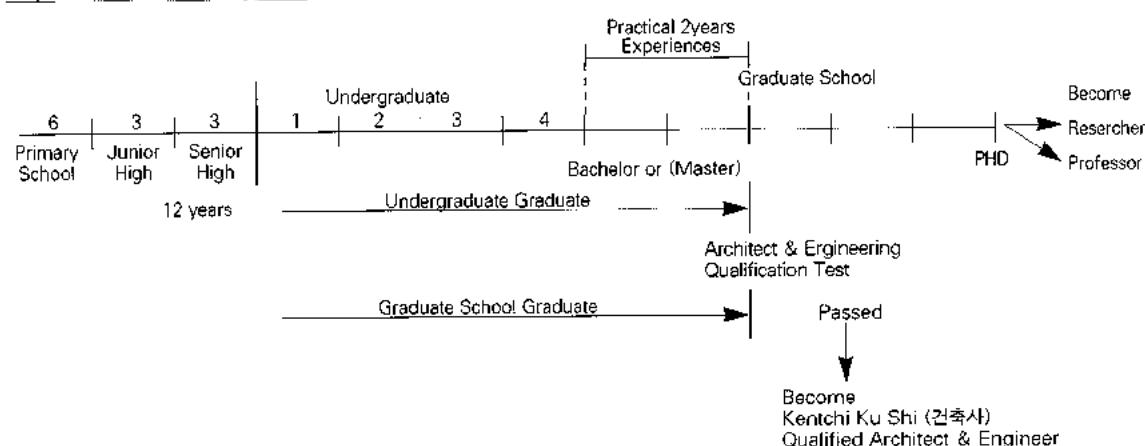
Non Formal Education

no of years of Study	School	Work Experience in Architects Office	Part	Part	Part	Part
			I	II	III	IV
	10	4				
Diploma in Arch EDN	10+2 3	4	Exempted in 'A' Group · Maths · English · Phy & Chem			
Diploma in Civil Engineering	10+2 3	4	'B' Group · Arch Dwg · Arch Const- I · Bldg Mat- I			
Degree in Civil Engineering	10+2 5	4	'A' & 'C' Group · Mechanics · Surveying			
			Exempted	Exempted Group-A Group-B		
			'D' Group (Compulsory) · Visual Desing · History of 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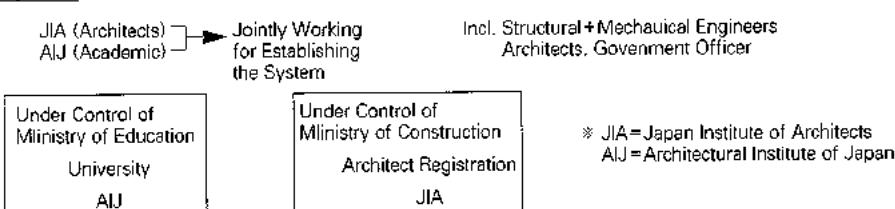
Prepared by Patrick Monteiro Chairman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
The Indian the Institute of Architects

〈일본〉

Japanese Education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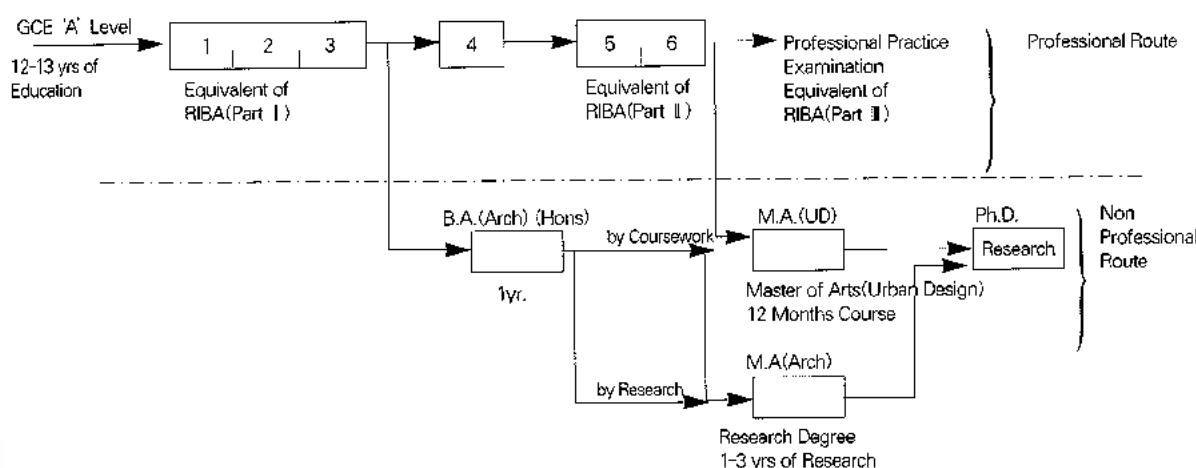
Japan Accreditation System



Prepared by Nobuo Hozumi 1998. 11. 12
PANan Architect

〈싱가폴〉

싱가폴 건축 교육제도 (Architectural Education in Singapore, 1998)



싱가풀의 인정제도(Accreditation Structure in Singapore)

A. Accreditation of NUS School of Architecture

- Carried out once every 5 years by a tripartite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IBA, SIA of BOA(Board of Architecture)
- Internationally eminent architects are also invited to separately visit the school to assess the quality of its educational programme, especially in the area of design.
- A system of external examiners is put in place yearly to examine high standards.

B. Accreditation of office schools of Architecture outside Singapore

- There is an existing list of more than 100 Schools of Architecture accredited by the BOA for the purpose of eligibility to act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Examination.
- This list of schools is gazetted and comprises of mostly schools in Britain, Australia, and America.
- The BOA does not carry out accreditation exercises for other schools excluded from the list, except in one special case of a school from China, which was recently accredited after a visit to the School.

Prepared by Mr. Andrew T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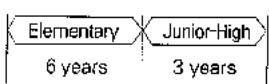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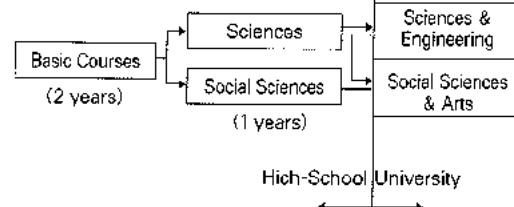
• National System of Education(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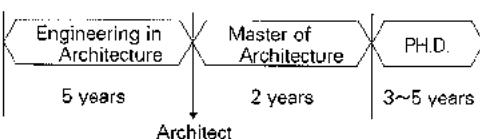
• Elemen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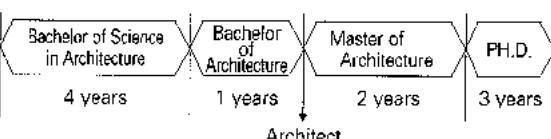
• Hig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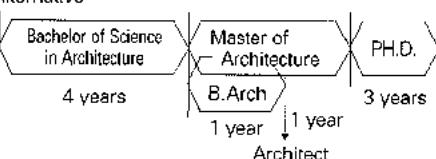
• Higher Education(Architecture, 1950-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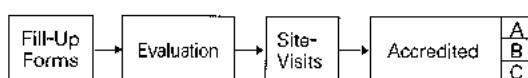
• IBID.(1993-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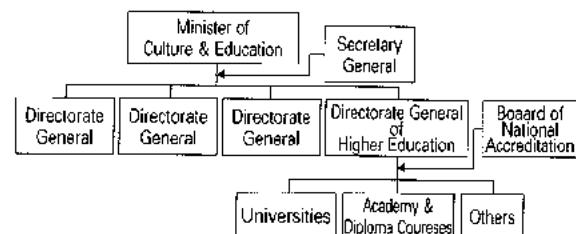
Altern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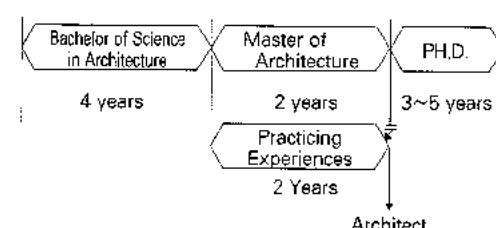
• Process of Accr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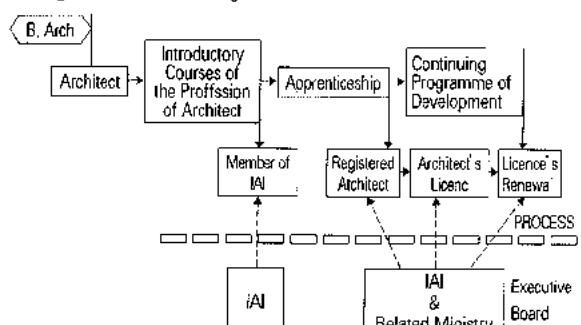
• Accreditation



• IBID.(1989-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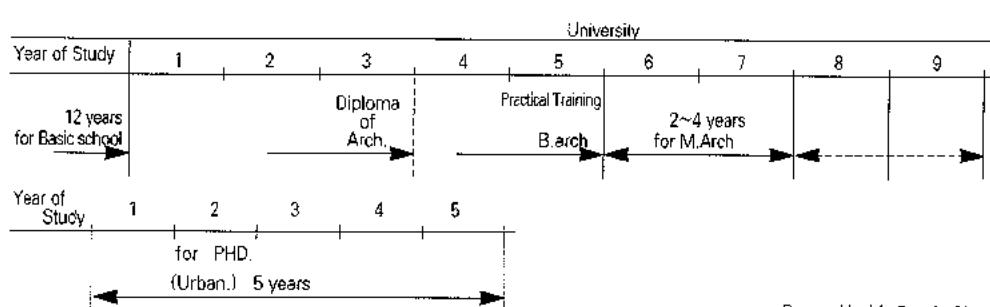
• Registration & Licencing(Planned)



Prepared by
ACAE
Colombo, 12 NOV. 1998
Ikatan Arsitek Indonesia
Mr. Ridwan Kurnia
Architect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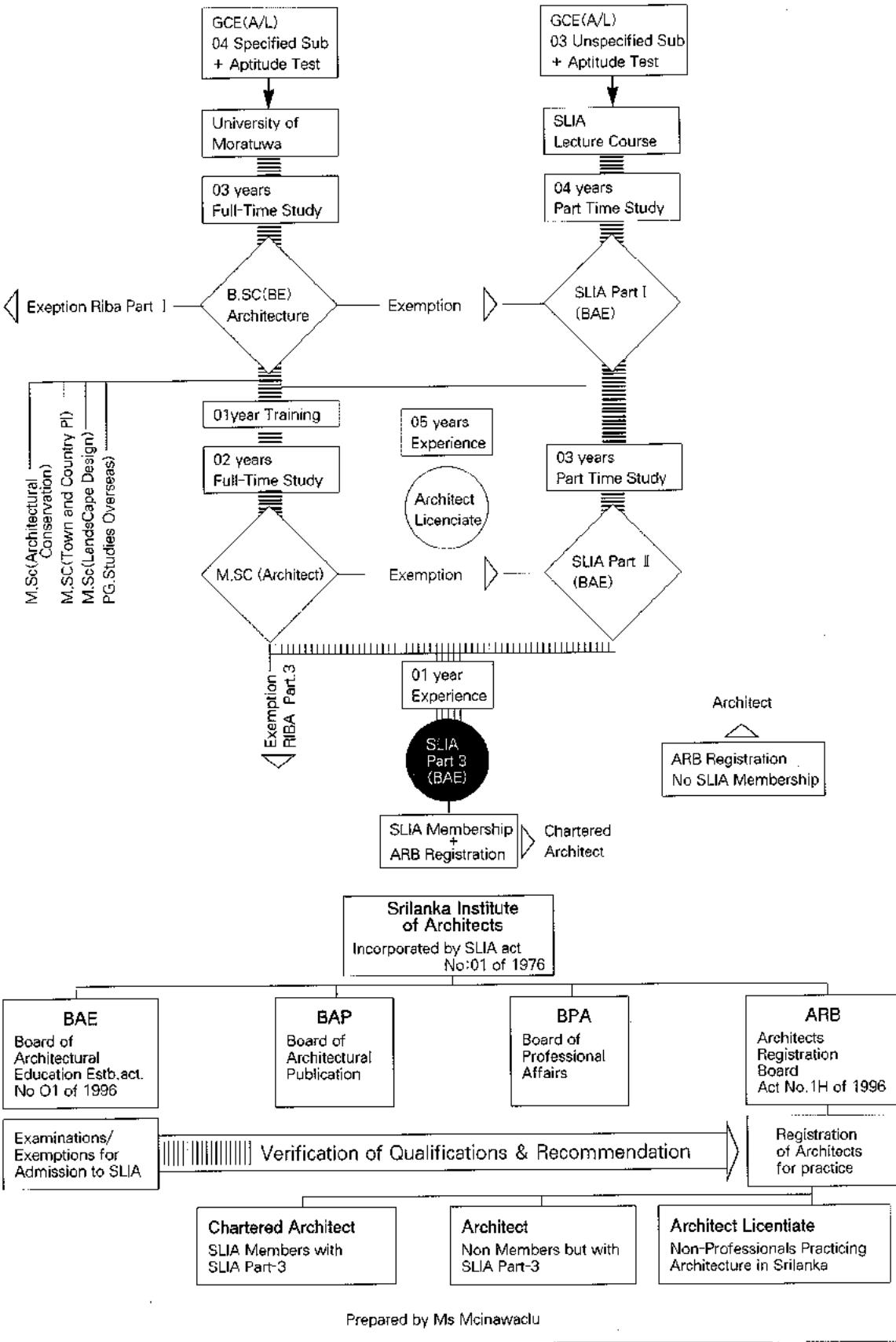
태국 교육 척차(Summary of Thailand Curriculum)



Prepared by Mr. Preecha Navaprapakul

(스리랑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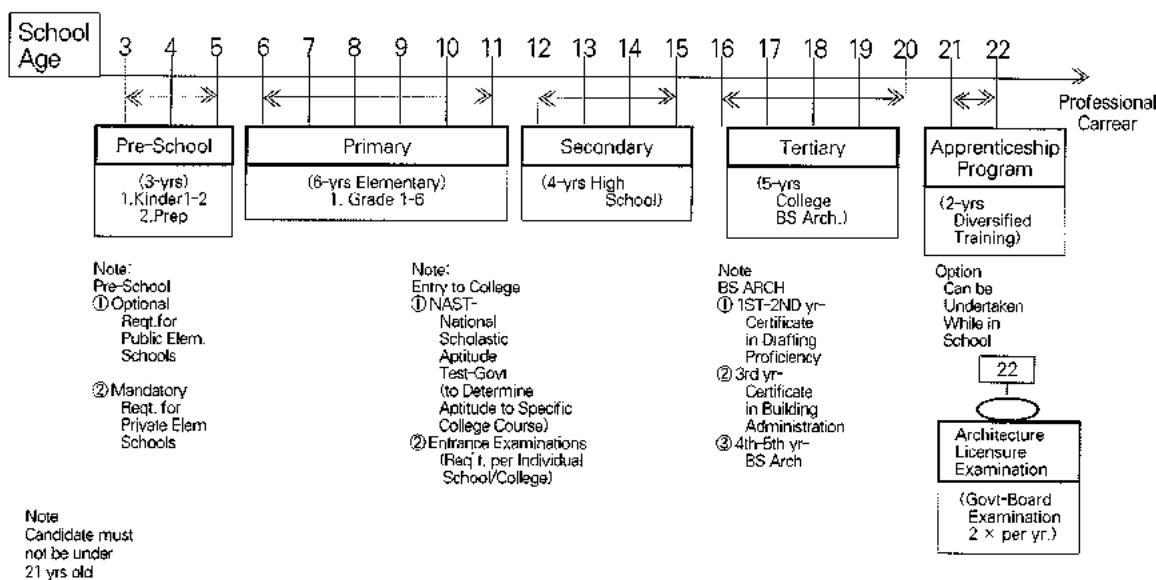
스리랑카 교육제도(Architectural Education System in Sri Lan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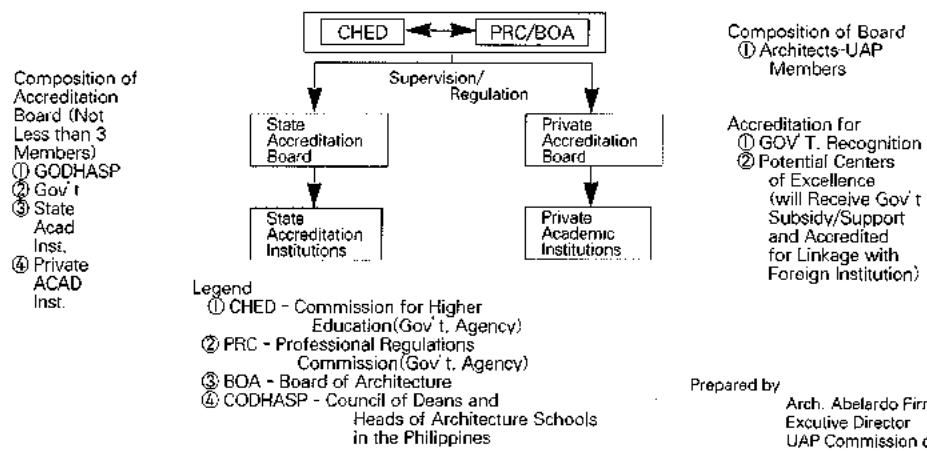
Prepared by Ms Mcinawadu

〈필리핀〉

필리핀 교육제도(The Philippine Academic Structure)



필리핀 인증제도(The Philippine Accreditation for Academic Institutions)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Anzhi Xu 교수가 "Teaching Research and Practice-New Strategy of Architectural Education at Shenzhen University" 관해서 발표했고, 홍콩의 Tunney Lee 교수가 "Architectural Education for a Changing Society"란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스리랑카의 Vidura Sri Nammuni 교수가 "The 21st Century Imperatives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이란 논문 발표했다. 또 싱가폴 Tay Kheng Soon 교수가 "Towards a New Concept of Asian Architectural Education"의 논문을 발표했다. Australia 대학의 Philip Cox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Re - Defining the Role of the Architect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란 제목으로 멋진 강의를 한 바 있다.

다음은 ARCASIA(아시아 건축사 협의회)내 ACAE(건축교육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ARCASIA)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와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ACAE)(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의 관계 :

■ ACAE의 계약소개

ARCASIA 정관 교육위원회가 Hongkong에서 공식 이사회의 출범모임이 있는 지 10년 후인 1979년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랜드, 싱가풀,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Jakarta에서 첫회모임을 갖게 되었다. 1980년까지 10개국간 협회들이 정관에 서명하였고, 그해 8월 첫 ARCASIA

사회와 ABAE(ACAE의 전신) 모임이 Bangkok에서 있었다. 여기서 각 회원국 협회가 매년 공식 회의를 갖기로 협의했고, 1985년 인도 Bombay, 제6차 이사회에서 ABAE가 새로 구성 ACAE로 개칭 교육위원회로 탄생됐다.

■ 조직

ACAE는 아카시아의 교육부분인데, 각국 건축사협회 또는 관련 대표의 건축교육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되며, 아카시아 이사회와 동시에 매년 만나 회의를 한다. ACAE의 영속으로, 의장은 2년기간으로 선출되고, 선거는 다른 아카시아 대표단과 동시에 거행된다. ACAE는 3개 지역으로 분할 각각 협력자들이 지정된다.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3개의 지역으로 분할된다.

■ 교육위원회 설립 목적

건축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조건하고 관할하며, 각국 협회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협력하고, 각 국가에 필요한 관련 표준을 유지한다. 또한 교육의 성취를 위해 지역내의 건축학교나 각 협회에 협력하고, 각국 협회관련 건축과 학생과 교수들 교환에 협력하며, 건축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국제 포럼이나 조직 각 국가의 지역을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된 시안을 위원에서 의결 실행하도록 한다.

■ 활동

ACAE 첫 회의는 Lochi 교육위원회 의장 지도 아래 각국 교육위원들 참석으로 1986년 Malaysia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각 회원국의 건축 교육 상황에 관한 열렬한 토의가 있었고, 이 회의 이후 아시아 건축교육이란 백서가 회장 주도아래 발행되어 각국의 건축교육 현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Bombay 회의 후에 말레이시아 건축사 협회와 Institute Technologi Mara(ITM대학)에서 조직한 1986년 Kuala Lumpur 제1차 학생잼버리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되어 각국 협회로부터의 그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각 해외학생과 지역학생사이의 연결관련이 성립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세미나, 학생들의 문화행사, 도시 투어, 그리고 아시아 건축사 대회 행사 등에서 참석하는 등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다.

첫 학생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거행되어,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격년제로 시행될 때마다 학생잼버리 행사도 함께 갖기로 공식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1988년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서울에서 거행되었을 때 ACAE 회의와 함께 제2회 학생잼버리대회가 있었다. 이 학생잼버리대회에 10개국

에서 66명의 건축과 학생들이 참석했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개막 행사와 학생잼버리 세미나도 아주 인상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학생작품 전시회도 했었는데, 출품작 모두를 이 대회 기간에 전시한 바 있다.

1989년 ACAE는 타일랜드 Bangkok, 인도 Shiresh Deshpande 회장 진행으로 그 다음 회의를 갖었다. 그 후 계속해서 인도 Agra에서 1990년 ACAE 회의를 했으며 Newdelhi에 1990년에도 거행했고 그 후 계속 학생잼버리대회는 지속해서 거행, 모든 참가학생들이 건축적으로 흥미있는 많은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91년 ACAE 회의는 중국 북경에서 Malaysia의 P.kasi 의장 지도아래 거행했었고, 이때 학생잼버리 장래 개최규범들을 채택하였다. 이후 Pakistan에서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동시에 제4차 학생잼버리 대회도 열렸다. 이 때는 34명의 외국 학생들이 12개아시아 국가에서 왔었고, 200명의 Pakistan 건축과 학생까지 합세하여 성황리에 대회 행사를 치렀다. 그 행사는 건축과 학생을 갖고 있는 대학들 스스로 참여의 열기와 협력을 함께 하여 잼버리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던 행사였다. 라홀회의에서 홍콩건축사협회가 아카시아내 9개국의 건축학과를 2년기간으로 조사업무를 한 바 있다.

ACAE의 업적은 지금까지 건축교육에 관련한 제반문제의 협의 및 토론의 장을 제공했고, 성공적인 출발과 학생문제를 다루어왔던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는 아카시아 회원국간의 대화와 참고와 연결고리의 새로운 만남의 창구 역할이 됐던 것이다. ACAE를 위한 장래계획도 건축교육에 관한 토론회, 연구강습회(Workshop) 등을 포함하여, 아카시아내 건축학교에 관한 Handbook의 편찬과 국제학생설계경기 등을 정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스리랑카 ACAE 회의(1998. 11. 12.) 최종 안건

13개국 ACAE 위원들이 일본 동경에서 진행했던 교육위원회관련 문제들에 관하여 회의했는데, 그 당시 이사회에서 실행계획안으로 확정했던 아시아 국가내의 "(1) 건축교육 철학지침서 작성과 (2) 건축 학교 인증에 관한 논고 검토간" 이었다.

참석한 각국 건축학과 교육교과과정에 관하여 건축학교로부터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기 건의 토론 진행 가능성이 어려웠다. 그래서 각국의 새로 참가한 회원들의 소개와 아울러 그간 ACAE의 역사적 고찰시간이 있은 후 앞으로 ACAE 활동에 관한 새로운 방향 등에 관한 의미있는 토론을 했다. 보고회중에는 UIA 건축교육위원회, UNESCO 교육위원회의 Vassilis Sgoutas씨 Louis Con씨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 보고

에 관한 각국 의견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공식 보고회의가 있었다. 이어서 Tay Ken Soon 교수의 “아시아 건축교육의 개념과 실제”란 제목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1) 교육에서 실제 적용의 어려움과 (2) 설계건축가, 기술인 건축가, 행정건축사, 연구 건축가, 유지 보존관리건축가 등 각각의 특별한 업무영역의 지도자로써 적합한 기능의 적용등록의 어려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ARCSIA 활동 계획에 의한 ACAE의 관련계획

1. 건축과 학교의 인증방법과 순서, 학교교육 Programme의 도표작성과 연구 등에 관한 각 국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미래 계획안으로 문서화하여 이용키로 했는데 이 건에 대한 폭넓은 각국의 의견교환이 4시간이나 있었다.

2. 건축학과 인증에 관한 건

정확한 각 국가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으로는 ARCSIA와 ACAE의 협조가 이것의 실행에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협회에서 협력해야 하고, 등록, 인증기구 등 ARCSIA 인증 위원회의 창설 가능성을 협의했으며, 이 인증 기구는 ARCSIA 내의 인증기구로 각 학교의 인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국에서 필요에 의한 가능성을 협의했다. 활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5내지 더 많은 아카시아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하는 안을 토의했고, 학생챔버리의 조직, 설립, 유지의 표준 등을 협의했다.

3. UIA/UNESCO Chapter의 논의

개업건축사의 등록목적으로가 아닌 순수교육적 관련에만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4. 1999~2000년까지 새 ACAE회장 선출

Prof. Parid가 ACAE 2년간 새 회장으로 선출되고 계속 노력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건축과 학교교육에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거행된 1999년 ACAE 미팅에 건축관련 학장들의 토론회나 모임 등에 관한 별도의 협의 등의 논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ARCSIA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orum 10”이라고 명명하는 이번 대회에서도 건축사 협회와 ARCSIA 본부가 주최가 되어 국제회의를 할 예정인데, 각국의 국제건축사 자격제도의 태동에 초점을 맞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16개국에서 건축과 학과장 모두의 참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3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국제건축사연합(UIA) 대회 총회를 계기로 이곳에서 결의된 학교교육과정, 교육년한, 건축실무 직능위원회(PPC)의 설

치에서 UIA가 장려하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검토하는 토론의 장도 함께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일면의 건축기상을 구현하기 위한 자격제도에 대하여 99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UIA 회원국이 일본 나고야에서 이사국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특히 WTO가 UNESCO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건축가 자격제도를 시장개방 직능분야의 상호인증으로 뚜렷한 국제적기준의 마련을 할 경우 UIA장려기준으로 연계된 실건축사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건축설계 업계도 상당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WTO에서는 국제기관이 작성하는 기준을 상호인증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UIA와 관련해서 WTO가 직접 의결권을 갖지는 못하나 PPC회의에 참가해서 그 동향이나 그 동향이나 토론 결과의 성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포함한 건축 시제도(우리나라와 동일함)가 독자적으로 있는데, 일본도 이 새 국제 협약제도에 따른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작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만난 일본건축가협회 노부오 코스미 회장도 1999년 3월까지는 국제화에 대응할 일본 자국내의 어떠한 보고서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비공식 언질을 필자에게 한 바 있다.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축사협회, 건축가 협회, 건축학회가 아직도 일본만큼 어떠한 방향도 설정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우리나라의 용역건축사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 건축설계를 전문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뿐 아니라 UIA Accord는 대학교의 교과 과정중 건축가를 전문직으로 할 경우, 건축설계 과목의 학점을 5년 전일제 교육년한 중에서 설계단일과목만 80학점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건축과의 경우 설계 30학점으로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더구나 복수전공을 허용해서 설계를 30학점만으로도 건축과를 졸업할 수 있으니, 지금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국제적 흐름속에서 비교하면 정말로 앞이 깜깜하다. 건축사사무소의 업이 국제화 조류속에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경우, PPC 북경대회에 제안되는 어코드 업무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포될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협회는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듭 태어나서 조직상 새로운 형태의 국제화 규율에 합당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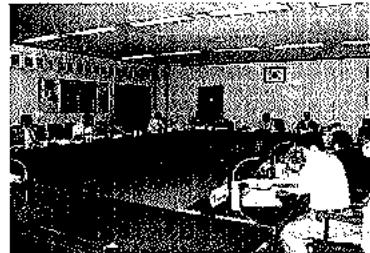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에서는 아카시아 회원국의 인증 및 교육관련 전문가와 교수, 협회관계자, 행정가들이 대거 참석해 앞서 시안들을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토론을 갖는다. 한국건축을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이번 포럼에 국내 건축사와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협회소식 / 106
건축계소식 / 107
현상설계 / 115
해외잡지동향 / 121
동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6
회원현황 / 128
법령 / 129
제시판 / 130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직제 및 사무분장 등 개정규정(안) 승인



이사회 광경

제10회 아카시아 포럼 일자 확정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디자인 / 최영진

제10회 아카시아포럼(10th ARCASIA Forum)이 본협회(KIRA) 주최로 오는 9월 13일부터 둘째주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Hotel INTER · CONTINENTAL Seoul)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의 기술, 전통 그리고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행사관계자 그리고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건축사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제토론을 통한 기술교류와 건축정보 등을 교환하게 된다.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4개의 포럼과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아시아건축상 시상식과 각종 전시회, 건축탐방, 한국건축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8일(금) 14시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명칭변경(본부장→사무처장), 조직축소(4실8팀1연구소1교육원→3실8팀), 정원조정(67명→49명) 등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전결권의 일부를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보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가족수당 폐지, 학자보조금 폐지 등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임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정년인하(실장급이상: 59세→58세, 과장급: 57세→55세, 대리급이하: 54세→50세(기능직포함)) 및 연봉제 근로계약서 변경 등 원안대로 승인함.

「99 건축문화의 해」 선포식 개최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을 슬로건으로



왼쪽부터 이영희, 김규태, 이의구, 이경희, 강석원, 김한근, 신낙균, 윤도근, 엄복문, 송종석, 김명수 순서임.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노)는 지난 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99건축문화의 해」선포식을 가졌다.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선포식은 건축문화의 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우리협회 이의구회장을 비롯해 신낙균 문화부장관, 이 협 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한근 대표집행위원장, 사라토펠슨 국제건축가연맹회장 등 많은 국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건축문화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든 예술과 생활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화」라면서 「건축인들은 건축을 통해 우리 문화의 품격과 수준을 한 층 높이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창조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건축문화의 해 주요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이미지의 세계

올 해 「건축사시험」일자 확정

예비시험은 5월 9일,
자격시험은 9월 5일에

건교부는 지난 2월 3일(수) 99년도 건축사시험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5월 9일 서울에서 자격시험은 오는 9월 5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각각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예비시험의 경우 대학졸업자, 전문대졸업후 2년경력자, 고졸후 4년경력자, 기타 9년경력자 등이며 자격시험은 예비시험합격자 또는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건축사보는 5년) 이상 경

력자,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건축사보는 7년) 이상 경력자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취득자,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로서 5년이상 경력자 등이다. 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학졸업후 5년, 전문대졸업후 7년, 고교졸업후 10년, 기타 14년이상 등의 건축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시행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필기 시험의 경우 과목당 40문제,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실기시험은 건축설계 과제 1개를 놓고 360분간 보게 된다.

응시수수료는 예비시험 2만3천원, 자격 시험 4만8천원 등 지난해와 같으며 시험 시행에 따른 세부일정과 시험장소 등은 2월말에 공고된다.

도시·건축 심포지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월 14일(목)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황기원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와 조성룡소장(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승호삼소장(이로재건축), 민현식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 김준성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 김광현교수(서울대 건축과)가 토론에 참여해 출판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산업단지의 실현을 위해 출판인들과 건축인들이 한 데 모인 열띤 논의의 마당이 됐다.

'1999 「한국건축가협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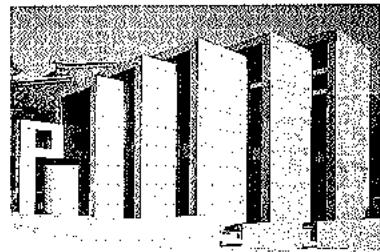
발표

「김옥길기념관」 등 7개 작품선정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는 지난해 완공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창작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게 주어지는 「한국건축가협회상」과 매년 한국적 건축미가 뛰어난 작품과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업덕문건축상」 그리고 특별상인 「아천건축상」과 「초평건축상」의 각 수상작(자)을 발표했다.

「건축가협회상」에 선정된 작품은 건축가 김인철(아르키움건축)의 「김옥길기념관」, 김정철(정림건축)의 「정림신사옥」, 김종성(서울건축)의 「아트선재센터」, 방철린(인·토건축)의 「하늘마당Ⅱ」, 손학식(SKM 디자인)의 「오피스콘서트홀」,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의 「옹인솔마당집」, 민규암·권혁천(토마건축)+김인한(경희대)의 「한호제」 등 모두 7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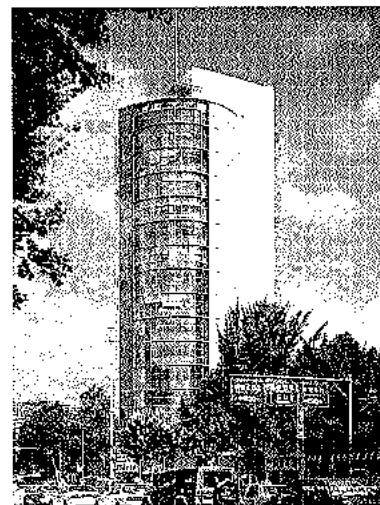
올해로 10회를 맞는 「업덕문건축상」은 대법원청사(윤승중+변용)와 아트선재센터(김종성)가, 제12회 「아천건축상」은 김병윤(백제예술대)의 「봉죽헌」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건축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인에게 주어지는 「초평건축상」에 건축가 저준(간·삼건축)씨가 선정됐다. 한편 건축가협회는 2월 24일(수) 서울 삼성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각 수상작(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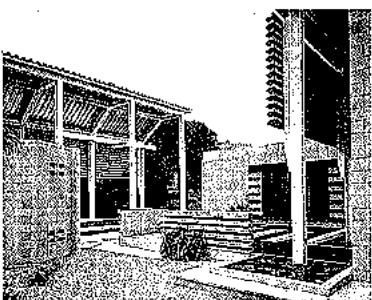
김옥길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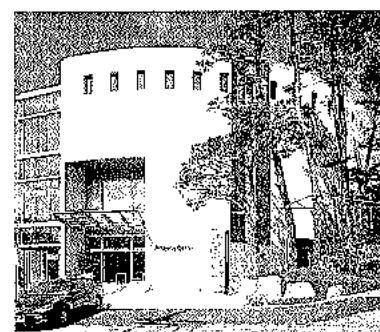
옹인솔마당집



정림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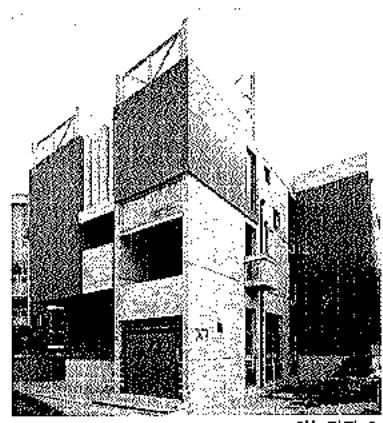
한호재



아트선재센터



오피스콘서트홀



하늘마당Ⅱ

제12회 이상건축 해외건축기행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월간 이상건축에서는 제12회 해외건축 기행으로 미국 서부해안 지역과 애리조나 사막지역 투어를 마련했다.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질 이번 기행은 라이트의 탈리아신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모던의 산실이기도 하며 최근 프랭크 게리, 모포시스, 에릭 오웬 모스 등 미국의 현대건축을 선도하는 건축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월간 이상건축(02-549-5383)

건축가 이일훈, EBS 건축강의

2월 매주 목요일 19:20~20:00

건축가 이일훈(후리건축 대표)씨가 2월 한달동안 매주 목요일에 EBS 교육방송의 '세상보기' 프로에 출연, 건축에 대해 강의한다. '딱딱한 건축이론 강의가 아닌 문화로서의 건축을 전파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강사 이일훈씨는 건축을 비판하되 동료건축가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철저히 지금 이 땅의 주제의식을 소재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테마는 첫째주 '집을 생각하기', 둘째주 '집을 짓기', 셋째주 '집에 살기', 넷째주는 '실제 건축된 자신의 집 이야기'이다.

'99포스코 강구조작품상 공모

2월 28일까지 접수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항종합제철이 후원하는 '99포스코 강구조작품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강구조기술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 이용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 작품상은 3월중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4월중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대상작품: 1997년 1월 1일~1998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강구조물(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 건물, 주택, 특수건축물, 공장 등)
- 사상대상: 대상작품의 설계자(계획 또는 구조), 시공자, 건축주 또는 발주기관
- 시상내용: 금상1점(상폐 및 부상 600만원, 해외전학), 은상2점(상폐 및 부상 각 300만원, 해외전학), 동상(상폐 및 부상 각 200만원, 해외전학)
- 시상기준: 작품성이 뛰어난 강구조물,

신강재의 사용 또는 강재 이용기술 개발 축진에 크게 기여한 강구조물

- 접수기간: 1999년 1월 1일~2월 28일
- 제출자료: 신청서, 기본설계도면(10매이내), 신청작품의 사진(5×7인치 컬러판 3매)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10-15 율전빌딩4층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 (02-568-7636)

1999 Benedictus Award

후보작 공모

3월 8일까지 접수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한 혁신적인 건축물에게 돌아가는 베네딕투스 건축상이 1999년 수상작을 공개 신청받는다. 이 상은 Dupont사에 의해 1993년 창설, 세계건축가협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건축가협회의 후원으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해 왔으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4년 1월이후에 완성된 건물로 제한되며 국적의 제한은 없다. 참가 희망자는 프로젝트와 유리재료 사용의 이유를 언급한 영문설명서를 첨부하여 A4크기의 포트폴리오를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Timothy Macfarlane(영국), Jean Marc Ibos(프랑스), Tom Mayne(미국) 등이 맡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독일조각가인 Hans Frabel의 작품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한편 AIA 컨벤션센터에서 작품전시회를 갖고 건축작품집에 게재, 출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AIA홈페이지인 www.aiaonline.com을 통하여거나 뉴욕에 있는 AIA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1735 New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006, USA
Tel) 202-626-7446,
Fax) 202-626-7425,
vierras @ aiamail.aia.org

서울건축학교 제2쿼터

공개강좌 프로그램 발표

건축가세미나와 기획연속강좌 등

서울건축학교의 제2쿼터 공개강좌 프로그램 일정이 발표됐다. 이번 공개강좌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펼쳐지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건축가 세미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강연자들의 금요강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들뢰즈에 관해서」라는 주제로 기획연속강좌,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화세미나를 각각 갖는다.

- 건축가세미나: 화요일 저녁 7시 30분
990223: 서구문화와 한국 건축가(김태수, TSK건축)
- 990302: Philosophy of City (Hiroshi Inamori, Ayumi Han, 일본)
- 990316: Membrane Structure 건축(류춘수, 이공건축)
- 990330: Recent Works(서혜림, 힘마건축)

- 금요강좌: 주제 4332/1999 현실과 관점: 전환, 금요일 저녁 7시 30분
990212: 일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멀티미디어(강충구, 고려대전파공학과)
- 990219: 윌리암 모리스에 대해서(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 990226: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기말 미술(김홍희, 미술평론가)
- 990305: 오태석 「백마강길밤」을 중심으로(구하서, 연극평론가협회장)
- 990326: 건축으로서의 책, 책으로서의 건축(정병규, 정병규출판디자인)

- 기획연속강좌: 들뢰즈에 관해서, 화/금요일 저녁 7시 30분
990205(금): 20세기후반 서구 탈근대적 사상의 궤적- 들뢰즈를 중심으로(박영욱, 고려대 철학과)
- 990209(화): 들뢰즈의 존재론과 의미

- 론·차이의 반복과 의미의 논리를 중심으로(박영숙)
990309(화): 정치경제학 비판과 정신 분석학을 넘어서- 앙티모디푸스(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990312(금): 노마들로지와 탈주의 정치학(심광현)
990319(금): 들판즈의 예술론- 감각의 논리와 시네마1-2(심광현)
990323(화): 들판즈의 라이프니츠 독해와 21세기 사유의 전망(심광현)
- 영화세미나: 영상과 도시공간/진행 조성 흥, 최 육 토요일 오후 2시
990213: 발칸반도에서의 자금〈울리시 스의 시선〉 감독/테오 양겔로 폴로스
990220: 안토니오니의 도시 〈구름 저 편에〉, 〈태양은 외로워〉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990227: 도시이야기 〈리스본 스토리〉 감독/빔 벤더스
990313: 현재의 미래도시 〈알파빌〉 감독/장 뤽 도다르
990320: 도시의 일상과 공간 〈안녕하세요〉 감독/オス 아스지로

제17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2월 13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주최하고 경향신문사와 서울방송이 후원하는 제1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응모요강이 발표됐다.

- 응모대상

- 준공건축물부문(규모와 용도제한 없음) : 97~98년 기간중 사용(임시사용) 승인된 서울시 소재의 모든 건축물
- 건축물 이간경관 부문(신설) : 98년 12월 31일 이전 외부 경관조명이 설치된 서울시 소재 모든 건축물

- 작품제출요령
 - 올모신첨서와 작품제출안내서(서울시 건축지도과 비치)
 - 패널2개(90cm×90cm)
 - 준공건축물부문: 건축개요, 전경사진, 도면(평·입·단면도)
 - 건축물이간경관부문: 경관조명개요, 전경사진(주야간 대비), 경관조명 디자인 개념 등
 - 작품사진(전경 5"×7")과 작품설명서 20부
 - 모형은 필요에 따라 제출가능
 - 시상, 전시
 - 시상종류: 준공건축물부문(금상1점, 은상2점, 동상4점, 장려상3점), 건축물이간경관부문(금상1점, 은상1점, 동상2점, 장려상2점)
 - 시상내용: 상장과 상금(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전시기간: 99년 5월 11일~5월 17일
 - 전시장소: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 접수기간: 99년 1월 15일~99년 2월 13일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3707-8253~4)
-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자에 대한 특전: 서울시건축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행정처분의 경감, 금상수상 설계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상작품 전시시 주요작품을 추가로 전시할 수 있도록 개인 전시공간 별도 마련

스틸하우스교육생 모집

2월 27일까지 신청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은 99년도 제1차 스틸하우스 구조설계 및 시공교육 실시를 위한 수강생 참가신청을 받는다. 건축사와 구조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3월 8일(월)부터 11일(목) 까지 4일간 구조설계, 시공관리, 간접최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며, 참가비는 5만 원이고, 교재, 실습재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한다. 선착순 20명. (02-3441-3852)

설계경기 현상공모

대구등촌초등학교
울산남서초등학교

◇ 대구등촌초등학교

- 목적명: 등촌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공사 설계용역
-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꾸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전문 설계업 1종이상 면허를 겸유한 업체, 다만, 전기설계업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업체가 되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47, 1051~2번지
 - 부지면적: 20,783m²
 - 연면적: 13,358m²
 - 시설내역: 기존 초등학교를 재배치하여 47학급 규모(초등45학급, 유치원2학급)의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 (1,2학년은 열린교실 수업방식 운영)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0일간
 - 총사업비: 3억5천2백10만5천원
 - 파일설명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교부: 99년 2월 9일 14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99년 2월 26일 09:00~17:00
 - 입찰일시 및 장소: 99년 3월 26일 11:00 대구동부교육청 대회의실
 - 문의: 동부교육청 재무과(053-606-5170~1, 입찰관련), 시설과(053-

606-5180~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
출안내)

◇ 범서초등학교

- 용역명: 범서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설계용역
-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구비하고 건축사사무실 등록을 떨한 자.
- 주요내용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346번지
 - 대지면적: 20,193m²
 - 시설규모: 지상4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용역기간: 120일간
- 현장설명: 99년 2월 8일 11:00, 울산 강남교육청 대회의실 3층
- 응모신청: 99년 2월 8일 ~2월 12일 17:00
- 작품제출: 99년 3월 31일 ~ 4월 2일 (3일간)
- 문의: 재무담당부서(052-254-1252, 참가신청관련), 시설담당부서(052-254-1264, 기술지침관련)

'99 MBC 인테리어 · 건축 박람회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종합전시장에서

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진람이 주관하는 99 MBC 인테리어 · 건축박람회가 오는 3월 11일(목)부터 15일(월)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MBC앞)에서 5일간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총 10만m² 규모의 전시장에 인테리어전, 건축자재전, 조명산업전, 조경산업전, 배관기자재전, 부동산분야 및 정보전 등이 다양하게 꾸며진다.(02-789-3727)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 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을 법률 제5,656호로 공포하고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제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지정된 전통기록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전락해 제정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증축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건축·주택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한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건축인·허가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방법을 100% 전수점검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설계부터 감리, 준공검사까지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던 관행을 없애고 감리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맡고 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임명한 검사원이 대신하는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 형사처벌된 건축사 또는 시공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제11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택·건축분야 부조리근절 대책 마련

서울시, 규제위주 법령 정비키로

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 「주택·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건축분야 부조리의 원인이 규제 위주의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절차에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각종 법령, 규제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위법건축물의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불법 용도변경된 옥탑을 당분간 준공처리해 양성화하거나 위법건축물의 준공을 허가해주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필지의 건축기준 완화, 건물 밭코니 건폐율 산정 방법 개선 등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고, 준공검사된 건축물을 바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준공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북, 건축관련 인터넷 서비스

도내 시·군 건축조례 제공

전라북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과 혜택, 각 지구안의 대지규모와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 규정 등 도와 시·군의 건축관련 조례내용을 지난 1월 27일부터 인터넷에 올려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공사 신고기준 완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시·도지사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을 종전 연면적 3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해체관련 공사에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지난달 25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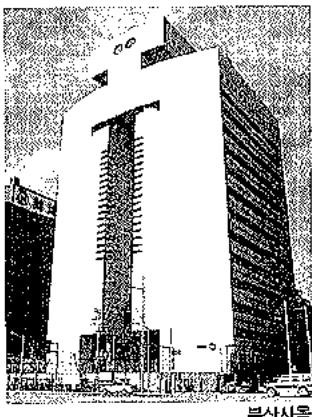
책임감리 공공공사 대상 완화

건기법시행령증개정령 공포

건교부는 지난 1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증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공사비 1백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졸업자도 졸업 후 18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건축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에 한해서만 가능케 했던 감리회사 대표자의 자격제한 폐지 ◇건설기술자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미이수자, 교육비 미부담업체,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경감(각각 50%)

마리오 보타, 교보생명빌딩 설계

부산과 대구사옥 설계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교보생명의 의뢰를 받아 부산과 대구에 교보생명사옥을 설계, 그 형체가 드러나고 있다. 주로 교회나 미술관 등의 저층 건물을 설계해 온 마리오 보타는 공사중인 두건물에서 매스 일부를 움푹 파 음영을 강조하는 등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오피스빌딩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부산사옥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보이는 부산역주변에 위치, 바다를 향해하는 장군의 형상과 비슷하며, 대구사옥은 동성로에 위치, 가운데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 오피스공간이 펼쳐지는 평면을 갖고 있다.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신간안내

한국의 명원 소쇄원

제로텍스트

건축은 반역이다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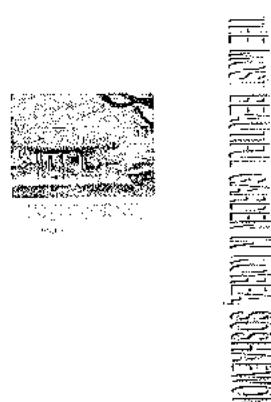
북한문화재해설집 II - 사찰건축편

건축설계이야기

AutoCAD R14 기초와 실습

◆ 한국의 명원 소쇄원

한국정원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소쇄원(瀟灑園)의 역사와 형태, 다소 현세적이라 할 수 있는 조영자의 자연관, 건축개념 그리고 소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 생활들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소쇄원은 조선 중종대에 처사 양산보가 조영한 일종의 별서정원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기 위해 점자를 짓고 뜻을 파고 나무를 심어 완성한 곳으로 당대의 문인들이 시상, 학문을 교류하는 학문과 동류의 장소로 이를 중심으로 「누정가단」을 형성한 바 있다. 이 책은 소쇄원 창설당시 사회·역사적사건들이 소쇄원의 조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쇄원의 조영자인 양산보의 자연관은 소쇄원 조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소쇄원의 옛모습을 묘사하여 제작된 「소쇄원도(瀟灑園圖)」와 소쇄원의 계획개념과 공간체험들을 시로 표현한 「소쇄원48영(瀟灑園四十八詠)」, 그리고 여러 실증자료들을 통해 소쇄원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와 현재 소쇄원의 모습



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저자는 소쇄원 감상을 구성과 형태분석에 얹매이기보다 소쇄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각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읽도록 하고 있다. 천득염지음/246쪽/1만4천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펴냄

◇ 제로텍스트

건축에 후기구조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페이퍼 아키텍트 라스 르립의 설계이론서가 출간됐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츄리히, 베를린, 스톡홀름 등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는 라스 르립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로 분류되고 언어와 건축을 엮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종종 피터 아이젠만과 비교되곤 하는데 그의 일련의 작업은 건축가와 건축, 사용자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에서 작가와 텍스트, 독자의 관계를 건축에 적용하여, 건축가가 건축물에 의도한 주제를 사용자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르립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건축가와 사용자 간의 틈을 줄이려 한다.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해체와 재구축을 거듭하면서 생기게 되는 변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이를 이야기하면서 사용자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 하는 그의 글과 드로잉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MIT출판사에서 1987년에 출판한 라스 르립의『Planned Assualts』을 번역한 것으로, 무가족 주택, 사랑/주택, 텍사스 제로의 3개의 계획안을 통해 일가족 주택과 그 부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재적으로나 험구적으로 표상되어지는 건축적 교조와 사회적 관습에 계획적인 공격을 기하고 있다. 또한 건축적일 뿐만 아니라 시적, 철학적, 정신분석학적이라 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영감들을 통해 독자들은 건축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최근의 건축적 사고와 실천의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르립의 일련의 작업에 대한 피터 아이젠만의 비평도 함께 실고 있다. 세기말의 혼란스러움속에서도 건축의 이론화 작업에 꾸준히 매진하는 건축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서술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라스 르립 지음/ 이강현 옮김/120쪽/1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02-929-3546)펴냄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시각을 통해 군더더기와 장식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기술의 극한을 추구하는 실험성,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낳는 철골구조에 능한 실용주의 그리고 철골의 파워와 유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간결 미학 등 저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함인선 지음/232쪽/8천원/(주)서울포럼(02-514-9838)펴냄

◇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 미술공예연구실에서 건축문화재 기록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축문화재의 정밀설측 결과를 토대로 한 학술연구보고서로 건축양식, 실측자료해설, 사진 및 실측도면 등을 수록한『한국의 고건축 제20호』가 출간됐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청평사 회전문(보물 제164호)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정혜사 대웅전(보물 제804호)이 실린 이 보고서는 정밀설측 도면 90매, 상세사진 152매, 그리고 〈정혜사대웅전중수상량문(定慧寺大雄殿重修上樑文)〉과 같은 관계 자료를 풍부히 수록하고 있어 한국 전통건축의 학술연구 진흥 및 보급,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권말에 영문요약을 수록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등에 한국전통건축을 소개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청평사는 고려시대 이자현이 문수원(文殊院)을 지으면서 거시불교(居士佛教)의 중심지가 되고 조선시대에 고승 보우(普雨)에 의해 지금의 사세를 갖추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유서깊은 사찰이며, 회전문은 강릉 객사문, 도감사 해탈문 등과 비견되는 조선시대 초기의 건축물로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건물이다. 정혜사는 고려시대에 선원(禪院)으로 정착된 사찰로써, 대웅전은 임란이후 조선중기에 건립되어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가구법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02-735-5281 교269) 문의



◇ 북한문화재해설집Ⅱ-사찰건축편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한소재문화재를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하는 해설집시리즈로 97년 해설집 I - 석조문화재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평양특별시 3건, 개성직할시 3건, 황해남북도 10건, 강원도 11건, 평안남북도 21건, 양강도 1건, 함경남북도 12건 등 총 61건의 현존 북한 사찰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각 사찰에 대한 해설, 관계문현목록 외에도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생생한 컬러사진 200매, 흑백사진 47매, 도면 165매 등 수집 가능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어 해방이후 우리 손에 의해 최초로 북한 사찰관계 사진과 도면자료가 집대성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지역에는 최초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심원사 보광전, 성불사 응진전 등의 고려시대의 건축물과 북한 최대의 사찰인 묘향산 보현사, 구리기둥에 의지하여 축조한 금강산 보덕암, 자연비위골을 이용하여 축조한 금강암굴, 독특한 육각형 평면의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사공(斜拱)이란 특이한 공포형식을 가진 현존 유일의 예인 안국사 대옹보전 등 귀중한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사찰건축을 포함한 전통사찰건축에 대한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한층 심도있게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전통건축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 후 북한소재 사찰건축이 복원, 보존 등에 대한 귀중한 일차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목조건축편, 고고미술편, 민속편, 천연기념물편 등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02-737-6685)문의

◇ 건축설계이야기

건축전문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건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상식이하의 건축을 억제하고 예술작품에는 이르지 못해도 건강한 환경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정림건축에서 30년 동안 설계업무를 맡아온 권도웅씨가 심오한 건축철학이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엮은 건축주와 실무자를 위한 「건축설계이야기」가 출간됐다. 건축가는 예술과 기술을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게 되며, 작품의 질은 건축가의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건축가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예비건축주로서 상식이하의 전문인을 만났을 때 최소한 상식 이상의 건축으로 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반시민이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구성이 시작됐다. 계단의 철판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난간 고정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등 크게 설계를 시작하기 전과 건축설계에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로 구성해 일반인들은 물론, 초보 설계자,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도웅 지음/264쪽/1만원/기문당(02-295-6171)펴냄

◇ AutoCAD R14 기초와 실습

현재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AD프로그램은 주로 AutoCAD이다.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AutoCAD R12와 AutoCAD R14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R13을 사용하는 사무실은 드물다. 이책은 최신 버전인 AutoCAD R 14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다루는 법을 아주 쉽게, 혼자 돋학할 수도 있게 쓰여졌다.
양재호 맹광태 구정희 공저/326쪽/1만2천원/기문당 펴냄



건축설계이야기
건축설계이야기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도봉구 종합청사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

장성실내체육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 자체창고

▶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주)원우건축
 축(이종철)+(주)단우건축
 사사무소(최명철)+건축사
 사무소 이목(강봉원)+(주)건축사사무소 우토
 (박홍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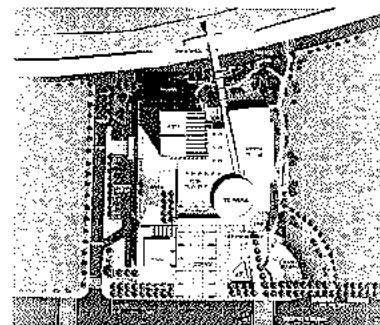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0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상세 계획 구역
대지면적 15,006.15m²(4,539.34평)
도로현황 서측 25m 도로에 접함
 북측 및 동측 12m 도로에 접함
건축면적 6,125.46m²(1,852.94평)
연면적 36,500.87m²(11,041.46평)
건폐율 40.82%
용적률 140.73%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17층
최고높이 87m
외부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화강
 석버너구이, AL, 목합페널
주차개요 지상-18대(장애인 주차 6대,
 관용버스 3대 포함)
 지하-317대
조경면적 3,381.68m²(법정 2,250.9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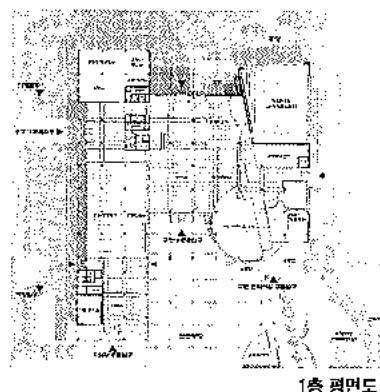
계획목표

- 구민 중심의 구청사
-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구청사로 구민의
 문화·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넓혀주는
 장소 제공
- 지역사회의 공공적 건물로 구민 중심의
 축제마당 제공
-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구
 청사
-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 도봉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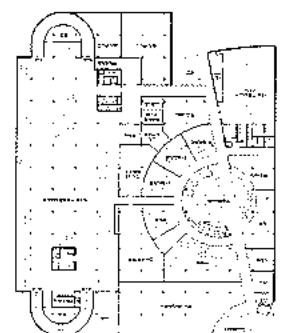
- 상징적(Landmark)인 건물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
 는 구청사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지향적인
 건물
 - 친환경적인 구청사
 -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적절히 배
 치하여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
 처 제공
 - 주변의 자연환경을 다양한 계층이 향유
 할 수 있는 시설 유치
 - 경제성을 고려한 구청사
 -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배치
 - 공기내 완공이 가능한 조립식 구조 및
 신공법 선택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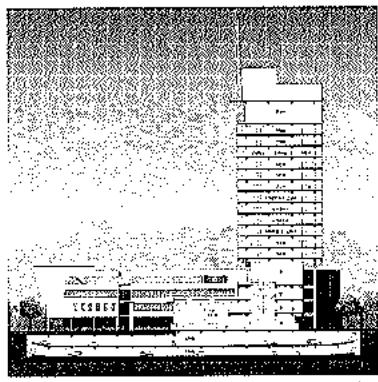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도봉구 종합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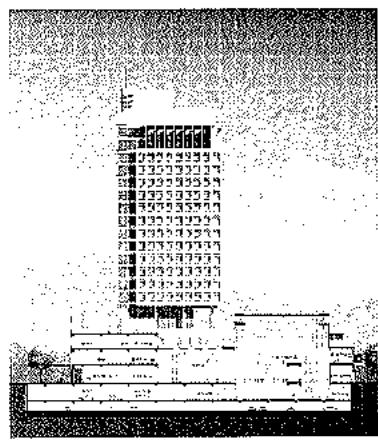
Dobonggu Public Office

도봉구가 구민의 문화·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실시한 도봉구
 종합청사 현상설계의 결과가 지난 98
 년 12월 17일에 발표됐다.

총 29개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
 계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주)원우건축
 (이종철)+(주)단우건축사무소(최명
 철)+건축사사무소 이목(강봉원)+(주)
 건축사사무소 우토(박홍근)안이 당선작
 으로 선정됐고, (주)희림종합건축사사
 무소(이영희)안과 (주)종합건축사사무
 소 건원(곽홍길)+(주)종합건축사사무
 소 국제(한현호)안이 우수작과 기작으
 로 각각 선정됐다.



횡단면도



종단면도

▶ 우수작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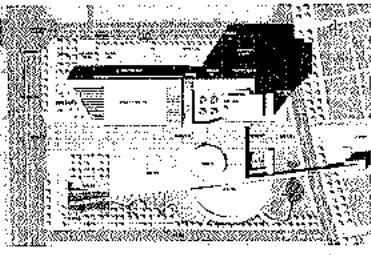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상세계획구역
대지면적	15,006.15m ²
건축면적	2,949m ²
연면적	35,456m ²
건폐율	19.65%
용적률	154.64%
용도	공공업무시설
규모	지하2층, 지상19층
건축총괄	정영균
프로젝트 디자이너	지광석

건축설계 조동형, 권기재, 심재준, 조남승, 오현석, 구연희, 정진환, 신수진, 전지영, 이동원, 배혜경, 이명주, 현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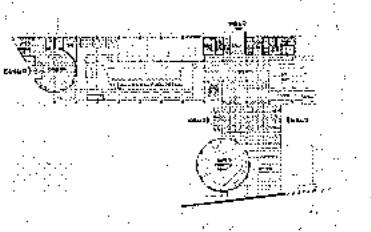
3D 프리젠테이션 김희호, 임성재, 정재희, 변미경, 이행숙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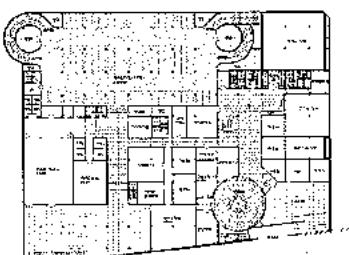
외부마감 메탈페널, 복층유리 THK 24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단면도

▶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곽홍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한현호)



모형도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삼세계획구역

15,006m²(4,539평)

도로현황 동측-12m도로, 서측-30m도로
남측-6m도로, 북측-12m도로

연면적 36,441m²(11,023평)

건축면적 6,053m²(1,831평)

건폐율 40%

용적률 154%

구조 R.C구조+S.R.C조

층수 지하2층, 지상1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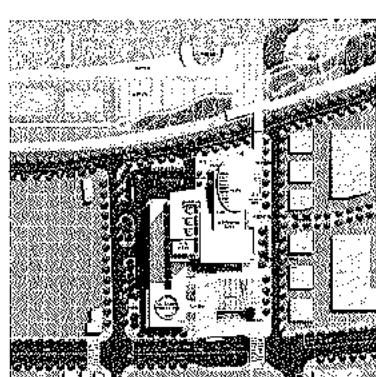
최고높이 80m

외부마감 30mm화강석, 24mm컬러복층유리, 12mm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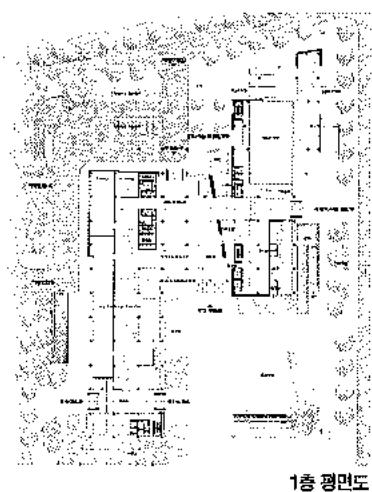
설비개요 저층: CAV+팬코일 유닛 방식
4-17층: VAV+팬코일 유닛
방식, 냉온수유닛, 중수도 설비

주차개요 지하: 284대, 지상: 1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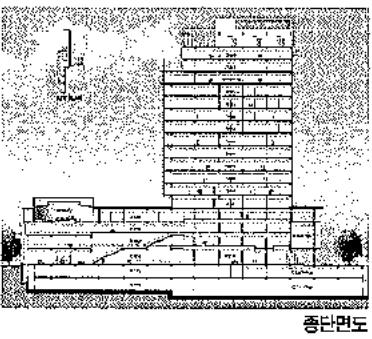
조경개요 15%(2,281m²)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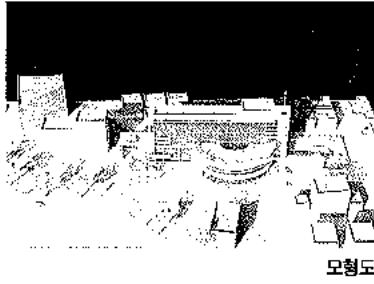
총단면도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

Seongbukgu Youth Training Center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미래의 주 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학, 체육,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의 현상설계경기
가 지난 98년 12월 8일에 발표됐다.
총 181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주)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강근웅)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당선작 / (주)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강근웅)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35-2
외 10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2,681.00m²(811.00평)

도로현황 전면: 25m, 우측면: 6m
후면: 4m

건축면적 923.49m²(276.36평)

연면적 5,001.29m²(1,512.89평)

건폐율 34.45%

용적률 83.8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22.35m

외부마감 외벽: 시멘트 성형판

창호: THK 18m/m 컬라복
충유리

설비개요 기계설비: 중앙집중식 냉난방
공조방식: 덱트+F.C.U

주차개요 30대

조경개요 법정조경: 402.15m²

계획조경: 650.00m²

배치계획

- 대지외향 및 형상, 축 등을 고려한 계획

- 복지관의 정면성 확보 및 건물내부로의 원활한 흐름 유도

- 대지의 남쪽에 야외공연장과 휴게공간
대지의 북쪽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함.

평면계획

• 계획의 방향

- 관련 기능별로 Zonning화 및 유기적인
동선체계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화된 모듈계획

- 설계조건에 충족한 면적 확보

• 매개공간(아트리움, 로비)

- 투명재료에 의한 내외부공간의 연결
- 사람들의 만남과 휴식공간, 전시공간 제공
 - 체육시설
- 전용출입구 및 자연체광 최대활용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화된 모듈계획

임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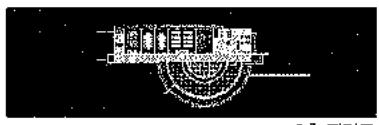
- 성북 청소년수련관 조형성 및 이미지 창출
-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상징적인 입구구현
- 수평창과 수평루비로 쾌적한 실내공간
과 시각적 안정감 부여

단면계획

- 층별기능에 따른 적정층고와 천정고 계획
- 아트리움도입으로 실내공간의 활성화와
지하에 자연체광의 유입으로 에너지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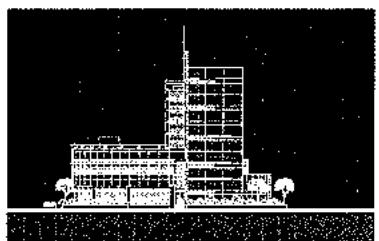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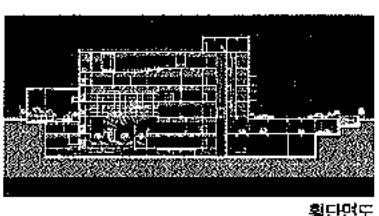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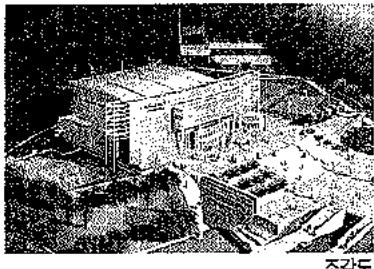
횡단면도

장성실내체육관

Jangseong Indoor Gymnasium

장성군의 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시작인 장성실내체육관의 현상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98년 12월 10일에 발표됐다.
총 11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 경기에는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박유종)인이 당선작에 (주)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강성익)안과 (주)토형ENG건축사사무소(오금렬)인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박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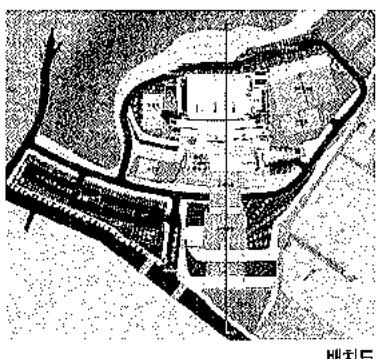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전남 장성군 장성을 기산리 388번지 일원
대지면적	76,03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6,103.35㎡
용적률	4.8%
건폐율	3.3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19.3m
미감재료	외벽: THK24m/m 복층유리 + Hidden Bar(전면) 단열형 메탈페널(측면) 창호: THK12m/m 캘리복층유리
주차개요	소형: 164대, 대형: 7대
설계담당	하상민, 윤 훈, 박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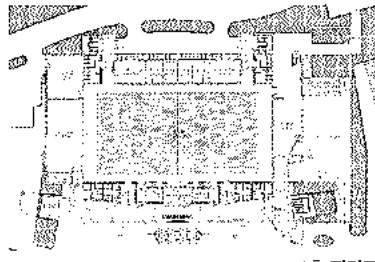
“모퉁이를 돌아서면 나즈막한 능선이 보인다. 양지 바른 남쪽사면에 위치한 눈 맛이 좋은 건축물, 언덕 위의 유리집… 대부분의 체육관은 육중한(Massive)외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장성의 실내체육관은 경쾌하고 투명하며, 가볍지만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장성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체육관의 건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마도 체육관 건립이후 주변의 건축물들(실내수영장, 문예회관, 여성문화관, 문현정보관 등)을 어떻게 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관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계획안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건축적 장치로 전면의 Glass Wall을 제안하였다. Glass Wall은 '시간'이라는 상징적 개념을 형상화하고 또 후일 지어지게 될 각기 다른 건축물의 이미지를 Screen에 투영하여 유사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 Glass Wall은 경쾌한 입면을 가진 체육관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적인 이미지로, 소란스럽지 않으나 강력한 형태로 그래서 뚜렷이 머리 속에 그 형상이 그려질 장성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文不如長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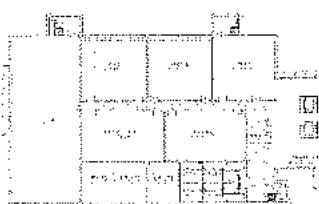
장성의 청렴하고 투명한 정신을 대변하는 단어다. 그 옛날 장성인들이 밝혔던 그 청렴의 불빛이 앞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문화단지에서 상징적으로 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전술하였듯이 무겁거나 위압적이지 않게 그렇게 강한 느낌이 되어 거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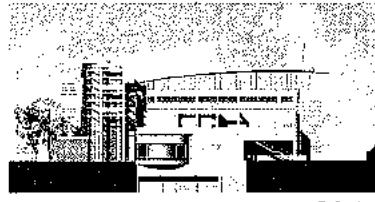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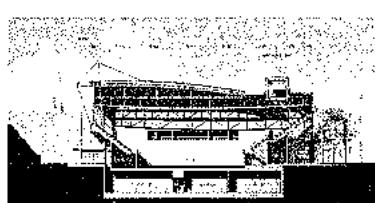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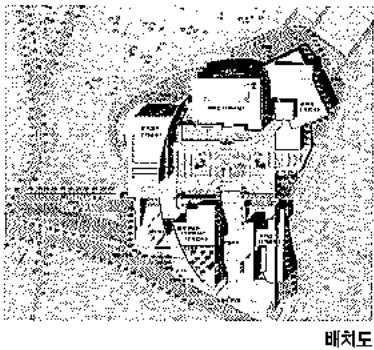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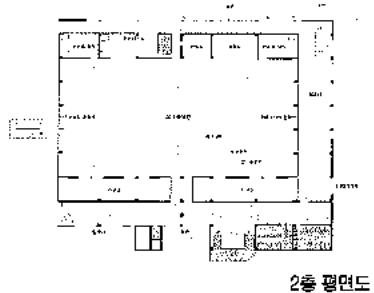
조감도

용도	관람집회시설
대지면적	76,000㎡
건축면적	2,728.09㎡
연면적	6,111.76㎡
최고높이	2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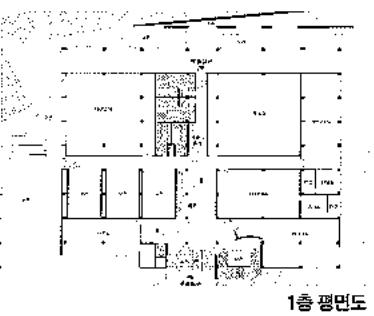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알루미늄복합페널 + THK24
페어글라스
주차대수 지상 175대, 지하 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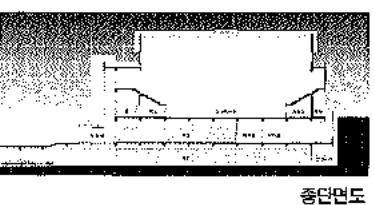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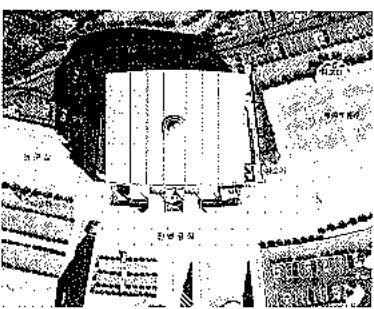
층단면도

▶ 가작 I /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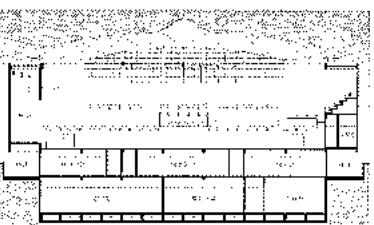
지역지구 자연녹지, 문화시설, 종합운동장
장시설
대지면적 약 23,000㎡
건축면적 2,066.30㎡
연면적 6,249.49㎡
건폐율 2.72%
용적률 6.17%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RC조 및 철골조
외장 화강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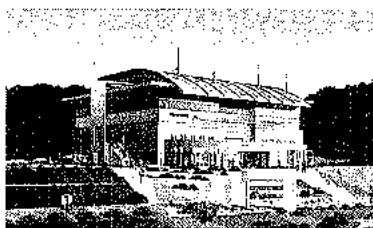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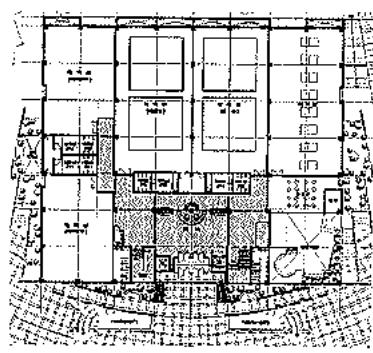
층단면도

▶ 가작 II / (주)토형ENG건축사사무소
(오금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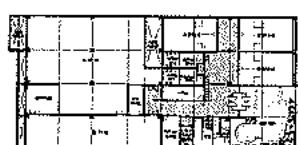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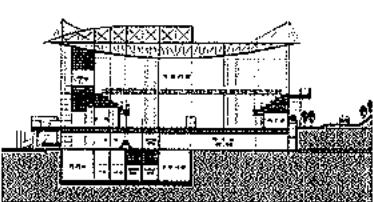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시설
도로현황 10m도로(대지내 6m도로)
대지면적 약 76,033㎡
건축면적 2,143.39㎡
연면적 6,040.62㎡
건폐율 2.81%
용적률 6.59%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외단열 마감재, 저반
시킬리복층유리, 알루미늄복
합페널
주차개요 옥외 202대(장애인 5대 포함)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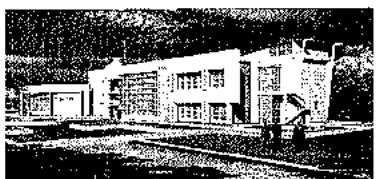
층단면도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 자재창고

Storage Building of Korean Electricity Corporation,
Pusan Office

한국전력공사의 남부권 3개지사(부산, 경남, 제주)의 송배전자재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 자재창고의 현상설계 결과가 지난 98년 11월 10일에 발표됐다.
총 20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박유종)안, 우수작에는 에이·포스트종합건축사사무소(박대원)안과, 기작에는 건축사사무소 토반(김정희)안과 (주)서울이종합건축사사무소(정수홍)+(주)서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기)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박유종)



사무동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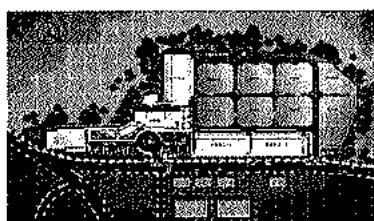


소비창고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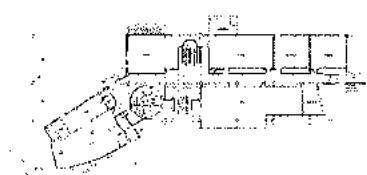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도리 272번지 외
대지면적	28,703m ²
지역지구	준농립지역
건축면적	4,905.45m ²
연면적	5,917.97m ²
건폐율	17.1%
용적률	20.62%
구조	사무동: 지하1층, 지상2층 창고: 철골+Pipe Truss 구조

층수	사무동: 지하1층, 지상2층 창고: 지상1층
최고높이	사무동: 12.75m 창고: 13.6m
마감재료	외벽 - 사무동: 벌랑페널, 베이스페널(압축성형 시멘트 패널) 창고: 샌드위치 패널 (외벽용 단열금속패널)
	창호 - 사무동: 24mm 복층유리(파스텔 유리) 창고: 8mm 판유리(파스텔 색조)
	지붕 - 사무동: 콘크리트 슬리브 창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용 단열금속패널)
주차개요	48대
조경개요	6,716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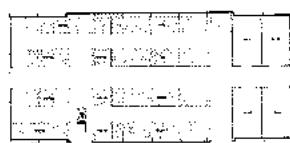
히 널리 인식되어 국가 또는 기업의 차원에서 그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상무성이 주도하여 세 계획하고 있는 CALS 시스템이다. 본 Project는 그러한 첨단의 물류정보시스템이 요구되는 수준은 아니나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요구를 예측하여 새로운 한전 내 물류시설의 본보기가 되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스터 플랜



사무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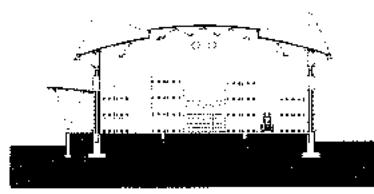
사무동 2층 평면도



소비창고 지상층 평면도



사무동 층단면도



소비창고 층단면도